

새국어생활

새국어생활

2014년 제24권 제3호 · 가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4-02-03
정간위 심의필 95-13-4-21
ISSN 1225-7168

새국어생활 Saegugeosaenghwal
제24권 제3호(2014년 가을) Vol. 194

인쇄일·발행일 2014년 9월 30일

펴낸이 민현식

편집위원 남길임 · 이광표 · 주세형 · 진정란 · 최경봉

기획·편집 이승재 · 김형배 · 박성민

제작 커뮤니케이션북스(주)

펴낸 곳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주소 157-857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827번지)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54, Geumnanghwa-ro, Gangseo-gu, Seoul, Korea

전화 (02) 2669-9775

전송 (02) 2669-9777

차례

[특집] 한글의 과학성을 문화로 바꾼 분들

말言調은 나라의 본성(本性)

— 주시경, 최현배, 이희승을 중심으로 3

이병근

원고로 남은 최초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 20

최경봉

최현배의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 38

서상규

주시경 선생의 말글 사랑과 그 사랑 이어가기 61

권재일

[특집 대담] 주시경 선생님의 국어 사랑을 말하다

이기문 명예교수와의 대담 76

송철의

지금 이 사람

568년 동안의 한글, 568년 그 이상의 한글

－ 홍윤표 한글박물관 개관위원장을 만나다 89
권창섭

문학 속 우리말

이효석 소설 속 어휘들의 감칠맛

－ 〈메밀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 113
민충환

삶과 우리말

자막 문장에 대한 몇 가지 생각 123
장진한

세계의 언어 정책: 체코

체코 공화국 소수 민족의 언어 정책

－ 집사-로마니족을 중심으로 133
김규진

국립국어원 소식 159

[특집]

한글의 과학성을 문화로 바꾼 분들

[특집] 한글의 과학성을 문화로 바꾼 분들

말[言語]은 나라의 본성(本性)

— 주시경, 최현배, 이희승을 중심으로*

이병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1. 무엇이 문제인가

필자는 오래전에 ‘주시경’을 다루기에 앞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한 시대의 역사적 인물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늘 새로운 역사적 평가를 받고는 한다. 전통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 사이에서 몸부림쳤던, 그러면서 쓰러져 가는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으려 했던 이른바 개화기(開化期)의 영원히 잊지 못할 인물의 한 사람인 주시경(周時經, 1876~1914)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병근, “주시경”, 《국어연구의 발자취(I)》, 김완진·안병희·이병근 공저, 1985)

* 주시경 서거 100주기를 맞아 필자가 청탁받은 원고의 원래 제목은 ‘우리말은 나라의 근본’이었다. 그리고 우리말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관점으로 우리말을 지킨 인물(주시경, 최현배, 이희승)의 생애, 시대적 배경을 집필하되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까지도 크게 바뀐 바 없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에서도 부분적인 면을 제외하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강습소에서 주시경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이면서 또 다시 그의 후계자가 된 히뭇[白淵] 김두봉, 다시 그 강습소에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이면서 고향 인근의 후배였던 외솔 최현배(또는 ‘감매’, ‘한방우’)는 주시경 정신의 후계자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주시경의 저서를 통해 신학문에 접하게 되면서 일생을 줄곧 언어 연구에 몸 바쳤던 간접적인 제자 일석(一石) 이희승은 친구 최현배와 서로 얽혀서 줄곧 한 세상을 지내며 이 나라 어문 운동과 어문 연구를 발전시켜 온 인물이다. 그리고 3·1운동 후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광복 후에는 북한으로 들어가 김일성 밑에서 제2인자로 지내다 숙청당할 때까지, 김두봉은 그곳에서 어문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 한글 전용의 정책을 펼쳤다. 남한에서는 최현배가 문교부에서 근무하며 문교 정책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애를 많이 썼다. 정책과 연구의 내용이 이들 사이에 서로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밑바탕에 주시경에게서 물려받은 어문민족주의가 깔려 있음은 사실이다. 다만 이 중 이희승은 우리말의 맛을 살려 우리말을 애용했지만, 신조어를 자연스럽지 못하게 고유어로 마구 잡이로 다듬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급작스러운’ 한글 전용 정책도 반대한 점에서 앞의 인물들과는 분명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글파’에 반대하며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맞춤법을 주장했던 박승빈 변호사 중심의 ‘정음파’도 등장했다. 어찌된 일인가.

이제 ‘말’이 나라의 본성이란 주시경의 이러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찌 반영되었는지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위 선각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

2. 주시경과 김두봉

한말(韓末)의 지식인들은 외세로 인해 쓰러져 가고 있던 나라를 건지려 그들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발버둥을 쳤다. 주시경은 바로 사람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말[언어]’을 중심으로 삼아 나라와 겨레를 지키려고 우리말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지 4년 만에 만 38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영원히 저버린 사람이다. 황해도 봉산군 무릉골에서 태어나 서울 큰덕에 양자로 온 주시경은 원래 이름이 주상호(周相鎬)다. 근대 신학문을 접하다가 배재학당을 다녔다(1894년부터 1년간, 1896년부터 1900년까지 4년간). 여기서 주시경은 서재필을 선생으로 만나 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승만, 윤치호 등은 학당의 학생회인 ‘협성회’에서 함께 일을 한 동창이다.

1896년 이후 주시경은 독립신문사에서 일을 하다가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 즉 한글맞춤법연구 모임을 결성하며 이듬해 《독립신문》에 국문 관련 논설들을 집필해 자신의 언어관을 피력했다. 한편 같은 해에 독립협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어 소장 신진으로 활동했다. 말하자면 20대에는 국어 국문의 연구와 정치 활동이라는 두 가지에 몸을 담았던 셈이다. 배재학당 역사지리특별과를 거쳐 보통과를 1900년에 마친 주시경은 상동교회의 청년학원 국어강습소에 국어문법과를 만들어 국어 국문에 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1년간 직접 강습하기 시작했다. 이때 그가 가르쳤던 교재는 후에 《대한국어문법》(1906)으로 엮었는데 그 내용은 문자 체계와 맞춤법에 관한 것이었다. 책 보파리를 끼고 수없이 많은 학교를 다니며 국어·역사 등을 가르쳤다. 1907년에 설립된 학부 국문연구소의 위원으로 위촉된 그는 정말 성의를 다한 듯 위원들

중 가장 많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주제는 지석영(池錫永)이 제기한 이른바 ‘국문정리’의 과제들이 중심이었다. 역시 문자 체계의 새로운 확립과 그에 따른 맞춤법의 정리 방향을 위해 《대한국어문법》을 다시 정리해 1908년에 《국어문전음학》을 간행하고, 이듬해 최종 국문연구소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어서 현대 언어학에서의 형태론(‘기난갈’ 참조)과 통사론(‘짚듬갈’ 참조)까지 포함한 문법서인 《국어문법》을 1910년에 간행했다. 이 책에 소개된 문장 분석의 도해 방식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독창성을 크게 강조해 해석하였는데, 뒤늦게 밝혀졌지만 실은 당시의 영어교사 참고서인 《English Lessons》(1906)의 분석 방법을 참고했던 것이었다.¹⁾ 문자와 음운학 내용의 용어와는 달리 이 책의 문법 용어들은 일상적인 고유어를 줄이거나 ‘입, 제입, 두로, 문’ 등처럼 새로 지어 쓰면서 한글 전용을 시도했다. 그리고 《국어문법》은 바로 시작된 일본의 제국주의로 《조선어문법》(1911, 1913 등)으로 수정되었고 민족주의 어문관이 잘 요약된 《국어문법》의 서문은 없어졌다. 그리고 일제강점하에 들자 문을 연 조선광문회에서 그는 김두봉을 비롯한 몇몇 편집위원들과 조수 김여제의 도움을 받아 근대적인 국어사전 《말모이》를 편찬하기 시작했다. 《소리갈》(1913) 같은 유인본도 내놓았고, 끝으로 본문을 모두 한글로만 쓴 《말의 소리》(1914)를 간행하고는 해외로 망명 준비 중 38세의 젊은 나이로 작고했다.

주시경은 말과 겨레와 나라의 밀접하고 깊은 관계를 그의 초기 논설부터 강조해 왔다. 이러한 그의 생각이 가장 응축된 표현은 《국어문법》(1910)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1) 정승철(2003), 국어문법과 English Lessons, 《국어국문학》 134.

우주자연(宇宙自然)의 이(理)로 지구(地球)가 성(成)하매 기면(其面)이 수륙(水陸)으로 분(分)하고 육면(陸面)은 강해산악사막(江海山岳沙漠)으로 각구역(各區域)을 계(界)하고 인종(人種)도 차(此)를 수(隨)하여 구구부동(區區不同)하며 그 언어(言語)도 각이(各異)하니 차(此)는 천(天)이 기역(其域)을 각설(各設)하여 일경(一境)의 지(地)에 일종(一種)의 언(言)을 발(發)하게 함이라 시이(是以)로 천(天)이 명(命)한 성(性)을 종(從)하여 기역(其域)에 기종(其種)이 거(居)하기 의(依)하며 기종(其種)이 기언(其言)을 언(言)하기 적(適)하여 천연(天然)의 사회(社會)로 국가(國家)를 성(成)하여 독립(獨立)이 각정(各定)하니 기역(其域)은 독립(獨立)의 기(基)요 기종(其種)은 독립(獨立)의 체(體)요 기언(其言)은 독립(獨立)의 성(性)이라.

말하자면 ‘域’ 즉 ‘땅(區域)’과 ‘種’ 즉 ‘겨레(人種)’와 ‘言’ 즉 ‘말(言語)’이 하늘(天)이 명한 성(性)에 따라 하나의 천연적인 사회가 형성되되, 그것이 곧 독립된 ‘나라(國家)’가 된다며, ‘땅’은 독립의 ‘터전(基)’이요, ‘사람(種)’은 독립의 ‘몸(體)’이요, ‘말(言)’은 독립의 ‘본성(本性, 性)’으로,²⁾ 세 가지 요소가 합해져 하나의 사회며 나라가 각각 정해진다고 했다. 여기서 ‘본성’은 나라의 경우 ‘국성(國性)’인데, 당시의 역사학자들이 강조했던 ‘국수(國粹)’나 ‘국혼(國魂)’에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언어

2) 여기서 ‘성(性)’이 진정 무엇을 뜻하는지는 애매하다. 허웅(1974) 《우리말과 글의 내일을 위하여》에서는 ‘바탕’ 즉 ‘독립의 상’을 ‘나라 바탕(국성)’이라 했고, 이준식(2008) “최현배와 김두봉 언어분단을 막은 두 한글학자” 《역사비평》 082호에서는 ‘일(性)’로 보았다. 그리고 고영근·이용·최형용(2011) 《주시경의 국어문법》에서는 ‘성’은 다른 말로 옮기기 어렵다면 대체로 ‘본질적인 요소’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를 중심으로 한 자연발생적인 독립국가관을 주장했었기에 세상의 모든 나라는 각각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본성(本性)인 ‘말’이 없으면 몸도 아니고 터도 못 되는 셈이다. 그러기에 그 나라의 성쇠(盛衰)도 말의 성쇠에 있고 나라의 존부(存否)도 말의 존부에 있다고 생각하고서 우리말 연구를 강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독립을 강하게 의식한 ‘민족어(民族語)’ 중심의 이데올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단일 민족이니 단일어니 하는 생각이 여기서 비롯된 것임은 물론이다. 단일성의 순수한 핵심, 즉 국수(國粹)를 찾다 보면 이것이 지나쳐 ‘광란적인 애국주의(chauvinisme)’ 사상이 나오는 일이 있다. 한국의 ‘나라, 겨레, 말’의 이러한 ‘단일성’ 관계는 세계 역사에서 보면 일반화가 어려운 한국적 특수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어문 민족주의적 인식에 빠진 주시경은 그의 이름도 고유어 인식이 강한 ‘한힌샘’(아마도 ‘태백천(太白泉)’ 정도?)이라 부르기도 하면서, 기독교에서 민족종교의 기치를 든 대종교(大宗教)로 개종했다고도 한다. 주시경의 민족사상은 그 후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주시경의 후계자로 불리는 김두봉³⁾은 그 호를 ‘白淵’에서 ‘히뭇’으로 번역해 불렀듯이 주시경과 통하는 면이 많았다. 1889년에 경남 기장군 동부리(현재는 부산광역시에 편입)에서 김돈홍(金敦洪)의 장남으로 재력과 학식을 갖춘 향리 집안에서 태어났다.⁴⁾ 그의 일가에는 사회주의자 또는 독립운동가가 많았다 한다. 동생은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로 이름을 떨친 김두백이다.⁵⁾ 17세까지 아버지 밑에서 한학을 공부하다

3) 김두봉의 자세한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한홍구(2010), 김두봉-혁명가가 된 한글학자, 《한국사 시민강좌》 47집을 참조.

4) 김두봉의 탄생 60주년 기념 논문을 김수경이 1949년에 발표하였다.

가 보명학교를 다녔는데, 1908년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가 세운 기호학교(중앙학교의 전신)에 입학, 특별과를 졸업한 후, 다시 배재학당을 졸업했다. 주시경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어 강습원에서 주시경에게서 배워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주시경에게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듯하다. 김윤경이 질문을 하면 주시경은 자세한 것은 김두봉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주시경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에 그 강의를 이어받아 가르쳤던 사실로도 보면 후계자가 될 만큼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매우 깊었다. 나아가 김두봉은 대종교의 교조 나철(羅喆, 1863~1916)에게서 영향을 받아 대종교에 입교, 상당히 높은 지위인 상교(尙敎)까지 올랐다.⁶⁾ 주시경의 국어 연구와 나철의 민족 종교의 가르침을 받은 그가 민족주의자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안쓰럽게도 1914년에 주시경, 또 2년 뒤 1916년에 나철, 두 스승을 거의 같은 시기에 잃어버린 김두봉은 이미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자가 되어 있었고 끝내는 1919년 3·1운동 직후 압록강을 건너 중국 안동(단동)에서 영국 기선을 타고 상해로 망명하게 되었다. 그의 스승 주시경이 이루지 못한 해외 망명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상해임시정부의 요직을 맡은 것은 아니었다. 차츰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가 되어 높은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⁷⁾ 광복 이후 중국 연안에서 북한으로 들어가 김일

5) 김두봉은 동아일보사 강릉 지국장으로 있을 당시에 조선어학회 사건과 관련되어 방종현, 광상훈 등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정공식(2006),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 《애산학보》 32.

6) 주시경도 1910년 무렵 기독교에서 민족 종교인 대종교로 개종했다고 한다. 나철이나 김두봉과의 종교적 관계나 대종교 활동은 알려진 바가 없다.

7)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핵심 활동가인 홍도(洪濤)는 자신들의 연원을 1911년 국내에서 주

성 밑에서 부위원장을 지낸 김두봉은 1960년 끝내 연안파 숙청에 포함되었고 마지막은 함경도 주홀 온천에서 휴양을 했었다고 한다.⁸⁾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시경과 김두봉은 많은 유사점을 지녔다. 민족주의자이자 어문 연구자요, 교육자며 종교가(대종교)며 정치가였던 점 등등이다.

주시경이 세상을 떠난 뒤 김두봉은 보성학교 조선어 강습원을 이어 받아 국어 문법을 가르치는 한편(여기서 최현배 등이 가르침을 받음), 주시경이 그의 후계자들과 함께 편찬하던 ‘말모이’(즉 ‘사전’)를 계속하기 위해 그 바탕이 되는 문법서 《조선말본》(1916)을 간행했다. 상해 망명 후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성학교에서 교장을 지내며 국어를 가르치면서 《김터조선말본》(1922)을 간행하였다. 주시경의 주장과 같이 가로쓰기를 실천하였고 풀어쓰기를 시도했다. 사전을 편찬하려 시도했으나 여의치는 못했다. 북한으로 들어간 김두봉은 주시경의 영향을 받아 한글 전용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했고 조선어 학회의 맞춤법을 대체로 따랐으며, 김병제(환산 이운재의 사위로 1947년 《표준조선어(한글)사전》을 공편)에 의해 사전 편찬 팀을 꾸려 1960년에 《조선어사전》 전 6권을 사회과학원에서 편찬·간행했다. 이들의 사전은 국가 기관에서 편찬하였기에 남쪽의 사설 출판사에서 개인적으로 나온 사전들에 비해서는 좀 체계적인 틀이 있었다.

시경을 지도자로 하여 조직된 비밀 결사, ‘배달말글몸음’에서 찾고 있다고 한다(한홍구(2010), 김두봉, 《한국사 시민강좌》 47). 주시경이 정치 활동에 관여하기는 했어도 이 비밀 결사의 지도자였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는다.

8) 1983년 코펜하겐에서 만난 체코의 푸체크 교수는 “주홀 온천에서 김두봉과 면담을 했다.”라고 필자에게 알려줬다.

3. 외솔(한방우) 최현배와 일석 이희승

최현배는 동향 사람인 김두봉의 권고를 받아 주시경의 제자가 되었고, 주시경 사후 김두봉의 제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는 두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그들과는 차이가 있다. 경상남도 울산(하상면 동리)에서 1894년에 태어난 최현배는 고향에서 우선 한학을 수학하고, 고향의 일신학교에서 3년간 신식 교육을 받았다. 여기서 받은 유일선(柳一宣)의 산술책을 통해 공부하는 태도와 방법을 익혔는데, 이것이 일생의 학문 연구의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1910년 상경해 관립한성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이 학교는 관비로 일본 유학을 보내는 특전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총독부가 설립되고 그에 따라 학교명도 경성고보로 바뀌고 교장도 일본인으로 바뀌어 최현배는 이 학교에 점점 흥미를 잃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그는 고향 선배 김두봉의 여러 지도를 받아 문법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조선어 강습원에 나가 주시경에 이어 김두봉의 제자도 되었다. 성적은 100점에 가까운 최고였다. 그러나 위 두 스승과는 달리 민족 종교인 대종교에 입교하지는 않은 듯하다. 강습원을 다니다가 접한 주시경의 작고 소식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텐데, 이에 망인의 유지를 받들기로 결심하고 일생 어문 연구에 몰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1915년 한성고보 졸업과 함께 단 1명의 조선총독부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廣島高等師範學校)에 입학해 한문 교육을 연구 과목으로 했다. 4년간의 유학 끝에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교원 면허증을 받고 귀국해서 1920년부터 사립학교인 동래고보에서 국어 문법을 가르쳤다. 2년 뒤 다시 두 번째 일본 유학길을 떠났다. 1922년 우선 일본 모교의 연구과에 들어갔고 곧 교토(京都)대학 문학

부 철학과에 입학해 1925년 봄까지 교육학을 전공, “페스타로치의 교육학설”이란 졸업 논문을 썼는데, 다시 1년간 그 대학의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이 유학 기간에 그는 나라(奈良)외국어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민족 사회의 개조에 관한 글을 써서 1926년 《동아일보》에 〈조선민족 갱생의 도(朝鮮民族 更生의 道)〉를 발표했다. 그리고 1926년 봄에 연희전문학교 조교수로 임명받았다. 철학, 윤리학, 심리학 등을 강의하던 최현배는 차츰 한국어와 한글을 연구하고 강의하기 시작해 우선 《우리말본 첫째매》(1929)를 선보이고, 1937년에는 오랜 기간 꿈꾸던 《우리말본》을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홍업구락부 사건으로 학교를 떠났고 4년 뒤 복직은 되었으나 도서관에서 사무원으로 일을 했다. 이 기회를 이용해 그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저서로 《한글갈》(1940)을 저작했는데, 이는 훈민정음의 역사와 그 이론들을 정리한 책이다. 일제 강점기에, 그리고 광복 직후에 한글 연구에 관한 많은 논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은 언어 문자를 중심으로 한 주시경 등의 ‘애족’의 민족정신에 입각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사 서술의 일부다.

그간 최현배는 사전 편찬과 그 준비 작업인 ‘맞춤법 통일안 제정, 표준말 사정과 외래어표기법 확립’ 등의 작업을 주로 조선어학회의 동지들과 같이 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12년 제1회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규정하고 1921년 개정언문철자법을 확정하였고 끝으로 1929년에 제3회의 언문철자법 개정이 완료되어 이듬해 적용되었는데, 여기에 최현배도 심의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⁹⁾

최현배는 ‘말’과 ‘겨레’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9) 김윤경(1938), 《조선문자급어학사(朝鮮文字及語學史)》, 567~601.

말씨(言語)는 겨레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생명이요 힘이다. 말씨가 움직이는 곳에 겨레가 움직이고, 말씨가 흥하는 곳에 겨레가 흥한다. 여기에 겨레 다툼은 말씨 다툼으로(民族鬭爭은 言語鬭爭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 겨레가 무력으로써 다른 겨레를 정복하고 나서는, 그 정복의 쾌를 길이길이 누리기 위하여, 그 정복으로 하여금 완전히 정복이 되기 위하여, 그 정복당한 겨레의 말을 없이하려고 든다.

(최현배,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1953)

이극로에 이어 제3회 조선어학회 간사장을 지낸 일석(一石) 이희승(李熙昇)은 현재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서 태어났다. 이희승은 1896년생이어서 최현배보다 2년 아래였다. 전의 이씨로 조선어연구회에서 만난 이극로와는 족친(族親)이었다. 13세에 한성외국어학교 영어부에 입학, 3학년 중도에 한일병합의 국치로 1910년에 미리 졸업했다. 그리고는 최현배처럼 경성고보(관립 한성고등학교)에 편입학했고, 이후 양정의숙 중등학교를 거쳐 중앙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성 직뉴주식회사'의 서기로 취직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고 다음 달 다시 조선국민자유단의 지하 신문 《자유민보(自由民報)》 발행에 자금 마련을 하는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¹⁰⁾ 1925년 경성제국대학에 입학, 1930년 법문학부 조선어학·조선문학 전공을 마쳤고 조선어연구회에 입회, 조선어철자법통일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경성사범학교 교유를 거쳐 1932년에 이화여전 교수로 취임했다. 조선어연구

10) 이 사실은 《동아일보》 1964년 3월 5일 자의 '3·1운동 전후' ⑤에 밝혀져 있다. 이 기사를 찾아준 이정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대한언론인회 문명호 주필께 감사한다.

회가 조선어학회로 발전하면서 이극로에 이어 간사와 간사장을 역임하며 강습회는 물론 맞춤법 제정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이 완성되자 이의 해설을 연재하기도 하며 그 보급에 열을 올렸다. 그가 강조했던 맞춤법의 핵심은 한국어의 구조적 특질에 따라 체언과 조사 그리고 용언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여 표기하는 이른바 형태적 표기에 있었다. 그것은 주시경 맞춤법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조선어철자법강화” 《당성(黨聲)》 천도교 청년당원지, 1934년 10회 연재), 풀어쓰기를 반대하는 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이어서 표준말 사정, 외래어표기법 제정, 그리고 사전 편찬 등에 깊이 관여했다.¹¹⁾ 여기서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인 최현배와는 의견 차가 있을 때 번번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고집이 있었다고 한다. 1940년 일본 동경제국대학 대학원에 2년간 유학, 경성제대 교수였던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지도하에 다시 언어학을 연구했다. 이른바 과학적 연구였다. 그러면서도 이희승은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 국어 속에 나서, 국어 속에서 살다가, 그 국어를 자손에게 물려주고 가는 일반 국민에게 국어에 대한 지식을 공급하고, 국어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고, 국어에 대한 애호심을 촉발하여, 우리 국민의 생존 번영과 국어와의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를 이해시키는 ……

(이희승, 《조선어학론고(朝鮮語學論攷)》, 서(序), 을유문화사, 1947)

11) 최현배와 이희승은 주시경과 김두봉과는 달리 천도교에 입교하지는 않았다. 다만, 천도교 주최의 강연에 어문 관련 강사로는 참여했다. 또 최현배는 고향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고 이희승은 4·19 때 교수단 데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이병근, 일석(一石) 이희승(李熙昇)의 삶과 시대, 《애산학보》 37, 2011).

1942년 봄 이화여전 복직 몇 달 후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연행되었고, 곧이어 장지영, 최현배, 김윤경 등이 옆방에 수감되었다. 당시 민족주의적 어문학자들의 검거는 계속되었고 또 조선어학회를 후원해 준 애산 이인, 남저 이우식 등의 인사들까지 33명이 연행되었다. 또 증인도 상당수였다.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이었다.¹²⁾ 치안유지법의 위반이었다는데, 그 예심 판결문의 일부를 보면 조선어학회의 활동이 곧 문화운동으로서 독립운동이었다고 보고 있다.

민족 운동의 한 형태로서의 소위 어문 운동은 민족 고유의 어문의 정리 통일 보급을 꾀하는 하나의 문화적 민족 운동임과 동시에 가장 심모원려(深謀遠慮)를 포함하는 민족독립운동의 점진적 형태이다. 생각건대 언어는 민족 내의 의사소통은 물론 민족 감정 및 민족의식을 양성하여 굳은 민족 결합을 낳게 하여, 이를 표기하는 민족 고유의 문자가 있어서 비로소 민족 문화를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민족적 특질은 그 어문을 통해 더욱 민족 문화의 특수성을 파생하여 향상 발전하고 …… 문화의 향상은 민족 자체에 대한 보다 강한 반성적 의식을 가지게 하여 강렬한 민족의식을 배양함으로써 약소민족에게 독립 의욕을 낳게 하고 정치적 독립 달성의 실력을 양성케 하는 것으로, 본 운동은 18세기 중엽 이래 구주 약소민족이 되풀이해서 행해 온 그 성과에 비추어 세계 민족 운동 사상 가장 유력하고도 효과적인 운동이라 보이기에 이르렀다.

12)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특집으로 다룬 《애산학보》³²를 참조하되 김석득 “조선어학회 수난사건-언어관을 통해서 본”, 정승교 “일제는 왜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켰나?”, 정공식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 등이 발표 당시에 주목되었다. 또 항일 재판투쟁을 다룬 최근의 한인섭(2012),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호하다》, 경인문화사 중 “조선어학회사건-이인 투옥과 자격박탈”을 참조할 것.

이러한 언어관의 논점으로 조선어학회를 바로 민족운동단체로 보고 치안유지법에 따라 조선어학회 활동에 관련한 지식인들을 옥아팠던 것이다.

본 건 조선어학회는 …… 표면적으로는 문화 운동의 가면하에 조선 독립을 위한 실력 양성 단체로서 본 건 검거까지 십여 년의 긴 세월에 걸쳐 조선 민족에 대해서 조선 어문 운동을 전개하여 왔던 것으로, …… 조선 어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낳게 하여 다년에 걸쳐 편협한 민족 관념을 배양하고, 민족 문화의 향상, 민족의식의 양양 등 그 기 도하는 바인 조선 독립을 위한 실력 신장에 기여한 바 뚜렷하다.

이에 따라 범죄 혐의 사실로 보면 최현배와 이희승은 간사나 간사장을 지냈고, 맞춤법통일안 제정, 표준어 사정, 외래어표기법 제정, 언문 강습회 강사 참여, 한글날 기념회 관여, 《한글》 발행, 조선어사전 편찬, 조선기념도서 출판 관여 등 둘에게 모두 같은 사실이 적용되었다. 말하자면 둘의 일생은 주시경 사상의 영향 아래 거의 같은 궤도를 달려 온 것이었다.

최종적으로는 예심 판결에서 이극로(징역 6년), 최현배(징역 4년), 이희승(징역 3년 6월), 정인승·정태진·이중화(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게 형을 인도했다. 이들은 광복을 맞아 풀려났다.

4. 그 후의 방향은 어디로 갔나

일제 강점기하에서는 주시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한글파’든 박승빈의 주장처럼 한글 전용상의 차이를 보인 ‘정음파(正音派)’든 말과 겨레의 성쇠(盛衰) 관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정음파’의 대표 격인 박승빈(朴勝彬)도

한 민족(民族)의 언어(言語)는 그 민족(民族)의 성쇠(盛衰)(문화 병세력(文化 並勢力))에 당(當)하여 지중(至重)한 관계(關係)를 가진 것이라 고(故)로 자기(自己)의 민족(民族)의 언어(言語)에 당(當)하여 문전(文典)이며 철자법(綴字法)을 운위(云謂)함에는 가장 경건(敬虔)한 태도(態度)로써 함이 가(可)함

(박승빈, 《보정조선어학강의요지(補訂朝鮮語學講義要旨)》, 1931)

와 같이 민족의 성쇠가 언어와 지중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상의 사고는 한국만, 또는 주시경만이 보여 준 생각은 아니다. ‘나라, 민족 및 말’의 긴밀한 관계의 역설은 유럽에서는 이미 19세기에 유행했던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광복과 더불어 잃어버렸던 우리말을 찾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최현배는 문교부의 핵심 정책 담당 부서에 있으면서 한글전용과 가로쓰기, 나아가 풀어쓰기와 기계화까지 밀어붙이려 했고, 광복 후 국립대학 교수가 된 이희승은 과격한 정책에 반대했는데, 특히 이른바 ‘국어 순화’ 과정에서 일본식 표현의 제거에는 뜻을 같이했으나 최현배 계통의 ‘날뜰’식 다듬기에는 극구 반대했다. 이희승은 순수 우리말의 맛을 찾으려 ‘딸깍발이’식의 수필을 썼던 것이다. 경성제국대학 출

신들 국어학자들은 이희승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제2인자가 된 김두봉의 지도를 받아 한글 전용의 실천은 물론이요, 특히 1960년대의 주체사상에 따라 ‘국어 순화’ 즉 ‘말 다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남북한 단어상의 인위적 차이가 방언의 차이를 넘어서고 있다. 언어 구조가 같은 상태에서 이를 ‘이질화’라 부르는 일은 지나친 표현이다. 남북한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광복 이전의 어문 생활과 비교해 보면 한글 전용 내지 한글 애용 그리고 가로쓰기가 남북에서 굳어지게 된 것은 주시경과 그 제자들의 덕이라 할 수 있다.¹³⁾ 현재 이 글도 국립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청탁한 원고 형식에 따라 거의 한글만 쓰되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만 한자를 보였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제 ‘문맹퇴치(文盲退治)’란 말은 없어지고 오히려 한자 문맹(漢字文盲)이 심각한 정도다. 독자 여러분 자신은 현재 어떠한가.

그러나 광복 후 ‘국어학’이 과학화되기를 주장하면서 광신적 국수주의에 빠짐을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승녕은 이렇게 주장했다.

국어와 한민족, 또는 국어와 한국 문화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흔히 국어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언어이며 우리 문화의 소산인 듯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규정하는 경향을 본다. 물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지만 국어라 하면 해방 후 소중히 여기는 나머지, 비과학적인 쇼비니즘(Chauvinisme, 광신적 애국주

13) 이준식(2008), 최현배와 김두봉. 언어의 분단을 막은 두 한글학자, 《역사비평》 082. 여기서 ‘한글학자’란 아마도 주시경의 제자로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들 즉 ‘한글파’를 부르는 은유일 것이다. 현재까지도 이른바 ‘정음파’와는 구별된다. ‘국어학자’에게는 ‘한글학자’라 부르지는 않는다.

의)적 태도가 엿보여 정당한 이론을 펼 수 없는 면도 있는 터이다.
…… 우리는 과학적 정신(L'esprit scientifique)을 끝까지 견지하여
야 하며 학문에 있어서는 극도로 냉정하여야 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국어는 절대로 신화가 전하는 예와 같은 천손 민족의 언어도 아니며
자연 발생적으로 지상에서 솟아난 언어도 아니다. ……

(이승녕, 민족(民族) 및 문화(文化)와 언어사회(言語社會), 《국어
학개설(國語學概說)》(상), 집문사, 1955)

이상에서 보면 말(言語)은 주시경이 보았던 겨레(民族)와 밀접한 관
계를 가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의 (본)성이라는 생각은 후학들에
게도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언어의 자연발생적 형성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복 후에는 식민 통치에서 불거진 지나친 애
국심으로부터 파생된 ‘광란적 애국주의’에서 벗어나 과학적 정신의 학
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 이것은 ‘국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는 구별되는 순수한 ‘국어학’의 강조인 것이다.

‘말’ 즉 언어와 ‘나라’ 즉 국가와 ‘겨레’나 ‘민족’의 삼각관계는 서로 떼
려야 뗄 수 없는 지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주시
경이 생각했던 국성(國性) 즉 나라의 본성이라고 믿었던 생각은 일종
의 이데올로기이어서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말’
즉 ‘언어’를 바라보는 그 시대의 사관에 따라 어느 정도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언어정책상의 차이도 생기게 마
련인데, 고유어로 말을 다듬는 언어 순화의 정도가 그러하고 용어 사용
의 정도가 그러하며, 한글 전용의 범위 문제 역시 그러하다. 이것이 현
재의 우리다.

[특집] 한글의 과학성을 문화로 바꾼 분들

원고로 남은 최초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

최경봉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몇 장의 원고로만 남은 비운의 사전 《말모이》. 그러나 《말모이》 편찬 사업은 갑오개혁 이후 진행된 초기 어문 정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일이었다. 문법, 철자법, 표준어의 정리는 근대 어문 정리 사업의 목표였고 사전의 출판은 이러한 어문 정리 사업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말모이》 편찬 사업의 의미 또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 강제 병합된 후 시작한 《말모이》 편찬은 일제 강점의 질곡에 갇혀 실패로 돌아갔고, 이를 만회하려는 민족적 열망은 일제 강점기에 민족 어문 운동을 즐기치게 추진하게 한 동력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말모이 편찬 사업은 일제 강점기 민족 어문 운동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1. 《말모이》 편찬, 누가, 왜, 어떻게 시작하였나?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의 설립은 《말모이》 편찬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일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최남선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민족 계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족의 앞날을 도모해

야 한다는 일념으로 조선광문회를 설립하였다. 조선광문회가 추진한 민족 계몽 운동은 그 설립 취지에 따른 것이었는데, 조선광문회 설립자들이 내세운 것은 수사(修史), 이언(理言), 입학(立學)이었다. 그들은 수사(修史)의 취지 아래 우리 고전을 수집하여 이를 간행·보급하고자 했고, 이언(理言)의 취지 아래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여 우리말 사전과 문법서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말모이》는 이언의 취지 아래 벌인 우리말 사전 편찬 사업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조선광문회의 사전 편찬 사업은 주시경과 김두봉이 주도했다. 그런데 주시경과 김두봉이 처음부터 《말모이》 편찬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한자 사전인 《신자전(新字典)》(1915)을 편찬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였고, 곧이어 권덕규, 이규영이 합류하면서 우리말 사전인 《말모이》를 편찬하게 되었다. 우리말 사전이 전무했던 당시로서는 한자 사전의 우리말 훈석(訓釋)과 우리말 사전의 뜻풀이 작업이 연동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조선광문회에서는 《신자전》과 《말모이》 편찬 사업을 같이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을 보면 조선광문회의 설립이 《말모이》 편찬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말 사전의 편찬은 근대 개혁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대적 요구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말모이》 편찬을 주도했던 주시경은 1897년 9월 25일 자 《독립신문》에 발표한 글에서 우리말 사전(이 글에서는 ‘옥편’)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 바 있다.

불가불 국문으로 옥편을 만들어야 할지라. 옥편을 만들자면 각색 말의 글자들을 다 모으고 글자들마다 음을 분명하게 표하여야 할 터인데 그 높고 낮은 음의 글자에 표를 각기 하자면 음이 높은 글자는 점

하나를 치고 음이 낮은 글자에는 점을 치지 말고 점이 없는 것으로 표를 삼아 옥편을 꾸밀 것 같으면 누구든지 글을 짓거나 책을 보다가 무슨 말의 음이 분명치 못한 곳이 있는 때에는 옥편만 펴고 보면 환하게 알지라.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었음에도 우리말 사전 편찬 사업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사전을 편찬할 만한 토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토대로서 절실했던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철자법과 표준어였다. 당시에는 어떤 말을 표준으로 하고 이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주시경이 ‘국문동식회’를 결성하면서 철자법 연구에 나선 것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개화 지식인들은 활동 분야와 상관없이 어문 정리에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어문 정리를 위한 연구에 직접 뛰어들기도 하였다. 근대적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문의 정리와 통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식인들의 관심과 참여는 어문 정리를 위한 국가 연구 기관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성의학교 교장 지석영이 제안한 국문쓰기안인 ‘신정국문(新訂國文)’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1907년 7월 학부(지금의 교육부에 해당)에 국문연구소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국문연구소의 연구는 1909년 12월 새로운 철자법을 이루는 것으로 귀결되었으나 국내외적 혼란에 휩쓸려 최종 연구안인 ‘의정안(議定案)’의 철자법 안을 공식화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국문연구소의 연구 위원들이 한결같이 사전의 필요성을 강조할 만큼 국문연구소의 연구가 궁극적으로는 사전의 편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분명했다. 사회 여론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대한매일신보》(1908.3.1.)의 논

설¹⁾은 국문 자체의 연구에 매달려 사전 편찬이라는 목표를 망각한 듯한 국문연구소의 행보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전 편찬에 대한 민간의 요구가 사전의 체제와 내용을 제안할 만큼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근래 듣기로 학부에서 국문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문을 연구한다고 하니 어떤 특이한 사상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거니와 나의 우둔한 생각으로는 그 연원과 내역을 연구하는 데 세월만 허비하는 것이 필요치 아니하니, 다만 그 풍속의 언어와 그 시대의 말소리를 널리 수집해 온전한 경성(서울)의 토속어로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 등 부류를 구별하여 국어 자전 일부를 편성하여 전국 인민으로 하여금 통일된 국어와 국문을 쓰게 하라.

당시의 시대적 요구를 감안할 때, 국문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주시경이 이후 우리말 사전 편찬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일 병합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주시경은 국문연구소 활동의 연장 선상에서 사전 편찬을 기획하였고, 조선광문회에 참여하여 사전 편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1) 국문 연구에 대한 관건.

2. 《말모이》가 원고로만 남은 이유는?

《말모이》 편찬 사업은 1911년 시작되었고 1914년 무렵 원고 집필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주목할 점은 《말모이》의 편찬 시기가 조선총독부 《조선어사전》(1920)의 편찬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을 강점한 후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지배 정책의 일환으로 옛 관습과 제도를 조사하는 구관·제도조사사업(舊慣制度調査事業)을 벌였는데, 이와 관련한 사업 중 하나가 《조선어사전》 편찬이었다. 그런데 《조선어사전》 편찬 사업은 조선어를 단순히 수집·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조선어 교육을 위한 표준 사전을 만드는 일이기도 했다.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철자법(1912년 공포한 보통학교 교과서 편찬용 조선어철자법) 논의는 《조선어사전》 편찬과 더불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피지배 민족의 지식인이 모여 만드는 《말모이》의 편찬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말모이》 편찬을 주도한 주시경은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철자법이 아닌 국문연구소에서 논의되었던 자신의 형태주의 철자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피지배 민족어인 조선어의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선어를 조선어로 뜻풀이한 사전의 수요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어사전》 편찬을 시작할 당시, 《조선어사전》의 체제는 조선어 표제어에 대해 조선어 풀이와 일본어 풀이를 함께 하는 것이었다. 사전의 체제를 이렇게 결정했던 것은 식민지적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조선어사전》은 조선인의 일본어 교육과 일본인의 조선어 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조선인을 위한 조선어 교육’이라는 목표는 배제되었거나 부차적인 것이었다. 결국 최종 편

집 단계에서 조선어 풀이는 삭제되었고 일본어 풀이만 남게 되었다. 일본어가 국어인 현실에서 《조선어사전》은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언어를 배우는 데 쓰는 도구일 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보면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말모이》의 출판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말모이》 편찬자들은 사전 편찬을 멈추지 않았다. 1914년, 《말모이》 편찬을 주도하던 주시경이 세상을 떠난 극단의 상황에서도 김두봉, 이규영, 권덕규 등은 《말모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수정했다. 김두봉이 지은 《조선말본》(1916) 뒷면에 실린 신문관(조선광문회가 운영하던 출판사)의 조선어 사전 광고는 그 당시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음을 말해 준다.

조선의 지금 말(時語) 5만의 표준을 정하고 의의(意義)를 설명한 것이니 조선이 말을 가진 이후에 처음 있는 대저(大著)라. 우리의 정신적 혈액이 이로부터 일단의 생기를 얻을지니라.

그러나 결국 ‘사전’²⁾은 출판되지 못했다. 주시경을 이어 사전 편찬을 주도하던 김두봉은 1919년 상해로 망명하고, 그를 돕던 이규영마저 1920년 세상을 떠났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 편찬 사업이 지속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말모이》 편찬자들이 흩어진 1920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어 표제어와 일본어 뜻풀이로 구성된 《조선어사전》을 출간하였고, 《말모이》와 《사전》은 원고 뭉치로 떠돌게 되었다.

《말모이》 원고가 다시 조명받게 된 것은 1920년대 일본의 통치 방

2) 광고를 보면 조선어 사전의 이름이 ‘사전’으로 되어 있다.

식 전환으로 조선어문화가 되살아나면서부터다. 1920년대 간헐적으로 시도되던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은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어사전편찬회의 결성 시점은 민족 어문 운동의 전성기였다. 조선어사전편찬회의 주축인 조선어학회는 사전 편찬의 기초 작업으로 ‘한글마춤법통일안’(1933)과 ‘표준어사정안’(1936)의 완성을 위해 매진하였으며, 문맹 퇴치를 위한 한글 보급 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였다.

3. 《말모이》의 체제와 내용은?

《말모이》 편찬자들은 서구 사전의 체제와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말 사전의 체제를 어떻게 세우고 내용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였다. 남아 있는 《말모이》의 원고는 240자 원고지로 231장,³⁾ 표제어는 1,400여 개에 불과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근거로 《말모이》의 체제와 내용을 가늠하는 일은 《말모이》의 국어사전사적 위상과 《말모이》가 현재의 우리말 문화에 끼친 영향을 확인하는 일일 것이다.

사전학에서는 표제어, 발음,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 어휘 정보를 포함하는 사전의 형식적 구조를 통해 사전의 체제와 내용상 특징을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 방식에 따라 《말모이》의 구조를 살펴보면 말모이의 체제와 내용상 특징을 정리하면서 《말모이》가 현대 국어 사전에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범례인 ‘알기’(2쪽), 본문 ‘-갈죽’(153쪽), 색인 ‘찾기’(50쪽), 한자어 자획 색인인 ‘자획찾기’(26쪽)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표제어의 선정과 배열 방식을 보자. <말모이>의 범례에 해당하는 ‘알기’에는 낱말의 배열을 ‘가나……하’의 자리대로 한다는 설명이 있는데, 이는 자모순으로 낱말을 배열했음을 뜻한다. 이때 자모순 배열이라는 점은 현대 국어사전과 동일하지만, ‘ㄱ’과 ‘ㄲ’을 별도로 구분하는 현재의 방식과 달리 ‘ㄱ’과 ‘ㄲ’을 뒤섞어 배열하고 있다. 모음자를 어울려 쓴 ‘과, 개, 귀, 꺾’를 ‘고’나 ‘구’의 순서에 배열하지 않고 뒤에 따로 제시하는 것도 현대 사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가분, 가뿐, 가분성, 가분수, 까불, 까불어지, 까뽀질, 가분……
 가호, 가후, 가훈, 가화 …
 강국, 강굴, 강귀, 깡그리, 강괴, 강권 …

또한 현대 사전처럼 어깨번호를 따로 붙이지 않지만, 형태가 같고 뜻이 다른 동형이의어(동음이의어)를 별도의 자리를 두어 배열하고 있다. 단, 일부는 별도의 자리를 두어 배열해야 할 것을 하나의 표제어 아래 묶어 기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단어의 의미적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현재와 달랐음을 보여 준다.

감치(밖) 옷의 가를 피어매는 바느질.(언) 무엇을 먹은 뒤 맛이 당기는 것.(-르맛).

표제어 선정과 관련해서는 ‘알기’에 특별한 선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전문어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수록하고 있다는 점과 표준적인 단어와 더불어 다양한 이형어(異形語)들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기’에 나와 있는 전문어 분류는 19분야로 ‘대종교, 불교, 예수교, 철학, 심리학, 윤리학, 논리학, 교육학, 경제학, 법학, 수학, 천문학, 지질학, 생리학,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물리학, 화학’ 등이다. 사전의 규모에 비해 전문어를 다양하게 수록하고 그 뜻풀이를 자세하게 한 것에서, 《말모이》가 당시 언어의 사용 양상을 보이는 사전(辭典)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식 전반을 보여 주는 사전(事典)으로서 역할을 겸하기 위해 편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말모이》 편찬자들이 생각하는 표준적인 단어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표준어처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알기’에 “뜻 같은 말의 몸이 여럿이 될 때에는 그 소리대로 딴 자리를 두되 그 가운데 가장 흔히 쓰이고 소리 좋은 말 밑에 풀이를 적음”이라 하여 여러 이형어 중 표준적인 단어의 선정 원칙을 밝히고 있다. ‘가을’에는 뜻풀이가 없이 같은 뜻의 말인 ‘갈’에 뜻풀이를 하거나, ‘가야금’에 뜻풀이가 없이 같은 뜻의 말인 ‘가야고’에 뜻풀이를 하는 식이다. 《말모이》 편찬자들은 ‘갈’과 ‘가야고’를 듣기 좋은 말 곧 표준어로 판단했던 것이다.

표제어의 선정 및 배열과 같은 거시적 구조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이 표제어의 표기, 발음,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 어휘 정보 등과 같은 미시적 구조이다. 이 부분의 기술 내용을 통해 당대의 서사 관습상 특징이나 편찬자의 독특한 문법관을 엿볼 수 있다.

가장 독특한 것은 표제어의 수록 형태이다. 용언 표제어의 경우 어미 ‘-다’를 붙인 형태가 아니라 그 어간만을 보이고 있다. 표제어로 ‘가다’와 ‘가르치다’가 아닌 ‘가’와 ‘가르치’를 보이는 것인데, 이는 어미를 독립 단어로 보는 주시경의 문법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한자음을 수용하면서 국어의 음운법칙을 적용하지 않거나(가명지학 家庭之學, 가데 家弟), 고유어 표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아래아(·)’를 사용해

한자어 표제어(간택 揀擇, 갈식 褐色)를 기록하고 있다.

표제어에 덧붙는 표시도 독특하다. 첫째, 말소리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기 위해 해당 음절 위에 ‘·’ (높음), ‘..’ (낮음)을 얹었다. ‘옷을 갈아입다’의 ‘갈’에는 ‘·’, ‘눈을 갈다’의 ‘갈’에는 ‘..’를 얹어 높고 낮음을 표시하고, ‘칼을 갈다’의 ‘갈’에는 높지도 낮지도 않다는 뜻으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음의 길고 짧음이 아닌 음의 높낮이가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국어사적 사실에 비춰 보면 타당성이 떨어진다. 둘째, 표제어가 복합어인 경우, ‘가-잠-나룻’, ‘가재-거름’, ‘갈바-대’ 등처럼 구성 성분 사이에 ‘-’를 넣어 구분하고 있다. 이는 형태 분석이 정교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인데, 《말모이》 원고가 보완 중인 관계로 이러한 구분이 일관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 셋째, 원어의 특성에 따라 표제어의 표시를 달리하였는데, 한자어와 외래어 표제어 앞에 ‘+’와 ‘×’를 붙여, +강산[江山], ×가스[gas]처럼 표시하였다.

《말모이》에서는 22개의 문법 범주로 품사, 어미, 접사 등을 분류하여 보여 주었다.⁴⁾ 독특하면서 복잡한 이 문법 범주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엄밀한 분류를 통해 표제어의 문법적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면 《말모이》 편찬자들은 왜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낯선 말을 만들어 사용했을까? 이는 관습보다는 엄밀성과 체계성을 중시하는 태도 때문이다. 주시경은 《국어문법》(1910)에서 문법 용어를 새로 만드는 이유를 “당시 일본

4) ‘계, 녀, 억, 언, 드, 안, 밖, 엇, 입, 읍, 업, 심, 맺, 둥, 갈, 손, 김, 잇, 둘, 때, 높, 솔’ 등이 그것이다. 이 용어와 분류체계는 그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을 주시경의 것과 차이가 있지만, 주시경의 《말의 소리》(1914)에 제시된 문법 범주의 체계에서 변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변용의 이유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병문(2013)을 참조하라.

과 중국에서 한자로 문법 용어를 만들어 썼지만, 이 용어를 우리말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아예 우리말로 새로 만들어 엄밀하게 정의하여 사용했다.”와 같이 밝힌 바 있는데, 《말모이》에서 사용한 문법 용어의 독특함도 과학적 엄밀함을 중시했던 주시경의 문법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뜻풀이의 내용이나 방식에서도 당시 사전 편찬의 관점이나 서사 관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상어보다 전문어의 풀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풀이 글에서는 국한 혼용을 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가독상속인 [家督相續人] (제) [法]家督을 繼承하는 人 이니 被相續人의 家族된 直系卑屬에 對하여 相續人 되는 것은 寸數가 다른 사이에는 가깝은 者를 하고 寸數가 같은 사이에는 男을 하고 寸數가 같은 男 또는 女 사이에는 嫡子로 하고 ... (하략) ...

강스 [講師] (제) 學術을 講義하는 스승.

사전의 뜻풀이에서는 표제어의 사용 맥락에 따른 다의적 의미를 기록할 필요가 있는데, 《말모이》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뜻풀이를 하고 있다.

깜백 (역) ㉠ 눈을 뜨었다가 감았다가 하는 것. ㉡ 불이 죽으라고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것.

또한 뜻풀이와 함께 용례를 보임으로써 표제어에 대한 이해를 높인 점도 눈에 띈다. 더구나 그 용례가 단어, 구, 문장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데에서 《말모이》 편찬자들이 체계적인 기술을 하기 위해 고민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갈 (밭) 박굴(옷을 —아 입).

갈 (제) 넓이.(— 넓은 큰 갈).

깜깜 (억) ㉠ 빛이 없는 것(그믐밤이 —) ㉡ 아주 모르는 것(글이 —)

가락 (넛) 갈죽하게 만들어 놓은 작은 문의 썸 이름(술 —. 옛 —).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음운 변동과 관련한 발음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점, 용언의 활용 정보나 문형 정보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표제어의 품사에 따라 뜻풀이를 달리하지 않은 점, 관련어 정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서 초기 사전으로서 《말모이》의 미숙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첫 시도였음에도 현대 사전의 체제와 내용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며 우리말 사전 기술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말모이》와 같은 시기에 편찬한 조선총독부 《조선어사전》이 애초에 조선어 주석을 갖추고 있었고 규모 면에서 방대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선어사전》이 우리말 사전의 편찬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어사전》 원고본에 나타난 조선어 풀이를 자연스러운 조선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말모이》 원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뜻풀이의 정밀함이 《조선어사전》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평가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말모이》

가(심) 어느 입을 다만임이 되게 하는 홀소리 밑에 쓰는 토(배— ㅌ).

《조선어사전》

가 『助』 終聲을 不附한 名詞를 主格으로 하여 表할 時에 用하는 語. (例) “새가 난다” “비가 온다”

《말모이》

가락지 (제) 손가락에 끼는 노르개.

《조선어사전》

가락지 『名』 婦女手指에 貫抽하는 雙環의 稱.(金銀珠玉類로 彫飾한 者).(指環)

《말모이》

가르치 (밖) 모르는 것을 알게 하여 줌. 또 「가라치」

가르치 (밖) ㉠ 손으로 어느 쪽을 안하아 이끌이는 일. ㉡ 무엇을 들어 말함 (누구를 —어 말이나?).

《조선어사전》

가르치다(가르쳐/가르친) 『活』 (一) 敎訓의 稱. (二) 指示의 稱.

《조선어사전》의 뜻풀이가 일본어로 되어 있고, 그 원고에 남은 조선어 뜻풀이가 자연스러운 조선어 표현이 아닌 이두식 표현이라면, 《조선어사전》의 편찬이 우리말 사전사에 끼친 영향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말모이》의 경우 이두식 표현이 가끔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전문용어에 대한 뜻풀이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지, 고유어의 뜻풀이나 일상용어의 뜻풀이에서는 이두식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조선어사전》(원고)과 《말모이》의 조선어 뜻풀이를 비교해 보면 《말모이》가 우리말로 우리말을 풀이하는 원형을 보여 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4. 어문 운동 역사에서 《말모이》의 의의는?

비록 출간되지 못한 원고본이지만 《말모이》는 우리말을 우리말로 풀이한 사전으로는 최초로 편찬된 것이기에 그 역사적 의의는 자못 크다. 또한 《말모이》가 근대 사전의 체제에 맞춰 편찬되었고 그 기술 내용 또한 정교하고 체계적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말모이》의 의의를 체계를 갖춘 최초의 우리말 사전으로 국한할 수는 없다.

《말모이》의 편찬자였던 김두봉, 권덕규 등은 1929년 결성된 조선어사전편찬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조선어사전편찬회 역시 스스로 《말모이》 편찬의 유산을 이어받았음을 천명하였다. 조선어사전편찬회에서 편찬한 사전이 1957년 최초의 대사전이자 현대 국어사전의 젖줄인 《큰사전》으로 출간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말모이》 편찬의 경험은 현대 국어사전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지만 《말모이》 편찬을 시작한 때에 조선총독부 역시 《조선어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말모이》의 의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교육용 조선어사

전으로 기획하여 편찬을 주관하였음에도 주시경이 별도의 조선어사전을 기획했다는 점, 1912년 조선총독부가 ‘보통학교용 조선어철자법’이란 이름으로 공포한 철자법을 따르지 않고 국문연구소에서 논의했던 주시경의 형태주의 철자법을 채택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결국 《말모이》에서 채택한 형태주의 철자법은 ‘한글마춤법통일안’(1933)으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고, 독자적 기준에 의해 대표 표제어를 선정한 《말모이》의 편찬 정신은 조선어학회가 ‘표준어사정안’(1936)을 제정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는 당시 민족어 운동 세력이 조선총독부 주도의 조선어 정책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아닌 민족어 운동 세력이 조선 어문 정리를 주도해야 함을 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

《말모이》 편찬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인 김두봉의 다음 언급을 통해 조선총독부 어문 정리 사업에 대한 당시 민족어 운동 세력의 생각을 가늠할 수 있다.

《김두봉조선말본》(1922)의 붙임 ‘표준말’의 일부

우리는 아직 말모이(사전)도 하나 되지 못하(한불사전이나 한영사전이나 조선어사전 따위는 표준 잡을 만한 말모이로 볼 수 없음)여 표준말 한 마디도 잡히지 못한 이때에 어느 곳에서 채찍 맞고 뛰는 셈으로 서양말을 한문으로 옮겨 온 그것을 생판 서투르게 우리 사람에게는 냄새도 맞지 않게 그대로 음만 따서 표준말을 정하는 것이야 어찌될 일리오.⁵⁾

5) 밑줄은 필자의 것. 인용은 현대어로 고쳐 썼다.

김두봉은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편찬된 《조선어사전》을 표준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혹평하면서 이를 《한불자전》이나 《한영자전》과 같은 차원으로 보았다. 주시경을 비롯한 《말모이》 편찬자들의 생각 또한 이와 같았을 것이다. 《말모이》와 《조선어사전》 원고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상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말모이》

가늘 (얇) ㉠ 가름한 것의 몸피가 작음. ㉡ 일이 작음. ㉢ 사람의 것이 작음.

《조선어사전》

가느다(가느러/가는) 『活』 纖細한 稱.

가늘다(가늘어/가는) 『活』 ‘가느다’와 同.

《말모이》

가야금(伽倻琴) (제) 「가야고」에 보임.

《조선어사전》

伽倻琴(가야금) 『名』 樂器의 一種(伽倻國 嘉賓王이 樂師 于勒을 命하여 始造한 十二絃琴).

《말모이》

개미 (제) 땅 속에나 썩은 나무 속에 집짓고 모아 살는 버레니 …….
또 「개아미」

가얌이 (제) 「개미」에 보임.

《조선어사전》

가야미 『名』 「動」 膜翅類에 屬한 昆蟲이니…….

개미 『名』 「動」 ‘가야미’의 略稱.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에서는 《말모이》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느다’를 대표 표제어로 수록했으며, 《말모이》에서 표준형으로 보는 ‘가야고’와 ‘개미’ 대신 ‘가야곰’과 ‘가야미’를 대표 표제어로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두 사전에서 제시하는 단어의 표준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두봉이 《조선어사전》을 표준으로 삼을 만한 사전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사실 또한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두봉은 《조선어사전》이 당시 언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비판한 적은 없었다. 사실 언어 현실이 법칙에 어긋나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김두봉에게 어떤 것이 언어 현실에 가까운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민족이 주도하여 합리적인 표준어를 정하고 이에 따라 표준이 될 만한 사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을 것이다. 우리말이기에 우리말의 법칙과 속사정을 잘 아는 우리가 우리말 정리를 주도하자는 것, 이것은 《말모이》를 편찬할 당시 편찬자들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참고문헌

- 김병문(2013), 주시경의 '씨난'과 《말모이》의 관계, 《한국사전학》 21호, 7~39쪽.
- 이병근(1977), 最初の國語辭典 《말모이》(稿本) 《알기》를 중심으로 《언어》 2-1, 67~84쪽.
- 김민수(1980), 《新國語學史》, 일조각.
- 김민수(1983), 말모이 편찬에 관하여, 《동양학》 13, 21~54쪽.
- 최경봉(2005),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 허재영(2009), 국어사전 편찬 연구사, 《한국사전학》 13호, 286~312쪽.
-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홍중선 외(2009), 《국어사전학개론》, 제이앤씨.

[특집] 한글의 과학성을 문화로 바꾼 분들

최현배의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

서상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언어정보연구원 에이치케이(HK)사업단 단장

1. 국어 정보화의 첫걸음

오늘날 국어의 정보화라든가 국어 정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전문적이거나 학술 분야에서만 쓰이는 낱말이 아니게 되었으며,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보았을 테고 그 뜻을 얼추는 알고 있는, 거의 일상적인 낱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면 우리말의 정보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갈래가 될 것이다.

국어 자료를 다루거나 연구를 하는 데 컴퓨터나 전산화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체로 1980년대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서상규(2002)에서도 지적하듯이, 1980년대 말부터 ‘국어정보학회’, ‘한국정보학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 처리 대회’ 등 한글 관련 전산 기술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¹⁾

* 이 글은 서상규(2008)를 바탕으로 하여,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덧붙이며 일반 독자를 위하여 고쳐 쓴 것이다.

1) 이러한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 더 소상히 알고 싶을 때는 서상규(2002)가 좋은 참고가 된다.

실증적 자료인 ‘말뭉치’(대량으로 전산화된 문어나 구어 자료를 뜻하는 코퍼스(corpus)를 번역한 우리말)를 국어 연구에 실제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말뭉치의 개념과 말뭉치언어학 방법론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정착시키는 데에 큰 몫을 해낸 학술지《사전편찬학 연구》(연세대학교 한국어사전편찬실, 지금은 언어정보연구원)와 거기에 실린 논문들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²⁾

국어학과 언어학, 전산학, 정보과학이 융합되어 ‘국어정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싹튼 것을 시초로 삼는다면 1997년 연세대학교의 대학원에 국어정보학 협동 과정의 석박사 과정이 설치된 것이 그 첫걸음이다. 대학에서 국어정보학과 같은 이름의 강의가 개설되고, 또 국어정보학 분야의 교원을 뽑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00년대 초에 이르러서이다. 국가적인 큰 규모의 정보화 사업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1990년대 중반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한 STEP2000이나 1998년부터 10년에 걸쳐 이루어진 21세기 세종 계획 국어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소개하려는 것은, 우리말 정보화의 처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이전에 외솔 최현배가 1930년대에 이미 시작하였으며, 그로부터 최현배가 이룩한 여러 결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며 ‘살아 있는’ 것이라는

2) 그중 “뭉치 언어학적으로 본 사전 편찬의 실제 문제”(1988), “뭉치언어학: 사전 편찬의 필수적 개념”(1990), “말뭉치: 그 개념과 구현”(1995), “뭉치 언어학의 기본 전제”(1995) 등을 통해 ‘말뭉치’라는 말이 처음 쓰였다.

점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우리는 우리말의 빈도 조사라는, 국어 정보화의 가장 뚜렷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말 빈도 조사의 현황

이제까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빈도 조사를 모두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최현배(1930), 한글의 낱낱의 글자의 쓰히는 빈수, 《조선어문연구》(연희전문학교 문과 연구집) 제1집, 연희전문학교출판부.

최현배·이승화(1955),³⁾ 《우리말에 쓰인 글자의 찾기 조사-문자 빈도 조사》, 문교부.

최현배·이승화(1956),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어휘 사용 빈도 조사》, 문교부.

문영호 외(1993), 《조선어 빈도수 사전》,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김홍규·강범모(1997), 《한글 사용빈도의 분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서상규(1998),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김홍규·강범모(2000),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강범모·김홍규(2004),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3) 이제까지는 보통 이 두 책의 저자 이름으로 ‘문교부’라고 써 왔지만, 실제로는 조사 책임자 격인 최현배와 실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해서 완수한 이승화 두 사람의 공동 저작으로 표시하는 것이 옳다.

김한샘(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국립국어원.
서상규(2014),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 빈도 사전》, 한국문화사.

1990년대 이후 컴퓨터와 대량의 말뭉치를 활용함으로써 국어의 계량적 분석은 조사 자료의 양적인 확충은 물론이요 이제 낱말이나 형태소의 빈도에 머물지 않고, 서상규(2014)의 의미별 빈도의 조사에까지 이르고 있다.⁴⁾

3. 외솔의 우리말 찾기 조사

우리말 찾기 조사에 관한 외솔의 글은 “한글 낱말의 쓰히는 변수(사용(使用)되는 도수(度數))⁵⁾으로써의 차례잡기(차서배정(次序排定))” (1930)가 유일하지만, 《외솔 최현배 박사 고회 기념 논문집》(1968:14)에 실린 목록을 보면,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1956)와 《우리말에 쓰힌 글자(한글, 한자)의 찾기 조사》(1955)라는 두 권이 외솔의 “지도 또는 공동 편찬의 업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모두 세 편으로 볼 수 있다.⁶⁾

다음은 《우리말에 쓰힌 글자(한글, 한자)의 찾기 조사》(1955)에 나타나는 ‘최현배’에 관한 기록을 모두 모은 것이다.⁷⁾

4) 우리말을 대상으로 한 계량 연구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김한샘(2012)이 좋은 참고가 된다.

5) 최현배는 “변수(使用되는 度數), 찾기, 빈도”를 같은 뜻으로 쓰고 있으며,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6) 《외솔 최현배 박사 고회 기념 논문집》(1968:14)에서는 연도가 뒤인 1956년 책이 먼저 언급되어 있다.

속표지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꽃이 피기까지에는 많은 노고가 숨어 있음을 모르는 이가 많다.

못술(외술)

7쪽 이 비율의 결정은, 출발 당시에, 편수국장(최 현배)과 비서관(박 창해)과 편수과장(조 병욱), 국어 편수관(국민학교 최 태호)(중고등학교 홍 응선), 말수 조사 주간(이 승화)의 합석한 자리에서 의논하여 결정지은 것이다.

14쪽 들은말 적는 법. (중략) 참여한 회원은 다음과 같다. (중략) 최현배 (중략)

22쪽 본 조사에서 취한 기준이, 최현배 교수 지은 “김고 고친 우리 말본”이란 책의 (중략)

51쪽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갖추어서 편수국장께 보고하였고 (중략)

56쪽 제2차 검토를 외부 학자(이론) 교육자(실천)에게 부탁하였었는데, 맡아 보아 주신 분은 다음과 같다. (중략) 최현배 (★) (중략)

57쪽 제3차 검토에서 종결지우려다, 한자말 관계를 중심으로 말수(어휘)의 단위성 문제에 여러 가지로 통일을 지을 수가 없어서, 서울로 환도하여, 다시, 다분한 편수국장(최현배)의 지도 아래서 (중략)

57쪽 이때는 예산 관계로 사무실을 한글학회 옛 사전편찬실로 옮겼는데, 뒤이어 국장이 사임하고, (중략)

57쪽 한자말의 색출과 한자 사용의 잣기(빈도) 조사를 새로 하게 되어서, (중략) 다시 외부 학자들의 수고를 빌었다. (중략)

7) 인용할 때는 띄어쓰거나 글자의 틀림도 원문 그대로 따오기로 한다.

최현배(★) (중략)

227쪽 편의상 "최현배" 교수 지은 "우리말본" 체계에 좇아서 (중략)

232쪽 본 사무의 조직은, (중략) 편수국장의 직할(直轄) 아래서,
(중략) 편수국장 1. 최현배 2. 신 태현 (중략)

233쪽 (중략) 과정을 넘어설 적마다의 검사와 수정에 골머리를 앓고, 편수국장 님의 결재서의 너무도 엄격하신 검열에, 혼이 나고 도망치듯 그만 두는 사람도 많았었다.

235쪽 (마) 외부 교육자 및 학자의 협조 (중략) ㄱ. 말수조사 소리 차례표의 제3 차 검토를 해 주신 분네(환도하기 전 부산에서) (중략) 최현배 ☆ (중략)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수고를 하신 이는 최현배 선생님과 김 계원 선생이다.

235쪽 ㄴ. 말수조사 소리차례표의 제6차 검토를 해 주신 분 *최현배 ☆ (중략) ※이 가운데서 *는 수고를 특히 많이 하신 분이다.

237쪽 잡비 소모를 적게 하려고, 최 선생님의 주선으로 다시 이산한 곳은; 한글학회의 단 하나 남은 부동산인 "옛 사전 편찬실"이었다.

239쪽 학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예산을 몇 번이곤 어기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과 차관님을 비롯하여, 국장님(최현배 선생님, 신 태현 선생님)과 과장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주선해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한다.

이와 같이 외솔은 우리말 찾기 조사의 각 기준과 방법론, 실제 자료의 검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물론, 추진 조직과 재정적 지원까지 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는 최현배 · 이승화(1955, 1956)의 기획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외솔이

어떠한 역할(지도 또는 공동 편찬)을 감당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언어 조사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대상, 조사의 방법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조사의 목적이 정해지면 그에 맞추어 조사 대상이 될 언어 단위가 설정되며, 그 결과의 내용과 형태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조사 방법론에는 조사 자료의 구성과 선정, 나아가서는 실제 언어의 분석 기준과 각종 원칙의 수립과 적용에 걸친 전반의 문제가 포함된다. 이제 이러한 요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최현배(1930)와 최현배·이승화(1955), 최현배·이승화(1956)를 분석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1. “한글의 낱말의 글자의 쓰히는 번수” 조사(1930)

최현배(1930)는 10쪽의 짧은 논문인데, 그 첫 문장에서 이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⁸⁾

- (a) 일은 발서 해 놓앗건마는, 이제 세상(世上)에 공포(公布)하기를 뜻하고 그이름을 붙이랴니 별로 간단명료(簡單明瞭)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되었다.(최현배 1930:100)

이 논문집은 1930년 12월에 발간되었지만 논문의 꼬트머리에 ‘1930,3,3(一九三〇,三,三)’이라는 낱짜가 기록되어 있고, 이 조사 대상에 1929년 11월 8일 자 신문이 사용되었으므로 그 4개월 사이에 조사된 것으로 짐작된다.

8) 읽는 이들의 불편함을 덜고자, 원문에 한자로 표기된 부분에는 한글을 앞에 내세우고 원래의 한자는 괄호 속에 넣었다.

3.1.1. 조사의 목적

최현배(1930)의 조사 목적은 아래와 같다.⁹⁾

- (b) 우리의 한글(훈민정음(訓民正音), 언문(諺文))의 이십팔자(二十八字) 가운데 이미 폐용(廢用)된 ㆍ △ ○ ㅎ 사자(四字)를 제(除)한 이십사자(二十四字)가 일상어문(日常語文)에 쓰힐 적에 어느것이 가장자조 쓰히며, 어느것이 가장드물게 쓰히며, 또 그 중간(中間)에 오는 글자의 순서(順序)는 어떠한가? 이 낱낱의 글자의 쓰히는 변수를 조사하여 그것으로써 각자(各字)의 차례잡기(차서배정(次序排定))을 해보라는 것이 이 글월의 내용(內容)의 목적(目的)이다.(최현배 1930:100)
- (c) 위선 낱낱의 글자의 일상어문(日常語文)에 쓰히는 잦은번수(頻度)를 조사하여 그 차례잡기(차서배정(次序排定))을 하여 본 것이 나의 이 글월의 내용(內容)이다.(최현배 1930:101)

또 다른 목적으로, 이 변수 조사의 통계를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한글 가로쓰기'를 위한 새 글자 모양 변경의 순서 잡기에 바로 쓸모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 (d) 이러한 통계(統計)는 어대에 쓰히는 것인가? 이것은 내가 여기에 구체적(具體的)으로 대답(對答)하지 아니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딸아 그 목적(目的)을 딸아 쓰는대로 쓰힐것이기

9) 인용된 글 속의 밑줄은 필자가 친.

때문이다. 다만 내가 여기에 한가지말해 두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조선어연구자(朝鮮語研究者)들의 당면(當面)의 한 문제(問題)가 되어있는 한글의가로쓰기(橫書)를 실현(實現)하고자 그 자체(字體;글자모양)를 다소(多少) 변경(變更)하지 아니하지 못할 형편(形便)인데, (중략) 그 우열(優劣)의 정도(程度)는 따로 과학적(科學的) 실험방법(實驗方法)에 의(依)하여 결정(決定)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된품의 우열(優劣)의 정도(程度)로써 잡은 각자(各字)의 차례가 여기서 쓰힘의 변수의 다소(多少)로 써 잡은 차례하고 서로 꼭 일치(一致)할것같으면 이상적(理想的)이라 할만할 것이다.(최현배 1930:109)

3.1.2. 조사의 단위

‘한글 각 글자의 변수에 따라 차례를 정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사 단위는 당연히 (c)에서 본 바와 같이, ‘날날의 글자’이다. 그런데 우리말 맞춤법이 통일되기 전이었던 당시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조사 단위인 글자의 목록을 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자료에 나타난 표기 실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일일이 바른 표기로 고치면서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e) 그러나 현금(現金)의 실제(實際)의 글자는 꼭 학리적(學理的)으로 보아 근본적(根本的)인 기초문자(基礎文字)만을 쓰지 아니하고, 그 밖에 실제적(實際的) 편의(便宜)를 따, 이것 저것을 서로 합(合)하여서 쓴다. 그러므로 이제 글자의 쓰히는 변수를 조사(調查)함에는 이 실제(實際)의 용법(用法)을 따르는 것이 편리(便利)하다.(최현배 1930:101)

이와 같이 최현배(1930)에서는 우리말의 ‘실제의 용법’을 잘 드러내면서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표기를 하고 있는 신문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3.1.3. 조사 대상 자료

오늘날에는 빈도 조사에 컴퓨터와 대규모의 언어 자료(말뭉치)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때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선택해서 조사 대상을 구성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최현배(1930)의 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앞에 인용한 (c)에 잘 드러난다. 여기서는 ‘일상어문(日常語文)’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상어문’을 어떻게 찾아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f) 다압에 일어나는 문제(問題)는 이렇게 세운 마흔자의 쓰히는 번수를 조사(調査)함에는 어떠한 말과 글을 쓸 것인가이다. (중략) 그래서 나는 현금(現今) 우리말로써 내는 신문(新聞) — 동아일보(東亞日報), 조선일보(朝鮮日報), 중외일보(中外日報)에서 각각(各各) 가장 적당(適當)하다고 생각되는 일면(一面)을 택취(挾取)하였다. (최현배 1930:102)

여기에는 조사 자료 선택의 두 가지 조건을 밝히고 있다. “우리말로써 내는 신문”,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그것이다.

3.1.4. 자료의 표본 추출과 최초의 신문 말뭉치의 구성

우리말 번수 조사에서는 “우리말로써 내는” 3종 신문으로 ‘일상어문’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신문을 활용한 최현배의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언어 조사에 널리 쓰이는 균형 말뭉치 구성 방법에 매우 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 근거는 신문의 선택 방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외솔은 3종의 신문에서 자료 표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달(2월, 3월, 11월)과 날짜를 각각 서로 다르게 정하였을 뿐 아니라, 신문의 면을 선택할 때에도 기사의 내용은 물론 표기 방식까지 꼼꼼히 고려하였음이 틀림없다. 기사의 내용에서도 역시 대체로 사회 일반의 사건을 다룬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일상적인 언어 사용의 실태가 드러나도록 한 것이 분명하다(서상규 2008:13~19).

변수 조사 대상으로 신문이 선택된 또 하나의 이유로는 신문이 당시의 자료 가운데서 표기의 원칙을 일정하게 적용한 자료라는 점, 기사마다 그 주제와 내용이 서로 독립적이며 따라서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 등이었으며,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 점이 당연히 고려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변수 조사'에서 사용한 신문 자료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한글 중심 표기의 신문 3개 면, 79개의 독립된 내용의 표본(기사)으로 구성된 훌륭한 '신문 말뭉치'였던 것이다.

신문 표본의 선택과 변수 계산 방법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학적 고려가 이루어져 있다. 최현배(1930)에서는 한글이 쓰인 변수를 계산할 때에는 3개 신문의 각 면을 1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여 따로 센 수와 합친 수를 표에 함께 보여 줌으로써, 면 전체뿐 아니라 기사 구역에 따른 한글 사용의 실태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했다. 3개 신문(면)을 각각 1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글자 수를 각각 세었으므로, 결국 실제 변수의 조사는 신문당 10번, 모두 합해 30번 이루어진 셈이고, 이 30개의 변수 조사 결과표를 비교해 본다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 글자 사용의 실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여기에 보인 한글 글자의 사용 빈수에 따른 차례와 상대적인 분포의 차이는 바로 1930년대 우리 글자 생활의 단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사진’인 셈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남아 있기에 비로소 우리는 그 이후의 빈도 조사 결과들과 비교함으로써 당시 국어의 특성은 물론이요 시대를 달리하면서도 이어지고 있는 국어의 보편적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3.1.6. 자료와 계산에서 결함과 정확성의 문제

최현배(1930:102~103)에서는 자료 자체가 가진 문제점으로, ‘마침법’ 즉 철자법의 혼란에 따른 문제점과 계산의 정확성에 관한 문제점을 스스로 밝혔다.

(h) 그러나 이 재료(材料)는 그 스스로가 다소(多少) 불완전(不完全)한 흠함(欠陷)이 없지 아니하다. 그는 곧 마침법(철자법(綴字法))이 바르게 정리(整理)되지 못한 때문이다. (중략)

다함에 재료자체(材料自体)의 흠함(欠陷)밖에 또 조사(調査)하는 계산(計算)이 절대정확(絶对正確)을 보증(保証)하기 어렵은 흠함(欠陷)이 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이러한 시험(試驗)을 해본 경험(經驗)이 있는 분은 다 아시는바와 같이, 아모리 조심해서 센다 하더라도 그 절대정확(絶对正確)은 썩 기대(期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 애답은 미봉적(弥縫的) 위안처(慰安处)가 없지 아니하다. 그는 모든것이 골고로 다 다소간(多少間)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이 있다 하면 이는 그 평균비율(平均比率)을 상(傷)히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다만 이 통계표(統計表)가 조심으로써 한 것은 물론(勿論)이요, 한가지를 두세번씩 센 것이 여간 많잖음을 붙여말하여 둔다.(최현배 1930:102~103)

빈도 조사 과정에서는 분석의 단위나 기준, 사용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갖가지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서상규 1998b:234~238을 참조 바람). 그러므로 빈도 조사의 결과물에는 단지 통계 수치만을 보일 것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부터 단위 설정, 기준, 작업 과정, 적용 과정의 문제점 해결 등 상세한 기록을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최현배(1930)의 변수 조사는 그 방법론적인 면만 보아도, 이제까지 최현배·이승화(1955)를 우리말 찾기 조사의 시초로 보아 온 우리말 연구 역사를 고쳐 써야 할 만큼의 수준 높은 내용을 보여 준다. 국어의 계량적 연구의 기점을 1955년이 아니라 1930년으로, 그보다 25년이나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맞춤법 통일 이전인 1920년대 말의 한글 표기와 자모 실태를 기록한 실증적 자료로서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신문 기사 선택과 통계 제시 방식, 조사 단위의 설정과 방법론에 관한 요건을 다 갖추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바람직한 빈도 조사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것이었다.

3.2. 《우리말 글자 사용의 찾기 조사》(1955)/《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1956)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외솔의 “지도 또는 공동 편찬의 업적”으로 기록된 《우리말에 쓰힌 글자(한글, 한자)의 찾기조사》(1955)와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1956)로 실현된 조사의 필요성은, 최현배(1930)에 이미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i) 우리 조선말가운데 어떠한 낱말(단어(單語))이 가장 자조 쓰히는 지? 가장 자조 쓰히는 변수로 보아서, 오백단어(五百單語), 일천단어(一千單語), 이천단어(二千單語), 삼천내지사천단어(三

千乃至四千單語)의 각(各) 범위(範圍)에 소속(所屬)할 낱말이 과연(果然) 어떠한것인지, 이러한 통계적(統計的) 조사(調查)에는 많은 노력(努力)과 오랜 세월(歲月)을 요(要)한다. 이것은 아직 두고, 위선 낱말의 글자의 일상어문(日常語文)에 쓰히는 잦은번수(빈도(頻度))를 조사하여 그 차례잡기(차서배정(次序排定))을 하여 본 것이 나의 이 글월의 내용(內容)이다.(최현배 1930:101)

최현배가 낱말의 빈도수를 조사하려는 뜻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낱말의 목록(이를테면 교육용 기본 어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1930년의 번수 조사에서는 나중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 일이 20년 이상 지난 뒤에야 비로소 실현된 것이 바로 《우리말에 쓰인 글자의 잦기 조사(文字 頻度 調査)》였다.¹⁰⁾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 A. 우리말 말수(어휘) 사용의 잦기(빈도) 조사 (3가지)
- B. 우리말에 쓰인 글자의 잦기 조사
 - I. 한글 사용의 잦기 조사 (104가지)
 - II. 한자 사용의 잦기 조사 (3가지)
- C. 우리말 풀이씨(용언)의 도움줄기(보조어간)와 씨끝(어미)의 잦기(빈도) 조사 (18가지)

10) 최현배·이승화(1955)의 책머리 ‘이 책을 내면서’에서 “이 조사는 4264(1951)년 3월에 계획하고, 동년 4월 13일부터 조사하기 비롯하여, 4288(1955)년 6월 초에 마쳤는데”라고 하여, 조사에 약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최현배·이승화(1955)에는 B와 C, 최현배·이승화(1956)에 A가 수록되어 있어, 책의 구성 순서와 간행된 순서가 거꾸로 되었는데, 그 까닭을 최현배·이승화(1955)의 속표지에서 “다만, 예산 관계로 우선 B만을 박아 내기로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3.2.1. 조사의 목적

[표 1] 최현배·이승화(1955, 1956)의 조사 목적

	A. 말수(어휘) 사용	B. 글자 빈도		C. 도움줄기와 씨끝 빈도
		I. 한글 사용	II. 한자 사용	
목적	우리말 말수(어휘)가 사용되는 짓기(빈도)의 실태를 조사하여, 과학적인 국어의 기본 형태를 파악하고, 우리말의 합리적인 사용을 꾀하며, 국어의 정상적인 발달 및 정화 운동을 목표하는 교과서 편집이나 계몽 활동에 활용하고, 나아가서는 국어학 연구의 참고 자료로 제공(7쪽)	우리말에 쓰이는 글자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알아내어, 글자와 관계있는 각종 문화 활동에, 참고로 삼거나 활용(63쪽)	우리 말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 말에서 한자말을 뽑아내어 가지고, 한자에 대한 온갖 문제의 검토 및 해결에 제공(167쪽)	도움줄기와 씨끝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밝히어 국어의 창조적 아름다움과 발전적 사용을 위하여, 문법연구, 수사법연구, 등의 연구 검토의 참고 자료로 제공(227쪽)

3.2.2. 조사의 단위와 조사 방법

[표 2] 최현배·이승화(1955, 1956)의 조사 단위와 방법

	A. 말수(어휘) 사용	B. 글자 빈도		C. 도움줄기와 씨끝 빈도
		I. 한글 사용	II. 한자 사용	
단위 설정	말수(어휘) 문교부(1955:20~33)에서 상술함	낱내(음절), 낱자(단자)	한자말 또는 한자말 이 끼어들어 서 된 우리말 말수(어휘)	줄기 이외의 것 도움줄기(보조어 간), 씨끝(어미)
조사 방법	모든 글월 ¹¹⁾ 을 낱말의 단위에 좇아 분석하여 조사(1955:7)			
조사 기준	가) 목차와 삽화 속의 글월 포함 나) 보통 사용하는 말만 조사, 홀로이름씨(고유명사) 제외 다) 현대말을 주종으로 하여, 대중말(표준말)로 조사 라) 준말(약어)과 안준말은 따로(것/거, 무엇/무어/뭐……) 마) 씨가지는 예외로만 따로 세움(들, 꿈, 금, 네) 등	a) 낱내(음절) 따른 조사 b) 낱자(단자) 따른 조사	A) 한글학회 맞춤법에 따름 B) 글자는 찾기 별/부수별로 배열 C) 뜻이나 음이 같은 경우	최현배의 <<우리말본>> 체계에 따름. A) 줄기(어간)에 잇달은 그대로의 조사 B) 도움줄기(보조어 간)만의 조사 C) 씨끝(어미)만의 조사

11) 이에 대해서는 “산 말인 입말(口調)을 녹음한 것, 곧, 실사회의 대중이 많이 모인 시장, 극장, 오락처, 술자리, 각종 대합실 등에서 몰래 녹음한 것을 가지고, 조사함이 이상적인 국어의 실태 조사이라고 하겠으나, 시설과 비용 등 온갖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1955:7) ‘글월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최현배·이승화(1956) 이후 2010년 대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말뭉치가 구축되고 국어 자료 처리 기술도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있는 입말의 제대로 된 빈도 조사의 성과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21세기 세종 계획 구어 주석 말뭉치를 바탕으로 동음이의어 구분까지 끝난 말뭉치를 몇 년 간에 걸쳐 완성했으며, 머지않아 첫 구어 빈도 조사의 성과를 이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2.3. 조사 대상 자료

[표 3] 최현배·이승화(1955, 1956)의 조사 대상 자료

	A. 말수(어휘) 사용	B. 글자 빈도		C. 도움줄기와 씨갈 빈도
		I. 한글 사용	II. 한자 사용	
표본 추출 방식	(1) 조사목적물의 부문 별 비율(%) ¹²⁾ 초중등 교과서(50%) <국어, 가사, 사회생 활 30%, 과학, 실업류 20%> 일반 간행물(50%) <문학, 예술류 30%, 신문, 잡지, 방송원고, 국회 의사록 20%>	A(말수 사용의 찾 기 조사)의 5%분 량에 해당, 그 각 분 야에 좇아서의 그 비율은, 말수 조사 에서의 비율과 같 이 함	A(말수 사용의 찾 기 조사)의 전체	A(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의 5% 분량에 해당, 그 각 분야에 좇아서의 그 비율 은, 말수 조사에서 의 비율과 같이 함
규모	56,485날말 /총찾기 2,218,727	A조사의 5.18% (11종) /총찾기 114,225	글자 총수 3,312자 /총찾기 1,016,731	

12) 부문별 비율 결정에 대해 “이 비율의 결정은, 조사 출발 당시에, 편수국장(최현배)과 비서관(박창해)과 편수과장(조병욱), 국어 편수관(국민학교 최태호)(중고등학교 홍웅선), 말수 조사 주간(이승화)의 합석한 자리에서 의논하여 결정지은 것”(1955:7)으로 기록하고 있다.

3.2.4. 조사 결과와 해석

[표 4] 최현배-이승화(1955, 1956)의 조사 결과

	A. 말수(어휘) 사용	B. 글자 빈도		C. 도움줄기와 씨끝 빈도
		I. 한글 사용	II. 한자 사용	
결과	찾기(빈도) 차례 결과표, 소리(頭音) 차례 결과표	낱내(음절)따른 조사 결과표, 낱자(단자)따른 조사 결과표	찾기(빈도) 차례 결과표, 부수 차례 결과표	소리 차례, 찾기 차례
효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어 사용의 과학적 근거/국어의 합리적인 사용/교과서 편찬에 사용 2) 용어의 제정/계몽적인 문화 활동 3) 우리말의 실태 짐작 4) 우리말 연구 및 정화 운동 5) 순수 우리말과 한자말, 들은말의 비율 파악 6) 사전의 말수 보충 및 취사선택 7) 국어 생활 실태 조사의 참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 학년 교과서 편찬시의 제시 낱내 음절의 합계나 순서 결정 2) 우리말의 언어미학으로의 검토 3) 언어심리학 면에서의 참고 자료 4) 한글 적는 법의 연구 자료 5) 한글 자모, 자형의 재고찰 및 개량의 자료 6) 인쇄 공장의 활자 수량 준비와 나열 순서 결정, 개량 7) 타자기의 글자판 배치 8) 맞춤법의 연구 자료 9) 한글 가로 풀어쓰기 연구 및 운동 10) 언어 및 글자 조사 방법 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상생활에서의 한자 폐지 또는 제한 사용에 관한 문제 검토 2) 한자의 자형, 자체 연구 3) 한자 타자기, 인쇄 공장 설비 전반 검토에 참고 4) 국어 정화 운동, 언어 심리학적 연구, 언어 미학적 연구, 운필상의 물리적 연구, 서도상의 미학적 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말 사용의 연구 자료 및 참고 자료 2) 우리말의 구성적 연구 곧 문법 연구의 참고 자료 3) 수사법 연구 4) 국어의 제반 문제 해결

3.2.5. 자료와 계산에서 결함과 정확성의 문제

최현배·이승화(1955:164~165)에서도, 앞서 소개한 최현배(1930) 때와 마찬가지로의 어려움을 겪었음을, 이미 출판된 책에 종이를 덧대서 표를 고친 부분이 여러 곳인 것이라든가 “부산 고등학교 상급 학생 연 196명의 협조로 카아드의 작성 및 대조를 마치고서, 부산 제일 상업 고등학교 3학년 전원의 협조로, 잣기(빈도)의 합계와 검산을 한 것을 다시 정리원들의 재검산으로 마치었다”(최현배·이승화 1955:53), “그런데, 두 곳에서 나온 총계의 숫자가 서로 맞지 않아서, 무척 오랫동안 많은 이가 고생을 다시 하였었다”(최현배·이승화 1955:58), “말수 조사의 최종 통계인 잣기별 및 첫소리별의 계급적 집계표의 숫자의 이가 맞지 않아, 고생을 하다가 최후로 서울 상고의 주판 교사의 손으로 단락을 지웠다”(최현배·이승화 1955:232)는 등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현배·이승화(1955, 1956)는 언어 조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단위의 설정 방법과 구체적인 적용, 조사 대상 자료의 구성과 선택, 다양한 목적에 따른 언어 정보의 추출 방식, 결과 표시의 모형 제시 등에 이르는, 조사 방법론상의 갖가지 요소에 대해 매우 상세히 기술함으로써,¹³⁾ 이후에 이루어질 계량적 연구의 기대 수준을 크게 높였다. 또 조사의 과정에 필요한 현실적인 여러 절차와 비용, 시간, 일손의 구체적인 내역, 갖가지 문제점 등을 소상히 기록으로 남겨 후속 연구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13) 이에 대해 이승화(1955:238)는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불 만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이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의 조사 방법이 장차에 판이들이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빈도 조사의 요건으로서 목적과 대상의 설정, 조사 대상의 자료 선정과 활용의 방법과 절차, 표본의 선택과 계량, 조사 결과와 해석 등 여러 측면에서 최현배의 업적을 살펴보았다.

이제까지 국어 계량 분석, 나아가 국어정보학적 연구의 시초로 삼아 온 최현배·이승화(1955, 1956)는 오늘날의 시점과 기준으로 본다 해도, 매우 훌륭한 국어 정보화의 성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외솔 최현배의 이러한 국어 정보화에 대한 앞선 깨달음과 노력은 이미 최현배(1930)에서 싹트었으며, 그 성과 역시 국어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계량적 연구임이 이미 서상규(2008)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다. 다시 말해 최현배·이승화(1995, 1956)는 최현배(1930)에서 세워진 계량적 연구의 방법론을 대규모의 연구로써 실현한 성과였다. 방법론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데 실로 20년 넘게 걸렸던 것이다. 이는 우리말에 대한 정보화, 국어 정보학적 연구의 시초가 1930년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외솔 최현배의 탄생 12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잘 못 알아온 국어 정보화의 시초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국어학사의 기술을 고쳐 써야 할 때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최현배·이승화(1955)의 속표지에는 외솔의 짧은 글이 적혀 있다.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꽃이 피기까지는 많은 노고가 숨어 있음을 모르는 이가 많다. 못술(외솔)”

참고문헌

- 강범모·김홍규(2004),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고영근(1995),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 집문당.
- 김석득(1983), 《우리말 연구사》, 정음문화사.
- 김석득(2000), 《외솔 최현배 학문과 사상》, 연세대출판부.
- 김한샘(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국립국어원.
- 김한샘(2012), 한국어 어휘 계량 연구의 성과, 《한민족문화연구》 제41집, 한민족문화학회, 39~74.
- 김홍규·강범모(1997), 《한글 사용 빈도의 분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김홍규·강범모(2000),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문영호 외(1993), 《조선어 빈도수 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서상규(1998a),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서상규(1998b), 말뭉치 분석에 기반을 둔 낱말 빈도의 조사와 그 응용, 《한글》 242, 한글 학회, 225~270.
- 서상규(2001), 말뭉치를 이용한 국어 문법 연구의 현황과 방향, 《21세기 국어 정보화와 국어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연구소 편, 월인.
- 서상규(2002), 국어정보학 연구의 현황과 방향, 《국어학 연구 50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해안, 431~463.
- 서상규(2006), 의미 빈도 사전과 어휘 연구, 《조선학보》 198호, 조선학회.
- 서상규(2008), 한글의 변수 조사와 외솔 최현배, 《한글》, 한글학회, 35~71.
- 서상규(2014),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 빈도 사전》, 한국문화사.
- 서상규·한영균(1999), 《국어정보학 입문》, 태학사.
- 외솔 최현배 박사 고회 기념 논문집 간행회(1968), 《외솔 최현배 박사 고회 기념 논문집》, 정음사.
- 이승화(1955), <우리말 말수 조사의> 본 조사의 경과, 《우리말에 쓰인 글자의 찾기 조사》, 문교부.

-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최현배 선생 환갑 기념 논문집 간행회(1954), 《최현배 선생 환갑 기념 논문집》, 사상계사.
- 최현배(1930), 한글의 낱말의 글자의 쓰이는 변수, 《조선어문연구》(연희전문 학교 문과 연구집) 1집, 연희전문학교출판부, 100~109.
- 최현배·이승화(1955), 《우리말에 쓰인 글자의 잦기 조사-文字 頻度 調査-》, 문교부.
- 최현배·이승화(1956), 《우리말 말수 사용의 잦기 조사: 어휘 사용 빈도 조사》, 문교부.

주시경 선생의 말글 사랑과 그 사랑 이어가기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1. 주시경 선생 서거 100돌을 맞이하면서

2014년 7월 25일 낮, 우리 일행은 동작동 국립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자리 잡은 주시경 선생 묘소 앞에 섰다. 한강이 뒤로 보이는 양지 바른 곳이다. 장마철인데 마침 이 날은 햇살이 가득하다. 우리는 주시경 선생 묘소에 꽃을 바치고 큰절을 두 번 올렸다. 그리고 나서 이은상 선생이 짓고 김충현 선생이 쓴 묘비명을 함께 읽었다.

“한평생 오직 한 길 우리 말글
키우시니 그 공덕 어디다 비기
리까. 해달같이 빛나옵니다. 겨
우 서른 여덟 해 짧은 한 뉘 사시
는 것을 자가 몸은 돌보지 않고
겨레 위해 바치신 이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그리워집니다.”¹⁾



1) 묘비명은 원문대로 띄어쓰기하였다.

이렇듯 나라 살리기 위해 우리말과 글을 가꾸고 지키는 데에 온 힘을 바치신 주시경 선생은 1876년에 태어나 1914년 7월 27일에 돌아가셨으니, 올해가 바로 돌아가신 지 100돌이 되는 해이다.

주시경 선생은 국어 연구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우리나라 대표 언어학자이다. 그는 나라의 힘과 겨레 정신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말과 글을 바로잡기 위해 말소리와 문법을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 성과는 《국어문법》(1910)에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의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은 국어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시경 선생의 국어에 대한 연구와 우리말 사랑의 실천 정신은 최현배 선생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이 계승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주시경 선생의 국어 연구는 민족정신과 문화를 잇고 가꾸는 데서 시작하였다. 우리말을 민족정신과 문화의 뿌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주시경 선생 학문의 바탕이 되었으며, 선생이 평생 동안 일관되게 지닌 학문 태도였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어 연구를 언어 과학으로 승화시킨 언어학자였으며, 또한 국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말글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깨끗하게 지킨 국어 운동의 실천가였다.

이제 주시경 선생의 우리 말글 사랑의 삶과 학문에 대해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선생으로부터 이어받아야 할 과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말글 문제를 해결하고 언어문화 발전에 기여할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이 글은, 전적으로 글쓴이에게 주시경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일깨워 준 허용 선생의 글 “주시경 선생의 생애와 학문”(1980)과 글쓴이의 “우리 말글을 가꾸고 지키는 한헌샘 주시경 선생”(2008)에 바탕을 두고, 주시경 선생 서거 100돌을 맞이하여, 고치고 덧붙여서 다시 쓴 글이다.

2. 말과 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결심

선생이 태어나신 1876년은 외세의 침략이 잦아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였고, 농사도 흉작이어서 백성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러한 가난 속에서, 음력 11월 7일, 주시경 선생은 황해도 봉산군 쌍산면 무릉골에서 아버지 주학원 님과 어머니 전주 이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주시경 선생은 어릴 적 고향에서 서당에 다닐 때 늘 새로운 것을 찾아 깨달으려 하는 의지가 무척이나 강했다고 한다. 열 살이 넘어 1887년, 주시경 선생은 서울에 사는 큰아버지의 양자로 가게 된다. 서울에 올라와 다시 서당에 다니게 되었는데, 서당 생활은 열일곱 살까지 계속되었다. 이 무렵, 그의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내가 배우려 하는 것은 결국 한문으로 쓰인 뜻, 그 교훈이 아닌가? 말이란 것은 결국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니, 한문도 결국은 하나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 어려운 한문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배워 잘 알고 있는 우리말을 가지고 어떠한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는 당장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만일 우리가 저 교훈을 우리말로 적어 놓기만 한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쉽게 깨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주시경 선생은 서당 공부가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옳지! 우리나라에는 우리말이 있고, 그 말을 적을 수 있는 훈민정음이란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우리나라 선비들은 한문만을 글이라고 하고 훈민정음은 돌보지도 않았으니, 이것은 절대로 옳지 못한 일이다. 한문은 중국말을 적는 것이 아닌가? 우리말이 중국말보다 못할 것이 무엇이며, 훈민정음이 한자보다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의 눈은 희망에 빛나기 시작하였다.

‘아니, 훈민정음이 한자보다 못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다. 그 어렵고 배우기 힘든 한자에 비한다면, 훈민정음은 얼마나 알기 쉽고 아름다운가? 그렇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훈민정음을 내가 빛내어 보리라.’

주시경 선생은 이와 같은 우리말과 훈민정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결심으로 드디어 우리나라 말과 글자 생활의 바른 길을 열기 시작하였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한문 중심의 글자 생활을 벗어나 올바른 길을 비로소 개척하기 시작한 것이다.

3. 말글 사랑을 위해 바친 짧은 생애

한문의 마술에서 깨어난 주시경 선생은 이제 한 사람의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새로운 학문을 공부도 하고 연구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일에 험버트 선생과 함께 참여하였다. 주시경 선생은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이 창간되자 국문판 조필로 발탁되어, 독립신문사 안에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하고 국어문법을 공동 연구하였다. 그러는 사이 스물다섯 살 때에 배재학당 보통과를 졸업하였다. 신학문에 대한 주시경 선생의 갈망은 계속되었다. 여러 학교를 다니며 항해술을 배우기도 하고 측량술을 배우기도 하였으며, 영국인 의사에게 영어와 의학을 배우면서 국어를 가르쳤고, 또한 독학으로 기계학, 종교학까지 공부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의 중심이 국어에 있었음은 물론이었다.

그는 국어 연구에 골몰하는 한편, 학문 연구는 민중 교화를 실천해야 완성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민중 교화를 위해 국어의 정리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철저한 신념이었다. 그래서 그는

서울 안에 국어 강의 시간이나 국어 강습소에 나가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다. 그가 얼마나 교육에 열중하였는지는, 서른 살을 전후하여 그가 교편을 잡은 학교나 강습소가 무려 스무 곳이나 됨을 보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는 서울 시내 각 학교의 국어를 도맡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교재는 등사판에 인쇄하여 보자기에 싸서 옆에 끼고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강의하였다. 당시 학생이었던 김윤경 선생과 최현배 선생은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다(신용하 2014 참조).

“그러나 당시 학교로서 든든한 터가 잡힌 것이 별로 없었으므로 선생에게 주는 보수는 박하였고, 그나마 몇 달씩 건너뛰게 되기 때문에 극히 곤궁한 살림이어서 무명옷을 입고 짚신을 신으면서도 끼니를 곱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창동 그의 사택은 용신하기도 불편한 데다가 햇빛조차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낮에도 등불을 켜야 책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결강은커녕 지참 한 번도 하는 일이 없었다. 사무실로 거치어 올 시간도 없어서 바로 교실로 걸음을 빨리하는 것이 상례였다.”(김윤경)

“건지려던 나라가 이미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백성인 내 겨레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으니, 이미 없어진 큰 집을 미래에 다시 세우는 것이 더 깊고 먼 스승의 포부였으며, 더 간절하고 질긴 스승의 의지였다. 눈물을 머금은 ‘주 보따리’는 예나 다름없이 동대문 연지동에서 서대문 정동으로, 정동에서 박동으로, 박동에서 동관으로 돌아다녔다. 스승은 교단에 서시매, 언제든지 용사가 전장에 다다른 것과 같은 태도로써 참되게, 정성스럽게, 뜨겁게, 두 눈을 부릅뜨고 학생을 응시하면서, 거품을 날리면서 강설을 하셨다. 스승의 교수는 말

가운데 겨레의 혼이 들었고, 또 말 밖에도 나라의 생각이 넘치었다.”

(최현배)

주시경 선생의 학문은 점차 성숙의 경지에 도달하였으나,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한 나라의 운명은 도저히 바로잡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합병되고 말았다. 그는 원통함의 눈물이 채 마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민족 갱생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그렇지만 일본 침략자들의 탄압은 더욱 심해 갔다. 동지들은 하나씩 둘씩 국외로 망명하고 또 옥에 갇히게 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1914년 서른여덟 살 되던 해, 국외 망명을 결심하고 7월 방학에 고향에 가서 부모형제에게 하직하고 서울로 돌아와 준비하던 중, 갑자기 체중에 걸려 며칠 후 7월 27일, 내수동 집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는 품은 포부를 반도 이루지 못하고, 고난과 비분 속에서 고귀한 한 생애를 마쳤다.

짧은 생애를 마치며 주시경 선생은 “그 나라 말과 그 나라 글은 그 나라가 홀로 섬의 특별한 빛이라”는 고귀한 뜻을 우리에게 남겼다. 이에 대해 신용하 선생은 지난 5월 한글학회 학술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신용하 2014 참조).

“주시경 선생이 비록 짧은 기간에 우리 말글 운동에 큰 업적을 낸 사상적 배경에는 ‘민족은 본질적으로 언어 공동체이며, 언어가 흥하면 민족도 흥하고 언어가 소멸되면 민족도 소멸된다’라는 사회학적 사상과, 민족과 국어에 대한 깊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학문

“자기 나라를 보존하며, 자기 나라를 일어나게 하는 길은 나라의 본바탕을 장려함에 있고, 나라의 본바탕을 장려하는 길은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존중하여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이 어떤 나라의 말과 글만 같지 못하더라도,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갈고 닦아, 기어이 만국과 같아지기를 도모해야 할 것이거늘, 우리는 단군 이래로 덕정을 베풀던 그 훌륭한 말과 글자를 연구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시경 선생의 국어학에 대한 주요 저서에는 《국어문전음학(國語文典音學)》(1908), 《국어문법(國語文法)》(1910), 《말의 소리》(1914)가 있다. 그의 국어 연구는 《국어문법》에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의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이론 전개는 우리말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어문법》은 일찍이 그가 서양 학문을 배우기 시작한 1893년부터 저술하기 시작하여 스물두 살 때인 1898년 12월에 초고가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 이후 다듬고 고쳐 1910년 4월에 발간하였다.

《국어문법》에서는 학술 용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썼다. 지금 말로 품사를 ‘기’라 하였는데(나중에 ‘씨’로 고침), “기의 갈래 아홉의 이름은 조선어로 만든 것이니, 한자로 만들면 그 문자의 뜻으로만 풀이하고자 하는 습관이 있어, 그 정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기 갈래를 ‘임, 엇, 움, 젓, 잇, 언, 억, 놀, 꺾’이라 하였는데, 지금말로 옮기자면 ‘명사, 형용사, 동사, 조사, 접속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종결사’이다.

《국어문법》에서 다루는 큰 갈래는 ‘기난갈’과 ‘짬듬갈’이다. 기난 갈의 ‘기’는 낱말, ‘난’은 나눈다, ‘갈’은 연구의 뜻으로 ‘품사분류론’이란 뜻이며, 짬듬갈의 ‘짬’은 짜서 꾸민다, ‘듬’은 말이 구성되는 법의 뜻으로 ‘문장론’이란 뜻이다.

말은 밖으로 나타난 표면구조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결정하는 심층구조가 있다는 것이 변형생성문법 이론인데, 주시경 선생의 문법에서 이러한 이론이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먹는다’란 말은 그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상황이란 것은, 말 밖에 있는 주어와 목적어를 속으로 짐작할 수 있는 말의 환경을 말한다. 그는 이 말의 그림폴이에서 주어와 목적어 자리를 비워 놓고 그 빈자리에 ‘ㅅ’을 표시하고서 그 자리에 숨은 성분 곧 속뜻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속뜻이 숨어 있다는 설명은 심층구조를 표현한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설명이다. 속뜻으로 있는 것이 겉으로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이것은 현대 언어학의 설명 방식 그대로이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주시경 선생은 이러한 문법 이론을 제시하였다.

기술언어학의 핵심 개념 가운데 ‘형태소’가 있다. 일정한 음성 형식과 일정한 의미 형식을 갖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이 개념은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블룸필드가 1926년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똑같은 개념으로 ‘눗씨’라는 개념을 이미 1914년의 《말의 소리》에서 주시경 선생이 제시한 바 있어 주목된다. ‘해바라기’를 ‘해-바라-기’로 형태소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렇듯 주시경 선생은 형태소 분석을 철저히 추진해 나간 최초의 학자이다. 그는 형태소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맞춤법에 반영하고, 원형을 고정시켜 글 읽기에 편리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

하여 모든 자음 글자를 종성에 모두 쓸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주시경 선생의 표기법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실 발음대로 적되 형태음소적으로 분철 표기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원리는 조선어학회(지금의 한글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1933)의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원칙으로 이어졌다(송철의 2010 참조). 이를 근본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을 현재까지 우리가 쓰고 있다.

주시경 선생이 처음 우리말을 연구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표기법을 바로 잡으려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말의 소리를 연구하게 되었고, 이론의 뒷받침이 되는 문법을 연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의 모든 조건들, 이어받을 만한 학문의 토대가 전혀 없었던 점, 나라 형편이 매우 혼란 상태에 있고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갔다는 점, 개인적인 생활이 극도로 가난했다는 점, 그의 학문 활동의 헛수가 그리 길지 못했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주시경 선생의 학문적 성과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주시경 선생의 업적은 그 학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어 교육자로서의 업적, 국어 운동의 선구자로서 업적 또한 크다. 국어 순화 운동도 주시경 선생이 시작하였으며, 한글 전용이라는 글자 생활의 새로운 운동도 선생이 실천하였다. 국어 정책 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은 모두 선생이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시경 선생의 국어학사에 끼친 공헌과, 우리 문화사에, 민족 투쟁사에 남긴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며, 오늘날 우리의 말글 생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오늘날 우리의 말글 생활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 수가 처음 실시한 1997년에 2,000여 명이던 것이 작년에는 20만 명이 넘어선 것을 보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인터넷 관련 국제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어가 인터넷 사용 인구로 보면 세계 10위라 한다. 또한 2007년 9월 제43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에서 한국어가 국제 공개어로 채택되어, 한국어로 국제 특허를 제출하거나 특허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는 이제 국제어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다. 이처럼 나라 밖에서는 우리말이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데, 나라 안에서는 어떠한가?

사회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자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같아야 한다. 발음이 같아야 하고, 단어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발음으로 말한다든지,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결코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단어의 의미를 잘못 알고 쓰는 경우는 흔한 편이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개업식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의 ‘와중’은 소용돌이 속이라는 뜻인데, 이 경우에는 그냥 ‘바쁘신 중에도’가 적절한 표현이다.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친절히 자문해 주었다’에서 ‘자문하다’는 ‘묻다’의 뜻이다. 내용으로 보면 ‘자문한 것에 대해 친절히 응해 주었다’, 또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또한 ‘이 작품에는 삶에 힘든 애환이 스며 있다’의 ‘애환’은 슬픔과 기쁨이라는 뜻인데, 흔히 슬픔의 뜻으로만 쓰고 있어 혼돈스럽다.

잘못 쓰이는 말이 이것뿐이라. ‘편집하다’는 신문, 잡지, 책, 영화, 드

라마 등의 본래의 자료에 덧붙이거나 잘라 내거나 또는 차례를 조정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 방송에서는 잘라 내 없애는 것을 뜻하는 말로만 쓰고 있다. ‘예능’이란 말도 음악, 미술 등의 예술적 재능을 뜻하는 말인데, 요즘 방송에서는 찡고 까부는 오락을 뜻하는 말로 쓰고 있어 본래 뜻의 예능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남의 부인을 높여 두루 부르는 말 ‘영부인’도 대통령 영부인을 뜻하는 말로 한정하여 잘못 쓰인지 벌써 삼십 년이 더 지났다. 그래서 영부인이라 하면 으레 대통령 부인만 가리키게 되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너무 많이, 그리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학교 시험에서 흔히 듣는 말 ‘컨닝’이란 말의 올바른 영어는 cheating이다. 백화점에 명품 구경 가는 것을 ‘아이쇼핑’이라 하는 것도 올바른 영어는 window shopping일 것이다. 요즘 어느 모임에 가도 외치는 한마디, ‘원샷!’도 Bottoms up이 바른 표현이라 하겠다. 편의점 알바, 주유소 알바의 ‘알바’ 역시 독일어 ‘아르바이트’의 본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1980년대 중반, 어느 맥주회사에서 직영하는 생맥줏집 이름에 독일어를 썼다. 뜰이나 정원, 마당을 뜻하는 독일어가 바로 호프(Hof)이다. 생맥주를 마시는 뜰, 정원이라는 의미로 ‘생맥주 전문점 오비 호프(OB Hof)’로 이름 붙였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어느새 알게 모르게 호프(Hof)라 하면 생맥줏집이 되고 말았다. 더 나아가 호프(Hof)는 생맥줏집뿐만 아니라 생맥주 자체를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호프&소주’를 판다고 간판에 써 놓은 집도 많다. 독일어의 정원을 생맥주라 부르는 것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결과이다.

그뿐 아니다. 공공 행정 기관의 언어 사용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업사이클’이란 말도 등장한다. ‘리사이클’이 ‘재활용품’이었는데 그것을

‘업(up)’ 시킨다는 뜻이란다. ‘힘내자! 중소기업UP, 공공구매로’라는 어느 행정 기관의 구호는 우리말 표기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 또 다른 기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미투데이’라는 정책 설명을 대하게 되면 정말 행정 기관의 우리말 사용이 이렇게까지 가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친서민 정책인 ‘농촌 어메니티 체험’, ‘마이크로크레딧’, ‘패스트 트랙(Fast Track)’ 그리고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한 ‘맘프러너창업스쿨’이란 용어도 일반 국민이 선뜻 알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국민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훨씬 더 쉽고 정확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국어를 섞어 쓴 일은 없는지,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말을 섞어 쓴 일은 없는지, 공직자 모두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요즘 온갖 가게 이름, 상품 이름, 심지어는 모임 이름, 사람 이름에까지 서양식 이름이 부쩍 늘어가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영어 정관사 the에 우리말을 덧붙인 혼합 이름이 나타나는가 하면, 연예인 이름을 영문자 한 글자로 지은 경우도 있다. 연예인 이름, 그리고 민간 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의 멀쩡한 이름을 영문자 약자로 앞다투어 고치고 있다. LH, IBK, K-Water처럼 한둘이 아니지만, 외국인도 알아볼 수 없고 우리 국민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표기를 자꾸 늘려 가야만 할 것인가?

또한 대표적인 공공 언어인 방송 언어도 그러하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를 매일매일 받아들인다. 만약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가 쉽고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방송 언어가 생활의 생생한 언어 그대로를 반영한다고 해도 언어 예절이 실종되고 막말과 비속어가 일상화된 품격 없는 말을 방송에서

계속하여 내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청소년에게 이런 언어 환경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한다. 언어는 인격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언어 사용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주로 활용하는 다양한 통신 언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언어생활이란 쉽고 정확하고, 그리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작년에 발족한 ‘언어문화개선범국민연합’이 기획하고 펼치는 다양한 사업은, 우리말 우리글을 지키고 가꾸어 온 주시경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

6. 주시경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구실도 한다. 그래서 한 국가나 민족은 공통된 언어 구조에 이끌려 공통된 정신과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유한 문화를 창조한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태어난 이래로 우리의 생각을 이어 주고 문화를 이끌어 준 것이 바로 우리말이다. 우리가 우리말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높이 받들어 지켜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말에 긍지를 가지고 높이 받들어 나가는 방향은 우리말을 쉽고 정확하고, 그리고 품격 있게 쓰려는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말과 외국어를 섞어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규범적인 발음, 어휘, 문법에 맞게 쓰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의 가치에 너무 무관심하여 우리의 말과 글이 망가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세계화 추세에 따라 일상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국어가 경시되고 외국어가 널리 퍼져가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국민들이 국어의 참된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국어를 지켜 가꾸려는 의지를 가지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시경 선생의 말글 사랑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길이다.

독립기념관에 세워진 주시경 선생의 ‘어록비’에 담긴 글, “한나라말”의 한 부분을 옮기면서 이 글을 맺는다.

말은 사람과 사람의 뜻을 통하는 것이라. 한 말을 쓰는 사람과 사람 끼리는 그 뜻을 통하여 살기를 서로 도와 줌으로 그 사람들이 절로 한 덩이가 되고, 그 덩이가 점점 늘어 큰 덩이를 이루나니, 사람의 제일 큰 덩이는 나라라. 그러하므로 말은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이러하므로 나라마다 그 말을 힘쓰지 아니할 수 없는 바니라.

글은 말을 담는 그릇이니, 이지러짐이 없고 자리를 반듯하게 잡아 굳게 선 뒤에야 그 말을 잘 지키나니라. 글은 또한 말을 담는 기계니, 기계를 먼저 닦은 뒤에야 말이 잘 닦아지나니라. 그 말과 그 글은 그 나라에 요긴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으나, 다스리지 아니하고 묵히면 덧거칠어지어 나라도 점점 내리어 가나니라.

참고문헌

- 권재일(2008), 우리 말글을 가꾸고 지킨 한힌샘 주시경 선생, 김태준·소재영 엮음
《스승》, 31~44, 논형.
- 문화체육관광부(2013),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송철의(2010),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신용하(2014), 주 시경 선생의 애국계몽사상과 한글, 《617돌 세종날 기념 주 시경 선생 100주기 추모 학술대회 논문집》, 7~19, 한글학회.
- 허 응(1986), 주 시경 선생의 생애와 학문, 허응·박지홍 엮음 《주시경 선생의 생애와 학문》, 197~306, 과학사.

[특집 대담]

주시경 선생님의 국어 사랑을 말하다

대담: 이기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진행: 송철의(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때: 2014년 8월 19일(화) 오전 10시

곳: 대한민국학술원 도서실

송철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찾아뵙지 못하고 이런 자리에서 뵈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주시경 선생님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새국어생활》 편집진에서 이런 대담의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주시경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주시경 선생님의 학문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한 계기는 무엇이고, 그 시기는 언제쯤부터인지요?

이기문 저는 일찍부터 주시경 선생님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이나 글을 읽은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글을 자세히 읽은 것은 구한말(舊韓末)의 국문연구소(國文研究所) 자료를 검토하게 된 때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제가 쓴 《개화기의 국문 연구》(1970)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국문연구소의 자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문연구소의 회의록(會議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문연구소는 1907년 9월 16일에 첫 회 회의를 열었고 마지막 회의를 1908년 12월 27일에 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안 제기된 연구 문제들에 대한 각 위원의 연구안(研究案)입니다. 이것은 주시경 선생님이 차곡차곡 모아 둔 것으로, 지금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육당문고(六堂文庫)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문연구소가 1909년 그 사업을 마치면서 작성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국문연구 의정안》과 위원들의 연구안(研究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연구안은 각 위원들이 여러 회의에 제출했던 것을 각자 최종적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이 최종 보고서 문치는 일본 동경대학(東京大學)에 있는 오구라문고(小倉文庫)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갈 때마다 그곳 여러 도서관과 개인 장서에 있는 우리나라 옛 문헌들을 보아 왔습니다. 그중에서 제 가장 큰 관심은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교수가 서울에서 모은 책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1968년 엔가 제가 동경에 잠시 들렀을 때 그의 구장서(舊藏書)가 동경대학 중앙도서관에 있다는 말을 얻어듣고는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 동경대학 언어학과의 핫도리 시로(服部四郎) 교수님을 뵈게 되어 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 도서관장께 전화를 걸어서 제 소원은 달성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 보니 그 책들은 도서관 지하실 캄캄한 구석에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긴 전등줄 끝에 전등알을 꽂고 앞서 가는 도서관 직원의 뒤를 한참 따라가서 책 더미 앞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혼자 그 책들을 뒤적였습니다. 자세히 보자면 며칠이 걸려도 모자랄 것인데, 그럴 수 없어 두어 시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책 더미 속에서 국문연구소의 최종 보고서 문치를 찾아냈을 때에는 흥분을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서류의 마이크로필름까지 얻었을 때에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국문연구소에 관한 책을 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의 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하였는데 그중에서 주시경 선생님의 보고서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학문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성으로 일관했던 선생님의 학문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보고서는 다른 위원들의 보고서보다 분량도 많았지만 100여 장에 달하는 보고서(최종 연구안)의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한 자 한 획도 흘려 쓴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선생님이 남기신 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송철의 네, 그러셨군요. 오구라문고에 묻혀 있던 국문연구소의 최종 보고서를 발굴하시면서 그 속에서 주시경 선생님의 국문 연구안을 보시게 되었고, 그것이 선생님께서 주시경 선생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시경 선생님의 글들을 모으기 시작하셨군요.

선생님께서서는 그렇게 모으신 자료들을 1976년, 그러니까 주시경 선생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에 《주시경전집》(상, 하)으로 간행하였습니다. 이 전집의 간행은 국어학계로 하여금 주시경 선생님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전집을 간행하신 동기와 의도는 무엇이었는지요?

이기문 주시경 선생님의 글들을 찾아 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이 아닌데도 20세기 초엽의 단행본이나 잡지를 구해 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의 글을 하나라도 더 읽어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나 언제부턴가 선생님의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내는 것이 우리 학계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인간과 학문을 가장 잘 전해 주는 것은 그 자신이 쓴 글들일 것이므로 주시경 선생님을 넓고 깊게 이해하는 데 무

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일은 선생님 자신이 쓴 글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976년에 전집을 낼 때에 저로서 가장 마음이 쓰인 것은 책 끝에 ‘해설(解說)’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무척 망설였던 일이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책이 나온 뒤에 읽어 보고 고치고 싶은 데가 적지 않음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김민수 선생이 편찬한 《주시경전서(周時經全書)》를 들지 않을 수 없음을 느낍니다. 전 6권으로, 1992년에 탑출판사(塔出版社)에서 간행되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간행된 것 중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송철의 선생님께서는 혹시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 중 어떤 분이나 주시경 선생님과 가까운 어떤 분에게 수학을 하시거나 그런 분과 교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로부터 주시경 선생님에 대하여 들으신 이야기는 없으신지요?

이기문 저는 평안북도 정주군의 오산중학교(五山中學校)를 다니다가 해방 뒤 월남하여 서울의 중앙중학교(中央中學校) 4학년에 편입하였습니다.¹⁾ 이 학교에 주왕산(周王山) 선생이 계셨는데 주시경 선생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손수 편찬하신 매우 수준이 높은 교재(教材)로 국어를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편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조(時調)를 가르치시면서 시조 한 수씩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썼는지 잊었습니다마는, 다음 시간에 오셔서 제가 쓴 시조를 읽으시며 잘 썼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저는 주 선생을 더욱 따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국문과를 지망했을 때 기뻐하셨던 일이 지

1) 당시 중학교는 6년제였다.

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왕산 선생으로부터 주시경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송철의 주시경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시대 상황과 우리의 어문 현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활동하신 시대는 대략 개화기라고 일컬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시대 상황, 우리 어문의 현실은 대략 어떠했는지요?

이기문 저로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개화기라고 하지만 옛 틀을 벗지 못한 혼란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선각자(先覺者)들이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앞장섰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주로 우리 국어와 국문의 통일, 표준화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서 그것을 정리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우리말과 글의 연구에 앞장선 분이 주시경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송 선생이 좋은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송철의 이 시기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 틀을 벗지 못한 혼란기였습니다만 선각자들 사이에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자주독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양의 신문물을 받아들여 문명개화하여야 하며, 신분제를 폐지하여 만민 평등을 실현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세계 각국과 교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이 필요했고,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을 위해서는 다시 통일된 국어와 국문이 필요했습니다.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은 언어와 문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시기 우

리의 국어와 국문은 통일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특히 표기법의 혼란이 문제였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표기법이 사람마다 다르고 책마다 다른 상황이었습니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글이 아무리 배우기 쉬운 훌륭한 문자라 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에 많은 선각자들이 당시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문을 정비하는 일, 특히 표기법(맞춤법)을 통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시경 선생님은 우리의 문자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표기법을 통일하기 위한 일에 앞장을 서셨던 것입니다. 문자 체계와 표기법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했기에 주시경 선생님은 국어의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송철의 그러면 다음에는 주시경 선생님의 학문에 대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의 학문을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주시경 선생님의 학문, 하면 가장 큰 특징으로 독창성을 들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주시경 학문의 독창성에 대해서 여러 글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한힌샘의 언어 및 문자 이론”(《어학연구》 17-2, 1981), “21세기와 국어학”(《국어국문학》 125, 1999) 등에서 훈민정음 창제와 주시경 선생님의 학문을 국어학의 창조적 전통으로 손꼽으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시경 선생님의 학문의 독창성은 어떤 것이며 그러한 독창성은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기문 주시경 선생님께서 쓰신 글 중에서 제가 맨 먼저 읽은 것은 국문연구소에 제출하신 최종 연구안입니다. 이 글에서 선생님이 힘주어 밝히신 ‘본음(本音)’과 ‘임시의 음(臨時的 音)’에 관한 이론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론 위에서 선생님은 새로운 한글 맞춤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니다. 이것이 그 뒤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1933)에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맞춤법은 계승되었으면서도 ‘본음’, ‘임시의 음’의 이론은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제자들, 후계자들의 어느 글에서도 이 이론을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글에서 이 이론을 읽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이론이 잊히고 말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성음운론(生成音韻論)을 접한 것은 1960년대의 일입니다. 저는 1959년에 고려대학교 조교수에 임명되었고 그 이듬해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그 부속의 하버드-옌칭 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의 초빙학자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촘스키(N. Chomsky), 할레(M. Halle)의 새로운 언어학 이론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초기였고 몇 해 뒤에 이들에 의해서 전개된 기저형(基底形, underlying form)과 음성 표시(音聲表示, phonetic representation)의 이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시경 선생님의 ‘본음’과 ‘임시의 음’ 이론에 접했을 때, 이것이 바로 촘스키, 할레의 이론과 같음을 깨닫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50년이나 앞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이론이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해서 계승·발전되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학문을 좀 더 깊이 알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주시경의 학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한국학보》 5, 1976), “한헌섭의 언어 및 문자 이론”(《어학연구》 17-2, 1981)을 쓴 것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글들을 쓰면서 선생님의 글들을 통독하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의 학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독창적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어렵פות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과학’과 ‘수리학(수학)’의 개념이나 방법을 국어 국문 연구에 적용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주시경 선생님은 배재학당, 이운학교(향해술), 흥화학교(측량술) 등에서 자연과학과 수학에 대한 소양을 길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한 자연과학과 수학의 소양을 국어 국문을 연구하는 데에 심분 활용했던 것입니다. 소리(말소리 포함)는 ‘공기의 파동’이라고 설명한 것이라든지 말소리 중에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홀소리를 ‘원소(元素)’라고 했든지 하는 것들은 자연과학의 개념을 가져온 것이고 ‘ㄱ’과 ‘ㅎ’이 합하면 ‘ㅋ’이 되므로 ‘ㅋ’은 ‘ㄱ’과 ‘ㅎ’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 등은 자연과학의 분석 방법을 방불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또 학술 용어, 즉 술어란 어떤 부호를 정하고 그것을 정의해 쓰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정의(定義)’를 무척 강조한 것은 역시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영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ㆍ’의 음가를 ‘丨’와 ‘ㄷ’의 합음이라고 보고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1증(第一證)’에서부터 ‘제6증’까지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수학에서의 증명 방법을 방불케 합니다. 주시경 선생님의 학문을 분석적이면서 체계적이라고도 하는데, 이 역시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방법을 국어 국문 연구에 적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주시경 선생님의 학문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앞으로도 우리 학계가 선생님의 학문을 밝히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송철의 일반적으로 주시경 선생님이 국어 국문을 연구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가 당면했던 어문 생활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은 혼란된 표기법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국어 국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글의 문자 체계를 새로이 정비하고 혁신적인 새 표기법을 정립하였습니다. 주시경 선생

님의 표기법은 전통적인 표기법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당시의 사람들로부터는 너무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은 결국 현대 한글 맞춤법으로 정착된 셈입니다(세부적으로는 상당한 수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표기법이 현대 한글 맞춤법으로 정착되게 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기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에 대하여 책을 쓴 일도 있는 송 선생이 말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철의 주시경 선생님은 처음에는 문법에 맞는 표기법을 주장하셨습니다. 표기법의 혼란이 문법을 모르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문법에 맞는 표기법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표기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머그로, 부스로 ; 머그면, 씨스면’과 같이 표기해 왔던 것을 ‘먹으로, 붓으로 ; 먹으면, 씻으면’과 같이 표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음운론에서 본음 이론을 정립하면서부터는 ‘문법에 맞는 표기법’을 발전시킨 ‘본음대로의 표기법’을 주장하였습니다. 본음대로의 표기법이란 앞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음’ 이론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을 흔히 ‘본음주의 표기법’이라 일컫기도 하였습니다.

	(1)	(2)	(3)
밥 :	바비, 바브로, 밥과	밥이, 밥으로, 밥과	밥이, 밥으로, 밥과
막 :	막고, 마그면, 마가	막고, 막으면, 막아	막고, 막으면, 막아
놓 :	노코, 노흐면, 노하	노코, 노흐면, 노하	놓고, 놓으면, 놓아
높 :	놉고, 노프면, 노파	놉고, 놉흐면, 놉하	놓고, 높으면, 높아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표기법은 위 표의 (1)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개화기 무렵이 되면 표기법이 상당히 혼란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대체로 (2)와 같은 표기법을 지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시경 선생님은 본음 이론을 바탕으로 (3)과 같은 표기법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주시경 선생님 표기법의 특징은 훈민정음 창제 이래 몇 백 년 동안 지켜 온 '8종성법(八終聲法)'을 버리고 모든 자음을 종성(받침)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1)이나 (2)와 같은 표기법을 채택하면 받침이 8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면 족합니다. 이를 '8종성법'이라 하는데, 이는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 정해진 표기법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시경 선생님은 한글 표기법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랜 전통을 깨고 문법에 맞는 표기법, 나아가서는 본음대로의 표기법, 즉 (3)과 같은 표기법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3)과 같은 표기법을 채택하게 되면 8종성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자음(ㅈ, ㅊ, ㅋ, ㅌ, ㅍ, ㅎ 등)을 받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일반 사람들에게는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이 생소하고 어렵게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주시경 선생님 자신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표기법이 옳다는 것을 벗들에게 누누이 설명해 보았지만 흔쾌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조차 선생님의 표기법을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어문 연구, 어문 운동의 대가였던 지석영 선생님 같은 분도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에 대하여 학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어렵고 생소하여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도 주시경 선생님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표기법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기법 이론을 정립하여 나아갔으며 제자들을 길러 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은 ‘한글마춤법통일안’에 계승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표기법이 너무 어렵다든가, 이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너무 생소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이 ‘한글마춤법통일안’에 계승되어 현대 한글 맞춤법(표기법)으로 정착될 수 있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대략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이 본음 이론이라는 탄탄한 이론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은 표음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표의적 기능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독서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표기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형태소를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선 예들에서 (1)이나 (2)와 같은 표기법보다 (3)과 같은 표기법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시경 선생님의 표기법은 이러한 장점을 가지기에 점차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철의 주시경 선생님은 국어 연구 및 표기법 정립을 위한 학문적 활동뿐만 아니라 국어와 국문을 보급하기 위한 어문 운동도 헌신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의 어문 운동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들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요?

이기문 주시경 선생님은 혼자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데 만족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연구한 것을 널리 알리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은 ‘주보파리’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학교에서 가르칠 때 쓸 교재(教材)를 보자기에 싸들고 동분서주

(東奔西走)하신 선생님의 모습이 이 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의 우리나라 학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선생님은 국어 국문의 올바른 교육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선생님은 강습소를 개설하여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으로 선생님의 학문이 계승되었습니다. 김두봉, 최현배 같은 출중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주시경 선생님은 국어사전 편찬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국어사전 편찬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은 잘 편찬된 국어사전이 있어야 일반 대중이 그것을 참조하여 언어생활과 문자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표기법을 통일하는 데에도 사전이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1910년 한일 합병 직후에 설립된 조선광문회에서 몇몇 제자들과 《말모이》라는 사전을 편찬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사전은 원고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하였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송철의 지금까지 주시경 선생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한 계기, 《주시경전집》을 간행하신 동기와 의도, 주시경 선생님 학문의 독창성, 주시경 선생님의 어문 운동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주시경 선생님의 정신이나 학문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계승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문 주시경 선생님의 생애는 매우 짧았습니다만, 국어 연구와 그 보급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자 생활, 언어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지성으로 일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바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주시경 선생님께 우리가 배우고 이어받아야 할 것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모든 일을 지성으로 일관했던 삶의 태도, 독창적으로 학문하는 정신, 우리말과 글에 대한 한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시경 선생님으로부터 이어받아야 할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철의 주시경 선생님에 대한 여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시경 선생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한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568년 동안의 한글, 568년 그 이상의 한글 — 홍윤표 한글박물관 개관위원장을 만나다



답변자: 홍윤표(한글박물관 개관위원회 위원장)

질문자: 권창섭(아주대학교 강사)

때: 2014. 9. 5.

곳: 충남 천안시의 홍윤표 위원장 자택

2014년 10월 9일, 568돌을 맞는 한글은 올해 더욱 기쁜 생일을 맞을 듯하다. 이 날은 서울시 용산구에 건립된 한글박물관이 개관되어 처음으로 손님들을 맞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한글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의 문화 중 그 으뜸으로 한글을 꼽아 왔지만, 이러한 한글 관련 문화재와 유물들을 전문으로 관리하고 또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이 없었다는 것은 참 아쉬웠던 일이다. 이제 우리는 곧 그 갈증을 씻게 된다.

다섯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한글이란 것은 이 땅에 산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으며, 또 앞으로 이 한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또 이 한글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박물관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한글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한글박물관 개관위원회 홍윤표 위원장을 만나 한글과 한글박물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권창섭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덕이 참 편안해 보이고 좋습니다. 농장도 있다면서요?

홍윤표 그냥 채소들이랑 야생화랑, 나무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근 일 년 동안은 바빠서 손도 못 대고 있었네요. 권 선생이 천안 도착하기 전까지도 농장에 있다가 왔습니다.

권창섭 서울에 언제 언제 올라오십니까?

홍윤표 특별히 고정된 일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있거나 꼭 올라가야 할 일이 있으면 올라갑니다. 동중정(動中靜)이라고 할까요. 정신없이 바쁘긴 한데 돌아보면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보이네요.

권창섭 서예 모임에서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홍윤표 한글의 서체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서예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한글 문헌이 많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그분들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알고 있으니까 한글 문헌의 다양한 서체들을 소개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 해 온 탓에 이제 별로 할 이야기도 없는데 계속 나와 달라고 해서 근근이 하고 있어요.

권창섭 진행 중이던 저작의 출간 작업도 여럿이었지요?

홍윤표 네. 계획하고 있고 또 작업 중인 것들이 많은데 지금으로선 너무 바빠서 진행이 되질 않네요. 한글박물관이 개관되고 나면 숨을 좀 돌릴 수 있을까요. 이미 책을 쓴 것들도 지금 교정지가 마구 쌓여 있고 그래요.

권창섭 어떤 책들인가요?

홍윤표 일단 어휘역사사전이 있고요. 3,500~4,000개 어휘의 역사를 기술한 책입니다. 교정을 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손도 못 대고 있네요. 일곱 명이 함께 작업한 일입니다.

권창섭 출판되면 국어사 공부하는 이들뿐 아니라 국어학 연구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책이네요. 양도 꽤 되겠는데요?

홍윤표 삼사 천 쪽 정도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 권으로 나눠 나올 것 같고요.

권창섭 근대국어연구»는 개정판이 나오지 않나요?

홍윤표 출판사(태학사)에서 개정판을 내 달라고 말은 하는데 책을 내 봤자 출판사에 손해만 입힐 것 같아 주저됩니다. 요즘 워낙 책이 팔리지 않으니깐요. 개정판 원고를 꽤 쓰긴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권창섭 근대국어연구»의 경우는 기다리는 이들이 많으니 개정판이 나오면 꽤 반응이 좋지 않을까요? 또 다른 책도 있습니까?

홍윤표 국어사 자료 강독서도 집필 중입니다. 기존에 나온 강독서들과는 다른 체제로 구성했습니다. 거의 다 썼어요. 국어사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결 자료는 또 어떤 것이 있고 구결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서지학적인 이야기도 조금 넣었고요. 문헌의 간년을 추정하는 방법, 그리고 옛 문헌을 인용하는 방법 등도 신고 있습니다.

권창섭 폭넓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군요. 국어학 내적인 내용의 차이도 있습니까?

홍윤표 기존의 국어사 자료 강독서들이 해당 문헌에 나오는 어휘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에 그쳤다면 제가 쓰고 있는 책은 음운, 형태, 통사, 의미에 관련된 설명을 가능한 한 자세히 실으려 하고 있습니다.

권창섭 다들 얼른 출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책들이네요. 고어사전도 준비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홍윤표 그건 집필하다가 말아 버린 상태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천자문(千字文)’류나 ‘자석(字釋)’류의 목록을 다 모은 후, 한자마

다 그 석(釋), 즉 뜻풀이를 어떻게 해 왔는지를 일람할 수 있는 책도 준비 중입니다. 가가령 ‘佳(가)’의 경우 ‘아름다울’로 된 것도 있고 ‘도홀’로 된 것도 있던 말이죠. 문헌별로 시대별로 다 그 석(釋)이 다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국어사 자료인 셈이죠. 이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면 한자의 ‘석음(釋音)’을 통한 새로운 연구 주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300여 종의 문헌들 중에서 아직 입력이 채 안 된 것도 있고, 또 한자 자체가 폰트가 없어서 입력이 곤란한 것들도 있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보직들이 끝나고, 특강하고 있는 것들도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일단 이 일에 매진하려 합니다. 이 밖에도 작업을 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아직 출판을 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해도 될까요?

권창섭 물론이죠, 선생님. 무엇입니까?

홍윤표 지금 한국의 한자들의 경우 그 표준 석(釋)과 표준 음(音)이 없어요. 가령 제 이름에 있는 ‘杓’의 경우 어떤 책에서는 그 음이 ‘표’이고 어떤 책에서는 ‘작’이라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글자가 한두 글자가 아닙니다. 이들에 대해서 표준이 되는 음(音), 그리고 석(釋)을 제시하고 싶어요. ‘杓’의 경우, 음(音)도 여럿이지만 석(釋)도 그렇거든요? 어디에서는 ‘나무죽’이고 어디에서는 ‘북두칠성자루’입니다.

더 큰 문제는 ‘杺’, 이 글자 석(釋)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권창섭 ‘후박나무’ 아십니까?

홍윤표 그렇죠?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杺’을 찾으면 그 석(釋)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석(釋)입니다. 그 ‘후박나무’란 석(釋)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일본의 석(釋)이지요. 우리의 석(釋)은 ‘순박할’, ‘숫될’ 등입니다. 이런 걸 바꿔야 해요. 표준이 되는 한자의 음과 석을 만들어야죠. 이 작업을 수십 년

째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명(物名)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권창섭 정말 여러 방면에서 연구와 집필을 하고 계시네요. 특히 한자의 음(音)과 석(釋)을 정비하는 작업은 언중의 실제 언어생활과 매우 밀접히 닿아 있는 작업인 듯합니다.

홍윤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국어학계는 언중과 멀어지겠지요. 학문은 언제나 우리의 생활 및 문화와 연계되어야 하거든요. 언중이 국어학 분야 중에서도 방언학에 왜 관심이 많겠어요? 자신들의 생활 및 문화와 관련되니까 그런 것이지요.

또 국어사에서 모음 체계나 자음 체계가 변했다고 해서 언중이 언어가 변화했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어휘가 변할 때 인식을 하죠. 그런데 어휘는 언어 외적인 것들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많다 보니 연구를 잘 하질 않거든요. 구조주의라고 하면서 언어 외적인 것을 배제하고 언어 내적인 것들 사이의 관계들만 이야기합니다. 정작 언어는 언어 외적인 사회, 문화, 정치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언어 내적인 것들로만 오밀조밀 이야기한다고 그게 구조주의이겠습니까?

권창섭 연구를 시작하던 때부터 가진 생각이십니까?

홍윤표 그렇진 않아요. 젊을 때는 근대국어, 격조사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했지요. 그러다가 ‘아,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처럼, 한글, 한자, 어휘, 언어 정보화 등 이런 쪽으로 오게 된 것이지요. 갈수록 다양한 분야, 그리고 필요하다 싶은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되었지요.

삶 속에 녹아 있는 한글, 이를 느낄 수 있는 한글박물관

권창섭 한글박물관 개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네요. 한글박물관

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0월 9일 한글날에 개관하는
가요?

홍윤표 개관식은 10월 8일에 하고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10월 9
일입니다. 한글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일단 한글에 대해서 간
략히라도 이야기해야겠죠? 일단 저는 한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문화적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적 기능,
마지막 하나는 사회적 기능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한글은 경제적 기능
도 추가할 수 있겠고요.

권창섭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윤표 첫째 문화적 기능이란 건 당연한 것이지요. 언어를 통해서 소
통을 하고, 소통을 통해서 협동을 하고, 협동을 통해서 문화를 창조하
고 발달시켜 나가니까, 세계의 모든 문자가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권창섭 그럼 다른 두 기능은 한글이 가진 특수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
네요.

홍윤표 중국에 잠시 갔을 때 소수 민족 대표들끼리 백두산에 갈 기회
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몽고족 대표로 오신 분이 자꾸 저에게 접근을
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중국어를 할 줄 몰라서 자꾸 뒤로 빼다가 마침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러자 그 내몽고족 대표가 하는 말이, 한국 민족은 행복한 것이라고 하더
군요. 그래서 제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무엇이 행복한 것이냐 반문
했습니다. 몽고의 경우는 내몽고가 있고 외몽고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쪽 모두 몽고어로 말하지만 내몽고는 한자로 표기하고 외몽고는 키
릴 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의사소통이 되겠지만, 만나지 않
고 문자로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한(恨)이라는 겁니

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남이건 북이건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 들도 모두 같은 문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민족적 기능이라 할 수 있지요.

권창섭 사회적 기능은 무엇입니까?

홍윤표 민족적 기능이 민족을 하나로 묶는 것이라면 사회적 기능은 사회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계층에 따라 알파벳을 더 사용하는 계층, 한자를 더 사용하는 계층이 있겠지만 모든 계층이 함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자는 한글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사회적 기능이라 할 수 있겠지요.

권창섭 한글박물관이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가진 한글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겠군요.

홍윤표 네. 이러한 중요한 기능들을 가진 한글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를 보여 주는 박물관이 꼭 필요했던 것이지요. 사실 제가 이러한 박물관의 필요성을 예전 부터 역설해 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한글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제가 직접 구상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기각된 적도 있었고요.

권창섭 그게 언제쯤인가요?

홍윤표 이어령 선생이 문화부¹⁾ 장관일 때입니다.

권창섭 노태우 정권일 때로군요.

홍윤표 차후에 한글실이 조그마하게 생기긴 했지만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온라인으로라도 박물관을 먼저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사이버 한글박물관입니다. 이것이 다시 디지털 한글박

1) 차후 문교부, 문화체육부를 거쳐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된 행정부 부처. 이어령 선생이 초대 장관을 역임하였다(1990. 1.~1991. 12.).

물관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고요. 그때 연구 책임자를 맡긴 했지만 여러 사정이 있어서 금방 그만 두긴 했습니다.

그러다 독립된 한글박물관을 만든다고 저더러 개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고사한 뒤에 결국 맡게 되었습니다. 만 제가 강력하게 무엇을 주장한다거나 의견 표명을 뚜렷이 한다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할 따름이지요.

권창섭 한글박물관의 개관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홍윤표 한글의 발달을 통해 문화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겠지요. 한글 문화를 통해서 우리 문화, 우리 사회를 발달시키는 역할, 또 지금까지의 그 발달을 돌아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권창섭 박물관이 새로 개관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로 어떤 물품들이 전시되는지를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명칭부터 한글박물관이다 보니 주로 한글로 쓰인 고문헌 자료들이 먼저 생각나는데, 이외에 어떤 물품이나 자료들의 전시가 예정되어 있나요?

홍윤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이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한글 창제 후 한글의 사용층이라 하면 우리는 흔히 여자와 중인 및 서민들 일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암클, 중클 같은 명칭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권창섭 사대부들과 고위층 양반들도 사용했을 것이란 말씀이시죠?

홍윤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문화의 기득권층이 한글을 쓰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한글이 절대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권창섭 실제로 왕들도 편지나 서간들은 한글로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정조의 어릴 적 한글 편지가 화제가 된 적도 있고요. 왕들도 이렇게 한

글을 즐겨 사용했으면 사대부들 역시 마찬가지였겠네요.

홍윤표 그렇습니다. 암클이니 중클이니 하는 표현들은 일제 강점기의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권창섭 한글을 격하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요?

홍윤표 그렇지요. “석학 인문 강좌”란 곳에서 강연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향신문에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표제가 “한글을 하류 계층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다는 억측은 불식돼야”였는데 바로 이 말로 제 의견을 요약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 한글을 만든 것은 세종이지만 그것이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된 데에는 불교계의 공헌이 매우 큼니다. 종교의 역할이 매우 크죠. 물론 한글이 워낙에 쉽다 보니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만요.

한글, 훈민정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종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세종만 추앙합니다. 물론 세종이 뛰어난 학자였고 뛰어난 문자를 만들었으니 으뜸으로 이야기해야겠지만 보이지 않는 뒤에서 한글을 위해 힘썼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한글박물관에 가면 그런 것들이 좀 보일 겁니다.

사대부와 왕족들의 글과 글씨뿐 아니라, 서민들이 생활에서 사용한 여러 글, 여러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기왕의 한글 전시회나 이런 경우 들에서는 임금이나, 혹은 명필로 알려진 사대부들의 글 위주로 전시되었잖아요? 그런 것들만 전시해 놓으면 관람하는 사람들은 거리감을 느끼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실제로 사용했을 법한 모양의 여러 유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유도를 하긴 했는데 반응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기대는 크고 준비 기간은 짧았고 또 공간이 좁아서 걱정이 됩니다.

권창섭 유물은 많은 편인가요?

홍윤표 한글의 역사가 근 600년 가까이 되긴 하지만, 한글이 우리 생활사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한 것은 실지로 이제 한 세기가 지났다고 봐야 합니다. 유물이 많을 수가 없지요. 관람하시는 분들의 기대는 큰데 유물들이 적어서 실망을 할까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권창섭 그럼 다시 아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런 유물들 중 책이나 문서처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홍윤표 한글이 쓰인 돌이라든가, 향아리, 부적, 악보, 기왓장, 다듬잇돌 등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권창섭 선생님께서 소장하시던 것 외에도 여러 곳에서 수집해서 전시를 하나 보군요?

홍윤표 저는 원래 저 개인적으로라도 한글박물관을 만들고픈 욕심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골동품상에서 볼 때마다 사서 모아 두었습니다. 그러다 곧 개관할 한글박물관이 기획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한글 자료와 유물을 수집하는데 이런 것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글 유물 중에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생활용품들도 전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자 그때부터 수집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의 값이 많이 뛰었습니다.(웃음)

권창섭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몇 개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홍윤표 이게 무언지 아시겠어요? 이름이 분판인데 지금의 칠판과 같은 구실이지요. 글씨 연습한 흔적입니다. 글씨를 쓰고 물로 지울 수 있도록 기름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담뱃대에 한글이 쓰여 있는 것이네요.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권창섭 정말 선생님께서 소장한 것만으로도 작은 박물관을 꾸릴 수 있었겠네요.

[그림 1] 글씨를 연습하던 분판과 한글이 쓰여 있는 담뱃대



홍윤표 이런 것들이 더 재밌는 자료들이죠. 종이로 된 책이나 문서들보다 이런 것들을 관람하는 이들이 더 눈여겨보지 않겠습니까?

권창섭 이런 자료들이 한글이 민중의 삶에 미친 영향들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겠네요. 문자가 단순히 언어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홍윤표 그럼요. 옛 유물들을 보다 보면 여러 지혜들도 엿볼 수 있어요. 옛날 책들은 간혹 각 면의 바깥쪽 하단에 여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창섭 아! 손으로 종이를 넘기는 부분이어서 쉽게 닳는 부분이라 그런 것이로군요.

홍윤표 그런데 이런 것이 있는 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책본(貫冊本)입니다. 과거에 책을 필사(筆寫)해서 빌려주던 세책업(貫冊業)이란 것이 있었어요.

권창섭 지금으로 치면 도서 대여점 같은 셈이로군요. 그러다 보니 그런 책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의 손을 탈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홍윤표 그래서 그 부분이 쉽게 닳게 되니 글자를 빼놓은 것이지요.

권창섭 종이가 귀한 시절의 문화와 그 시절의 지혜를 볼 수 있네요.

홍윤표 선조들에게서 많이 배웁니다.

권창섭 선생님께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 한글박물관이 참 기대가 되네요.

홍윤표 박물관이 재밌으면 얼마나 재미가 있겠느냐마는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유물들을 보고 상상을 해 보면 많은 재미가 생기겠지요. 그리고 콘텐츠들을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까 말한 한글 악보 같은 경우, 악보만 보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 악보에 적힌 것을 실제로 귀로 들을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이런 저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섭 전시 외의 다른 콘텐츠들도 준비되고 있는지요? 가령 교육 사업이라든가 말이죠.

홍윤표 아직입니다. 일단 전시관이 상설 전시관과 특별 전시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특별 전시관은 일단 세종을 주제로 개관 특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한글에 관한 것뿐 아니라 문화, 국방 전반적인 것을 다룰 거예요.

권창섭 다른 국가 혹은 다른 문자권에도 이렇게 문자를 중심으로 하는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있습니까?

홍윤표 문자 박물관이 있긴 있습니다. 알파벳 박물관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고 한자 박물관이 중국에 있다고 하는데 둘 다 가보지는 못했습

니다. 그래도 지금 개관하려 하는 우리 한글 박물관과 같은 취지와 목적의 박물관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훈민정음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시선

권창섭 한반도의 역사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중 으뜸으로 훈민정음을 많이들 꼽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한글이 어떤 측면에서 우수한 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을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윤표 한글날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이야기하곤 하지요. 저는 “한글이 우수하다”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수하다”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알파벳은 영어를 표기하는 데 가장 우수하고 가나 문자는 일본어를 표기하는 데 가장 우수한 것처럼 “한글은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인 것이죠.

권창섭 언어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로군요.

홍윤표 한글은 우수하기보다는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였고, 한글이 지금까지 사용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글이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의 장점 덕분이죠.

언어학적 측면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로 간편합니다. 한글은 점과 선과 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장 간단한 것의 조합으로 모든 글자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글자가 거의 한 음소와만 대응이 된다는 점입니다. 대단한 것이지요. 이러한 원칙이 잘 드러나는 것이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²⁾의 원리이고요. 세상에 이런 문자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글자를 이루는 구성이 기하학적입니다. 하나의 네모 속에서 ‘가’의 경우는 좌우로 양분되고 ‘고’의 경우는 상하로 양분되지요. 중성이 있을 때에는 초중성과 중성의 글자가 양분되고요. 도형적, 기하학적으로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점들이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쉽게 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권창섭 선생님께선 훈민정음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홍윤표 네. 훈민정음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많이 해 보려 해요. 무엇부터 이야기할까요. 훈민정음 서문(序文)에서 ‘문자(文字)’라는 것을 흔히 ‘한자(漢字)’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곧 뒤에 ‘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왜 ‘한자’라고 하지 않고 굳이 ‘문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문자’는 한문 구(漢文句)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문자 쓰고 았았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의 ‘문자’란 말이지요.

권창섭 그렇다면 “나랏말싸미”과 “서르 스뵈디” 아니한 것은 ‘한자’가 아니라 그러한 한문 구란 말씀이시군요.

홍윤표 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편지에 “기체후일향만강(氣體候一向萬康)하옵시며 옥체무난(玉體無難)하옵시며”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저희 아버지도 “소년이노학난성(少年易老學難成)이니 일촌 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이라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이런 한문 구를 말하는 겁니다.

2) 중성을 위한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에 사용되는 글자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훈민정음의 운용 원리. 가령 ‘각’의 초성과 중성은 모두 [k]로 소리가 같으므로 함께 ‘ㄱ’이라는 글자를 이용해 표기하는 것.

권창섭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것이죠?

홍윤표 훈민정음의 구성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국지어음(國之語音)”이라고 적은 뒤에 “나랏말싸미”가 나오고 그다음 다시 “이호중국(異乎中國)ᄃᆞᆫ야”가 적히고 그 뒤에 “뉥귀에 달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잘라 놓은 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대부들은 한문 구로 이어 읽었겠지요. “국지어음(國之語音)이 이호중국(異乎中國)ᄃᆞᆫ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즉 이것이 ‘문자’이고 “나랏말싸미 뉥귀에 달아”가 ‘정음(正音)’인 것이지요.

권창섭 계속해서 문제가 되던 표현인 “자방고전(字倣古篆)³⁾이란 문구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홍윤표 지금까지는 전서(篆書)의 네모난 모양을 본떴다는 뜻으로 주로 해석들을 해 왔습니다. 전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습다. 그 방법이 스물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획법(加劃法)입니다. 거기에서는 가법(加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법(微加法)이 있고요. 미가법은 세로로 가획을 할 때에는 선을 줄이는 것입니다.

권창섭 그것은 한글의 가획법과 그대로 일치가 되네요.

홍윤표 그렇죠. ‘ㄹ’에서 ‘ㄴ’으로 가획할 때에나 ‘ㅎ’에서 ‘ㅇ’으로 가획할 때에는 짧게 가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서체의 미가법과 일치하는 것이지요.

권창섭 즉, 전서 그 자체를 본뜬 것이 아니라, 전서를 만드는 방법을 본떴다는 것이군요?

3) “글자는 옛 전자(篆字)를 본떴다”라는 뜻인데 이 문구의 해석을 놓고 학계에서 여러 의견이 많았다.

홍윤표 그렇죠.

권창섭 모음의 제자 원리도 새롭게 바라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지는 모음은 천지인(天地人)의 모습을 상형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모음 역시 조음기관의 모습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었을 것이라 보시는 것이지요?

홍윤표 자음 역시 조음기관의 모습을 본떠 상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음도 마찬가지로 조음기관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ㆍ’는 원순성이 있는 모음이니까 입술의 둥근 모습을 ‘ㄱ’는 평순모음이니 입술이 퍼진 모습을 본뜬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진호 교수도 지적한 바 있는 ‘ㅣ’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후두가 열린 모습을 본뜬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음과 모음의 제자원리를 공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음이 천지인을 본뜬 것이라면 자음 역시 오행을 본뜬 것이라 봐야 하는 것이잖아요. ‘ㄱ’은 ‘나무(木)’를 본떴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ㄱ’과 ‘나무’ 사이의 관계는 제자 원리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음과 천지인 사이 관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면 모음의 제자원리는 무엇인가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지요. 그 고민을 계속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권창섭 훈민정음이란 텍스트 자체에 대한 해석 역시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훈민정음의 창제가 문자 생활의 측면뿐 아니라 생활 전반적인 측면 및 문화, 사회적인 측면 등에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홍윤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신분의 상승

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세종이 모든 백성들을 업그레이드한 셈입니다.

권창섭 격을 높인 것이로군요.

홍윤표 그럼요. 이처럼 격을 높인 데 또 힘쓴 사람들이 스님들입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에 중앙에서 석보상절과 같은 불경들을 중심으로 책들이 출간되지요. 그러나 지방에서 책이 나온 것은 몇 십 년이 지나 서입니다. 여기에는 스님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판목을 만들고 책을 찍고 불경을 통해 백성들에게 한글 교육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글박물관에도 제가 계획하여 제안을 하였는데 ‘창제 이전→창제→보급과 확산과 성장’ 순으로 둘러볼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보급과 확산’과 관련하여 ‘종교에서 한글로’라는 주제의 전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창섭 조선이 개국할 때에 승유억불(崇儒抑佛)⁴⁾이라 하였음에도 한글 보급에는 불교 중심으로 가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글이 창제된 직후 처음 나온 책들도 불교 관련 서적들이고요.

홍윤표 승유억불, 억불승유라 하였지만 유교를 중심으로 한글을 보급하기 어려웠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교의 경전들은 매우 엄격한 틀이 있어서 문구 하나라도 쉽게 바꾸어선 안 됩니다. 한문 원전을 쉽게 건드릴 수가 없으니 자유롭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를 통해 한글 보급을 하긴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칠서언해(七書諺解)⁵⁾를 보면 서체를 보면 판본이 똑같고 그 격식들이 매우 고정적입니다.

권창섭 반면에 불경들은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위주이다 보니 상대적

4)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누른다.

5) 유교의 주요 경전인 사서삼경(四書三經)을 한글로 언해한 책들.

으로 언해가 용이하고 자유로웠던 것이로군요.

홍윤표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가 널리 번지지 않은 이유는 그것들이 경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이 가장 많이 읽혔던 듯하고 능엄경은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은 경서이기 때문에 덜 읽혔던 것 같습니다. 같은 불경이라도 이본(異本)들이 많은 것들이 많이 읽힌 것이고 스님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공부했던 책이라 할 수 있지요.

‘안 됨’이 아닌 ‘됨’을 위한 어문정책이 되어야

권창섭 한편 한글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 전용을 해야 한다는 논의나, 고유어 어휘를 사용하고 한자어를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윤표 문자의 가장 큰 목적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겠죠.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은 문자를 보고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일 테고요. 그런데 한길은 없는 것이겠죠. 가령 같은 어휘라 할지라도 한자로 썼을 때 더 쉽게 이해하는 이가 있을 것이고, 한글로 썼을 때 더 쉽게 이해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연령에 따라 나뉘겠지요. 한글로 쓰는 것이 더 좋다, 한자로 쓰는 것이 더 좋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창섭 더 우수한 표기법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홍윤표 네. 어휘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어와 한자어 문제도, 고유어를 썼을 때 우리가 더 알아듣기 힘들거나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고유어가 한자어와 뜻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글박물관에서도 유물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적느냐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한글박물관이니만큼 한글로만 써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설명이라는 것은 설명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은 한자를 병기했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시대가 말을 해 줍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표기법이든 어휘 체계의 문제든 자연스레 변해 가는 것이지요.

권창섭 그게 언어의 자연스러운 변화겠지요?

홍윤표 언어는 자연물이니깐요. 변화하는 대로 뒤야겠죠. 물론 그 변화의 방향을 조절하는 방향타 역할은 있어야겠지만요.

가령 현재 우리의 문자 생활에서 ‘ㄱㄱ’나 ‘ㅈㅈ’ 같은 표현은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런 걸 왜 쓰냐고, 쓰지 말라고 해 보아야 소용없는 일이겠죠. 국어학 하는 교수들도 사담을 나누는 문자나 메일 등에서는 ‘ㄱㄱ’나 ‘ㅈㅈ’ 등을 쓰는 걸요. 문자에는 정서적, 감정적 의미를 담기가 힘든데 그걸 담으려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 논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겠죠.

권창섭 언어 정책의 방향은 포용력을 더욱 넓히는 방향이 되어야 하겠군요.

홍윤표 ‘안 돼’, ‘한자어 안 돼’, ‘이모티콘 안 돼’, ‘사투리 안 돼’ 등 ‘안 돼’ 중심으로 운동이나 정책의 방향을 잡아서 안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혹은 어떤 것도 ‘해도 된다’와 같은 방향으로 해야지요. 가령 한글 전용을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한글을 사랑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한자를 미워하는 목소리입니다. 갑순이를 미워하는 것이 영순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순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영순이를 사

랑하면 될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중화사상을 벗어나기 위해 한자를 배격한다면 같은 논리로 알파벳들도 다 배격해야 합니다.

문자 생활 및 언어생활과 관련된 정책은 장구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단기에 무언가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 언중의 사용 실태와 또 욕망들을 계속 조사해 나가고 그에 따라 수정해 나가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표준어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자기네들 말이 표준어가 되면 좋을 것이고 경상도 사람들은 자기네들 말이 표준어가 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느 지역의 말을 표준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권창섭 각 지역의 말들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 방법이겠지요?

홍윤표 그럼 어휘가 풍부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권창섭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쳐내는 방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왔었지요.

홍윤표 그러니까요. 그래도 슬슬 'XX의 잘못' 등으로 올라와 있는 방언 어휘들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북한에서는 방언 조사를 해서 각 방언 어휘들을 모두 문화어로 편입시키는 일을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죠.

권창섭 그래도 한국의 경우는 표준어나 맞춤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가능한 한 현실 사정에 맞도록 수정해 나가려는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닙니까? 2011년에 있었던 표준어 개정도 언중의 환영을 받았고요.

홍윤표 그렇긴 한데……. 전 '짜장면'을 복수 표기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글썩요. 언중들의 실제 발음이 [짜장면]이기에 표기도 '짜장면'을 허용한다면 'bus' 역시 '버스'뿐 아니라 '빼스'란 표기를 허용해야겠죠.

권창섭 영어의 어두 유성자음을 대개 경음으로 발음하니까요.

홍윤표 그런데 ‘짜장면’만 허용해 준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이지요. 바꾸려면 그것들도 바꾸어야죠.

함께, 넓게, 다양하게, 행복하게

권창섭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어 연구의 현황에 대해,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홍윤표 언어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협동하고 상호 작용하는 자의적인 음성 기호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국어학계에서는 그중 ‘자의적인 음성기호의 체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협동하고 상호 작용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하지요. 이런 것들을 주변적인 국어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쪽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연구의 대상으로서 국어를 보다 넓게 볼 필요가 있겠지요. 남한의 국어, 북한의 국어, 그리고 다른 세계의 국어 중 남한의 국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남한의 국어 중에서도 방언에 대해서는 그 관심의 정도가 약합니다. 반쪽짜리 국어학인 셈이지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계층의 국어를 나누어 살필 필요도 있고요.

권창섭 이를 위해 당장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홍윤표 글썄요. 이런 방향의 연구가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일단 품이 많이 듭니다. 품이 많이 드는 일은 개인이 하기 힘들죠. 그렇다면 힘 있는 기관에서 나설 필요가 있는데, 한국에는 지금 국어 연구를 위한

힘 있는 기관이 딱히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담이지만 국어학 공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웃음)

권창섭 그런 날이 있을까요?(웃음) 다양한 방향으로 국어학 연구에 매진해 오신 선생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네요.

홍윤표 제가 지금과 같은 분야의 연구들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휘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언어의 기본 단위가 어휘이기 때문이죠. 언어의 기본 단위는 음성도 문장도 아닌 어휘입니다.

자료와 언어 정보화를 연구하게 된 데도 까닭이 있고요. 모든 학문은 자료와 이론, 그리고 실험이라는 세 요소로 굴러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 연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반면에 자료를 연구하는 사람은 적었거든요. 학문이라는 수레에 자료와 이론이라는 두 바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바퀴가 너무 크면 제자리에서 계속 한 방향으로 수레가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론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바퀴인 자료 연구에 매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두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힘인 실험, 그것이 말인 것보다는 엔진인 것이 더 좋은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어 정보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국어학을 보다 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연구할 필요도 있겠죠. 언어 그 자체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언어의 뒷면에 놓인 무언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어사를 하려면 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과 문화의 역사를 모르는데 언어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회언어학을 하려면 사회학도 잘 알아야 할 것이고요.

권창섭 선생님의 그런 연구들 덕분에 후학들이 보다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된 듯합니다.

홍윤표 제 덕이라뇨, 아닙니다. 저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함께해야 하는 것이지요.

권창섭 더불어 후학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격려와 질타의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윤표 글썬요. 제가 정답이 아니었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동시대에 함께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죽을 때 내 뒤를 따르라 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 왔을까?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맘이 있어야 그런 질타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후회는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 후학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말도 없고요. 한동안은 연구와 작업들을 억지로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만큼의 재미와 희열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 공부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이 더욱 즐겁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었을 것 같네요.

권창섭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단 도움이니 아니니를 떠나 정말 부러움이 들게 하는 말씀이네요.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홍윤표 계획한 책들을 다 못 내고 있어 아쉽긴 한데 어찌겠어요. 어떻게 바라는 만큼 다 하겠습니까. 제가 다 못하면 누군가가 또 바통을 이어받아 하겠지요.

정년 퇴임식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한답시고 했는데 결국 알게 된 것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알고 한 대상에 한 발짝 다가서면 그 대상은 다시 열 발짝 뒤로 달아나더라. 공부란 끝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도 전 이 직업과 이 길을 택한 것이 매우 잘한 선택이라 생각하고 매우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만족합니다.

권창섭 선생님께서 젊어 보이시는 비결도 그러한 행복감과 만족감 때문인가 봅니다.

홍윤표 제가 젊어 보이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한 달에 한 번 염색하는 겁니다.(웃음)

권창섭 그렇군요. 오랜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홍윤표 저도 즐거웠습니다.

이효석 소설 속 어휘들의 감칠맛 — <메밀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

민충환 문학평론가

1

이지러는 겹이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팔십 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 거론될 때마다 인용되는, 허 생원과 조선달 그리고 동이가 대화로 가기 위해 밤에 산길을 넘는 장면이다. 김동리가 이 작품을 가리켜 ‘소설을 배반한 소설’이라 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장면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의인과 비유, 공감각적인 표현 등 온갖 수사법이 동원되었지만 과장하지 않고 아름다운 어휘들로 한편의 잔잔한 수목화를

연상시킨다. 그렇기에 이 소설을 단순히 ‘순수 소설’이란 개념을 넘어 ‘분위기 소설’ 혹은 ‘서정 소설’이라 극찬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이 장면에 보이는 시적인 아름다운 문체와 묘사 기법만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작품 전편을 들여다보면 이와 유사한 혹은 문체와 묘사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요소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바로 소설 전편에 깔려 있는 이효석의 감칠맛 나는 어휘들이다.

2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1936년 《조광》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그의 대표작일 뿐 아니라 한국 현대 소설의 수작 중 하나라고 평가될 만큼 작가의 문학 세계가 잘 응축되어 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허 생원은 봉평에서 하룻밤 정을 나누고 헤어진 성 서방네 처녀를 잊지 못해 봉평 장을 거르지 않고 찾는다. 봉평 장판이 일찍 끝나고 술집에 들렀다가 젊은 장돌뱅이인 동이가 충죽집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는 심하게 나무라고 따귀까지 때려 내쫓는다.

그날 밤, 다음 장이 서는 대화까지 조 선달, 동이와 더불어 밤길을 걸으면서 허 생원은 성 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인연을 또 들려준다.

낮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던 끝에 동이가 자신의 집안 사정 이야기를 한다. 허 생원은 사생아를 낳고 쫓겨났다는 동이의 어머니가 바로 자기가 찾는 성 서방네 처녀가 아닐까 생각한다.

허 생원이 물을 건너다가 빠지자, 동이가 건져 업는다. 동이의 등에 업혀,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지 않더니냐고 물어보니, 늘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과 의부와 갈라서 제천에 머물고 있는 어머니를 동이는 가을 쯤에 모셔올 것이라 한다.

허 생원은 갑자기 예정을 바꾸어 대화 장이 끝나면 동이의 어머니가 산다는 제천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혈육의 정을 느끼며 동이를 바라 보던 허 생원은 동이가 자기처럼 왼손잡이인 것도 확인한다.

줄거리에서 보듯이 〈메밀꽃 필 무렵〉은 과거의 추억 속에 살아가는 장돌뱅이 허 생원과 서로 입장이 비슷한 조 선달 그리고 동이, 세 사람이 봉평에서 대화로 가는 밤길을 걸어가면서 전개되는 하룻밤의 이야기이다.

허 생원은 젊은 시절 성씨 처녀와 하룻밤 사랑의 인연을 맺었는데, 이 회고담은 달밤의 메밀밭을 배경으로 잔잔하게 그려진다. 그 이야기와 함께 세 사람은 자연과 일체감을 이루고, 허 생원은 자기와 똑같은 왼손잡이 혈육까지 만나게 된다.

중심인물은 ‘허 생원’과 ‘동이’이다.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주된 사건은 허 생원이 회고하는 옛사랑과 동이가 말하는 그의 가족사에서 은연중에 동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느끼는 대목이다. 동이의 어미가 산다는 제천으로 가자는 것, 그리고 허 생원의 나귀가 새끼를 가졌다는 것은 나란히 미래의 희망이 된다.

위에 제시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는 배경이 전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로 배경이 작품을 서정적이고, 시적인 경지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메밀꽃 핀 산길의 달밤은 낭만적인 자연 배경이자 허 생원이 옛이야기를 꺼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달이 비치는 메밀밭과 산길이 순박한 인물들과 조화를 이루어 허 생원과 동이를 결합시킨다. 봉평 장터와, 봉평에서 대화에 이르는 메밀꽃이 흐드러진 밤길, 메밀꽃 핀 개울가는 단순한 자연적 정경에 그치는 배경이 아니라, '인생의 인연'을 상징하여 작품 주제에 직접 연결된다.

간결한 대화와 사실적인 문체, 운문과 산문의 장점을 잘 살린, 시처럼 부드러운 서정적 분위기, 순차적으로 여러 개의 삽화를 배치한 치밀한 구성, 암시와 추리의 기법, 여기에 '아버지 찾기'라는 원형을 드러냄으로써 떠돌이 삶의 애환 속에 펼쳐지는 인간 본연의 애정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3

그런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메밀꽃 필 무렵〉의 여러 특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작품 전반에 산재한 어휘들이다.

여름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관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벌여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훌훌 뉘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뉘요, 팔리지 못한 나뭇군뫼가 길거리애 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윳병이나 받고 고깃마리나 사면 죽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축축**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군 각다귀들도 귀치않다. **얼금뱅이**요 **원손잡이**인 드팀전의 허 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 선달에게 낚아 보았다.

소설의 첫 장면이다. 1936년에 발표되었다지만 근 80년이 지난 지금 읽는 데에도 전혀 걸림이 없다. 사실 1936년이면 우리들의 생활 언어 속에 아직 고어 투가 없어지기 전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고어 투 어휘나 문체 혹은 어려운 한자 성어나 국한문 혼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바로 어휘의 현대성이다.

사실 이효석의 단편 중에는 <장미 병들다>, <화분>과 같이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도 많다. 이에 비해 <메밀꽃 필 무렵>은 지극히 토속적인 사건을 그린다. 그러나 어휘 면에서는 도시적이라 할 작품들과 마찬가지로의 현대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이 작품이 장돌뱅이 이야기라는 사실을 첫 장면에서부터 감지할 수 있다. 사건이 장돌뱅이들의 애환이듯이 위에 제시한 장면의 강조한 부분과 같이 문장과 어휘가 이미 장돌뱅이들의 것이다. 결국 국 사건과 그 사건을 서술하는 어휘를 결합시켜 ‘떠돌이 삶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다.

그런데 위에 제시한 부분만이 아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전편에 걸쳐 이효석의 독특한 어휘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로채다**: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다.
- **가스러지다**: 짧은 털이 뺏뺏하고 거칠게 일어난다.
- **가제**: ‘갯’의 방언.
- **각다귀**: ‘남의 것을 뜯어먹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 **감쪽같이**: 전혀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표시가 흔적이 없이.
- **개운하다**: 몸이나 마음이 상쾌하여 가쁜하다.
- **거나하다**: 술이 많이 취해 있다.
- **거슴치레하다**: 눈의 정기가 풀리고 감긴 듯하다.

- 결감: 화가 난 나머지.
- 고깃마리: 약간의 고기.
- 고리작: 고리나 대오리로 엮어 옷이나 천을 넣도록 만든 상자.
- 고주: 고주망태. 술에 몹시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 또는 그렇게 된 사람.
- 굴레: 마소의 얼굴과 목을 얼러서 얽은 줄.
- 궁싯거리다: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다.
- 글르다: 그르다. 어떤 일이나 형편이 잘못되어서 잘 될 가망이 없다.
- 꼴사납다: 보기에 아주 흉하다.
- 꼴에: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 콩무나: 맨 끝.
- 나귀: 당나귀.
- 나꾸다: ‘뉘다’의 방언. 뉘다- 갑자기 붙들거나 잡아채다.
- 난질꾼: 술과 색에 빠져 방탕하게 놀기를 잘하는 사람.
- 낫세: 나쎄. 나쎄-그만한 나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
- 놈팽이: 놈팡이. 놈팡이-‘사내’의 낮은말.
- 뉘아세우다: 심하게 나무라거나 꾸짖다.
- 달음질: ‘달음박질’의 준말. 급히 뛰어 달려가는 걸음.
- 대거리: 상대방에 맞서서 대드는 것.
- 대견하다: 대근하다. 대근하다- 힘들고 만만하지 아니하다.
- 대궁: ‘대공’의 방언. 대공- 식물의 줄기.
- 돈푼: 많지 않은 돈.
- 둔덕: 작은 언덕.
- 띤은: 따지고 보면. 하기는.
- 몽당비: 끝 부분이 아주 많이 닳아서 자루만 남은 비.

- 무던히: 상당히. 어지간히.
- 바: 벗짚이나 삼, 칩 따위로 세 가닥을 지어 굵다랗게 드린 줄.
- 바리: 짐을 등에 실은 마소의 수에 따라 세는 단위. 여기서서, ‘약간 수의 바리’를 나타냄.
- 바스러지다: 바서져 좀 잘게 되다.
- 반하다: 흘린 듯이 마음이 끌리다.
- 별름거리다: 코를 계속해서 별렸다 오므렸다 하다.
- 부락스럽다: 거친 데가 있다.
- 비죽이: 소리 없이 입을 내미는 모양.
- 빗디디다: 디딜 자리를 바로 디디지 못하고 다른 자리를 잘못 디디다.
- 산허리: 산중턱.
- 서슬: ~는 바람에.
- 선머슴: 차분하지 못하고 거칠게 덜렁거리는 아이.
- 술기: 술에 취한 기운.
- 솟기: 수줍어하지 않는 활발한 기운.
- 쓸리다: 물체가 맞닿아 문질러지거나 스쳐서 상하다.
- 알뜰하다: 실속 있게 절약하다.
- 암샘: 암컷이 일정한 시기에 교미욕을 일으키는 일.
- 양갈지다: 매우 양큼하고 날카롭다.
- 애송이: 애송이. 애티가 있어 어려 보이는 사람.
- 애잔하다: 몹시 잔약하다. 애처롭고 애뜻하다.
- 앵돌아지다: 성이 나서 토라지다.
- 약빠르다: 약고 눈치가 빠르다.
- 어둑시니: 청맹과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실제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눈. 또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

- 어수선하다: 사물이 뒤섞여 어지럽고 수선스럽다.
- 어지간하: 어지간하게. 꽤 많이.
- 얼굴뱅이: 얼굴이 얼금얼금 얇은 사람.
- 얼버무리다: 말꼬리를 흐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대충 말하다.
- 외줄: 단 한 줄.
- 이지러지다: 한 귀퉁이가 떨어지다.
- 자나깨나: 늘.
- 장난꾼: 장난을 심하게 치는 사람.
- 장도막: 장날과 장날 사이의 동안.
- 장돌뱅이: ‘장돌림(여러 장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장수)’
을 낮추어 이르는 말.
- 장돌이: 장돌뱅이.
- 줄달음: ‘줄달음질’의 준말. 한숨에 내쳐 달리는 달음박질.
- 짜장: 과연. 정말로.
- 쫄딱: 더할 나위 없이 아주.
- 철없다: 사리를 분별할 만한 지각이 없다.
- 축: 일정한 특성에 따라 나뉘는 사람들의 부류.
- 찹찹스럽다: 찹찹한 데가 있다. 찹찹하다- 하는 짓이 아니꼬울 만
큼 인색하거나 염치가 없다.
- 타박거리다: 좀 힘없는 걸음으로 자꾸 나릿나릿 걷다.
- 탐탁하다: 태도가 마음에 들고 믿음직하다.
- 투르르거리다: 말이나 당나귀 따위가 주둥이 내뿜며 투레질하는
소리를 하다.
- 꽤: 어울려 이룬 사람의 동아리.
- 하염없이: 아무 생각이 없이.

- **해깝다:** ‘가볍다’의 방언.
- **햇발:** 사방으로 뻗친 햇살.
- **허덕이다:** 팔다리를 마구 움직이다.
- **허비적거리다:** 자꾸 허비어 헤치다.
- **헐레벌떡거리다:** 숨을 자꾸 헐떡이며 가쁘게 몰아쉬다.
- **후리다:** 그럴듯한 방법으로 사람을 꺾어 넘기다 혹은 휘둘러서 때리다.
- **훗훗이:** 훗훗하게. 훗훗하다- 혼 혼하여 약간 갑갑할 정도로 덤다.
- **흐뭇이:** 마음이 느긋하고 만족스럽게.

이러한 고유어들이 적재적소에 쓰이면서 아름다운 문체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장돌뱅이라는 토속적 인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의성어와 의태어의 유효적절한 쓰임도 지적할 수 있다.

- 더운 햇발이 벌여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훗훗** 볶는다.
-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날 산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
-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
- 몇 남지 않은 아이들이 호령에 놀래 **비슬비슬** 멀어졌다.
-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달랑달랑** 메밀밭께로 흘러간다.
-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디었다.
- 귀를 쫓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

사실 소설 창작 기법이란 측면에서는, 소설 문장에 가능하면 의성어와 의태어를 쓰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상상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전화가 따르릉하고 크게 울렸다’고 서술하면 독자는 자신만의 다양한 전화벨 소리를 상상하지 못하고 ‘따르릉’으로 국한한다. 그렇기에 ‘전화벨이 크게 울렸다’보다 오히려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런데 위에서 강조한 부분에서 보듯이 이효석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딸랑딸랑’과 ‘달랑달랑’은 자음 하나의 차이이지만 그 의미상의 차이는 엄청나다. 이 의성어가 ‘방울소리’ 그리고 ‘뛰는 모습’과 결합하며 경쾌함과 가벼움을 적확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메밀꽃 필 무렵〉에 나타난 아름다운 고유어는 가히 이효석 특유의 감칠맛 나는 어휘들이다. 그리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한 청각적 혹은 시각적 자극은 이 작품을 읽는 또 다른 맛이라 할 수 있다.

※ 기존의 논의와 자료들은 이병렬의 블로그(<http://lby56.blog.me/150032054648>)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였으나, 일일이 인용 표기는 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자막 문장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장진한 TV조선 보도본부 전문위원

1. 곳곳에 널려 있는 텔레비전

만일 몇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자네 요즘 뭐 하고 사나?”라고 묻는다면, 나는 “요즘 나는 글자로 먹고 산다.”라고 답할 것이다. 예전 같으면 “글로 먹고 산다.”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글’과 ‘글자’는 어떻게 다른가. 우선 글은 쉼표와 마침표가 있다면 글자는 쉼표만 있다. 또 글은 명사와 동사가 있다면 글자는 명사만 있을 뿐이다. 자,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밝힐 차례다. 나는 이태 전 26년간의 신문교열자 생활을 마치고 방송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편집부 꼬트머리에 있는 조그만 책상에 앉아 뉴스 아래에 붙이는 100여 개의 자막(방송국에서는 이것을 ‘티커’라 부른다)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

자막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알고 보면 현대인은 자막과 함께 살고 있다. 광화문에 직장을 둔 A씨의 일상을 가정해 생각해 보자.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텔레비전을 켜다. 화면 아래에는 앵커의 빠른 목소리와는 다른 별도의 뉴스가 흐른다. 비록 개수는 100여 개에 불과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 바퀴 도는 시간은 8분 정도. 아침이 분주한 그는 굳이 신문을 펼치지 않고도 이렇게 그날 하루에 대한 감을 잡는다.

그러나 자막은 그의 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 승강기 안에도 텔레비전이 달려 있다. 광화문 새문안교회 건너편에서 버스를 내려 광화문 사거리 쪽으로 걸어가면 동아일보 사옥 지붕에 있는 대형 전광판이 그의 시선을 가로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이제는 코리아나호텔 벽에 붙어 있는 조선일보 전광판이 있다. 이쯤 되면 그는 자막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자막이 현대인들의 언어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2. 한국어에 대한 새로운 발견

내가 뉴스 자막을 만들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 중 하나는, 우리말은 명사만으로도 소통이 되는 묘한 언어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텔레비전을 켜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뉴스 자막은 글자 수가 대개 25자 정도로 정해져 있다. 이보다 길면 시청자의 시선을 효과적으로 붙들지 못하고, 자막을 위아래로 흘리면 글자가 변형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막을 정리한 뒤 들여다보면 태반이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지검장이 음란 행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라는 문장은 ‘제주지검장 음란 행위 혐의 현행범 체포 후 방면’처럼 만든다(2014년 8월 15일 A방송). 모두가 명사만으로 나열되어 있다. 어미나 접미사를 모두 잘라 버리고 명사(어근)만으로 문장을 만들었는데도 소통이 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문장이다. 이 문장을 원칙대로 해석하면 ‘제주지검장은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현행범을 체

포한 후 방면했다'가 되기 때문이다. 즉, 음란행위를 한 것은 '제주지검장'인데, 표현된 자막에서 음란 행위를 한 자는 '현행법'이 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주지검장'이 음란 행위를 했다고 재빨리 받아들이고, 문장의 잘못을 눈치 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경우 성실한 자막 작성자라면,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혐의로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풀려나'처럼 심표로 주어를 밝혀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고, 조사와 어미를 가급적 자르지 않고 '문장답게' 표현할 것이다. 25자 안에 정보를 될수록 많이 집어넣어야 하는 고충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르지 않을 것까지 모두 잘라 불구로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

3. 한자어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뉴스 자막에 한자어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한자어를 쓰면 긴 문장을 짧게 압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자어가 많으면 문장이 어려워지고 딱딱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검찰, 유병언 일가 은닉 재산 확인 계속 방침'보다는 '검찰, 유병언 일가가 숨긴 재산 계속 확인한다'가 훨씬 부드럽다. '은닉 재산'보다는 '숨긴 재산'이 더 쉽게 다가오는 것이다.

글을 쓸 때는 어려운 말보다 쉽고 익숙해진 말을 골라 써야 한다. 뉴스 자막도 마찬가지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자막 사고가 이른바 '언니 사건'이다. '언니 사건'이란 2010년 1월 KBS가 인도네시아 항공기 실종 사건을 보도하면서 '언니 100명 태운 여객기 실종'이란 자막을 내보낸 것을 말한다. 인도네시아의 줄임말 '인니'를 '언니'로 잘못 적어 버린 것이다.

[그림 1] 2010년 1월 KBS 뉴스 자막



‘인니’란 사실 방송 용어는 아니다. 신문 편집자들이 한정된 공간에 제목을 달기 위해 프랑스를 ‘불(佛)’, 이탈리아를 ‘이(伊)’로 적듯이, 인도네시아를 ‘인니(印尼)’, 말레이시아를 ‘말련(馬聯)’ 등으로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구세대 신문 편집자들이 쓰던 습관이고 요즘 편집자들은 잘 쓰지 않는다. ‘인니’, ‘말련’을 알아듣는 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뉴스 자막 작성자는 자수가 줄어드는 것에만 착안해서 보편성을 잃은 말을 쓰다 사고를 낸 것이다. 어찌면 이 사고는 선임 피디(PD)가 원고에 적어 준 ‘인니 100여 명 태운……’을 신세대 피디나 에이디(AD)가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언니 100여 명 태운……’으로 바뀌 적었을지도 모른다.

4. 주어야 주어야, 어디 갔느냐?

문장이란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성립된다. 이 두 기둥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식어와 피수식어, 목적어 등이 달라붙어 하나의 문장이 된다. 그래서 주어를 문장의 필수 성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생략해도 문제가 없을 때, 또는 생략하는 편이 더 나을 때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이런 기준은 일반적인 글을 쓸 때만 적용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뉴스 자막에서도 이런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25자로 함축되어 있을 뿐이지 자막도 엄연한 문장이기 때문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자막에서는 자수 제한 때문에 불필요하다 싶은 것을 함부로 잘라 버린다. 주어 없는 뉴스 자막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뉴스의 성격상 주어가 궁금할 때가 있다. 또 문장의 구성상 주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자막 작성자들은 앞뒤 살피지 않고 주어를 잘라 버리곤 한다. 특히 ‘사람들(인사) 코너’를 보면 그런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보자.

‘총리 비서실장에 이석우, 국무조정실 2차장에 조경규 내정’

지난 8월 8일 자 B방송의 뉴스 자막이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답답하다. 대체 누가 그들을 내정했다는 것인가? 뉴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총리 비서실장’이나 ‘국무조정실 차장’의 인사권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만일 독자의 이런 고충을 예측하는 자막 작성자라면 ‘박 대통령, 총리 비서실장에 이석우, 국무조정실 2차장에 조경규 내정’이라고 적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글

자 수가 넘쳐 도저히 안 된다면 차라리 ‘박 대통령’과 ‘내정’을 빼고 ‘총리 비서실장에 이석우, 국무조정실 2차장에 조경규’라고 하면 된다.

5. 긍정어보다 부정어를 앞세우면

‘박 대통령 지지율 46%…두 달 만에 부정평가 앞질러’

지난 8월 8일 자 D방송에서 내보낸 뉴스 자막이다. 이 자막을 보는 사람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는 것인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질렀다는 것인지 언뜻 보아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뉴스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후자인 것을 직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자로 볼 가능성이 많다.

만일 이것을 ‘박 대통령 지지율 46%……두 달 만에 긍정평가 많아져’처럼 부정어(부정평가)를 숨기고 긍정어(긍정평가)를 드러낸다면 어떻게 될까. 틀림없이 사람들은 0.1초 내에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이처럼 부정어보다 긍정어를 앞세우면 소통이 빨라지고 문장이 밝아진다. 이것은 단지 문장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인간사 모든 것이 다 그럴 것이다. 좀 긴 문장을 보자.

신문이 독자들의 신뢰를 잃어 온 데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 왜곡도 마다하지 않은 자의적 글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그도 모르는 않을 것이다.(《한겨레》, 2006년 12월 19일 자.)

이 문장은 대부분이 '아니다' 즉 부정어로 되어 있다. '신뢰를 잃다', '사실 왜곡', '마다하지 않은', '자의적 글', '적지 않은', '모르지는 않을'이 모두 부정어다. 더구나 '마다하지 않은', '적지 않은', '모르지는 않을'은 이중부정어다. 아마도 필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래서 그의 주장이 강하게 전달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부정어를 지나치게 많이 써 오히려 문장이 어려워지고 어두워졌다고 본다. 부정어는 한두 곳에 집중해야 효과가 있다.

6. 감정이 지나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제 방향을 약간 돌려 자막 작성자의 심리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뉴스 자막을 만드는 일은 꽤 재미있는 일에 속한다.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지만, 방송사 네트워크를 통해 세상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뉴스를 내 맘대로 골라 올린 것이 즉시 전파를 타는 것을 보면 매우 흥미진진하다. 그러나 이런 재미 때문에 자칫 편향성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내 귀는 가끔씩 근질거릴 것이다.

더 쉽게 말하자. 만일 내가 '박 대통령 지지율 46%... 두 달 만에 긍정평가 많아져'가 더 쉬운 표현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박 대통령 지지율 46%... 두 달 만에 부정평가 앞질러'란 자막을 내보냈다면, 사람들은 나에게 '편향성을 가진 자'라고 욕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자막 작성자들은 늘 글자로 마술을 부리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이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은 엄청난 사고로 귀착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명박 사건'을 돌이켜 보자.

[그림 2] 2008년 4월 MBC 뉴스 자막



‘이명박’ 사건이란 MBC가 2008년 4월 <뉴스24>를 방송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북한의 위협적 발언 때문에 북한과 협상하는 일 없다”라는 자막을 내보내 문제된 사건이다. 국가원수 이름을 ‘명’으로 적어 ‘명명’이 연상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점이였다. 같은 방송에서 다시 ‘이명박 대통령, “개방 통합 민영화로 금융산업 경쟁력 높이고…”란 자막을 내보내 버렸다. 두 오류를 합치면 ‘명명이가 으르렁대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그렇다고 자막 작성자가 일부러 오타를 내

정권에 항변했을 리는 없다고 본다. 지금이 일제 강점기도 아닌데 실익(實益)이 없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가지’를 걸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뉴스에서 연거푸 편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오타를 내보냄으로써 자막 작성자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오해를 받기에는 충분하다.

사실 내가 남의 방송사 사고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은 못 된다. 우리 자막 팀에서도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3일에 있었던 ‘안철수 귀화’ 사건이 그것이다.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 ‘안현수’(러시아 명 ‘빅토르 안’)를 ‘안철수’로 잘못 적어 ‘朴 대통령, 안철수 귀화 부조리 탓인지 되돌아 봐야란 큼지막한 자막을 내보내 버린 것이다. 정말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큐시트(방송 대본)에 계속 ‘안현수’가 ‘안철수’로 등장해 부조정실에 경고사인까지 했는데도, 순간적으로 ‘안현수’가 ‘안철수’로 나가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도국 여기저기에서 고함 소리가 들린다. “뭐야! 뭐야!! 내려 내려!!” 그러

[그림 3] 2014년 2월 TV 조선 뉴스 자막



나 이미 빛의 속도로 날아간 전파를 되돌릴 수는 없다. 이 정도 사고면 어김없이 포털에 구구한 해설이 곁들여진 사진들이 올라온다. 사내에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7. 자막 문장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다

이제 줄고를 정리할 차례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디스플레이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곳곳에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한 방송 경쟁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다. 사람들의 넘치는 정보 욕구가 방송 경쟁을 불러온 측면도 있다. 옛날 같으면 앵커가 읽는 뉴스 하나만으로 족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보면서 별도의 뉴스를 보기 원하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충족하기 위해 외국의 방송국에서는 자막을 두 줄로 내보 내기도 한다. 윗줄에는 일반 뉴스를, 아랫줄에는 경제 뉴스를 흘리는 식이다.

어쨌든 뉴스 자막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그런데도 자막에 대한 담론은 별로 없다. 방송사들이 공통으로 쓰는 자막 문장에 대한 지침도 없다. 내가 방송국에서 일하는 2년여 동안, 뉴스 자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국어 단체나 언론 단체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한 적도 없다. 모두가 무관심인 것이다. 이로 인해 국어가 망가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어미 단절로 인한 우리말의 명사화 경향’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 자막에 대한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체코 공화국 소수 민족의 언어 정책

— 집시·로마니족을 중심으로

김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체코·슬로바키아어과 명예교수

1. 서론

유럽의 십자로에 위치하면서 유럽의 심장, 중부 유럽의 선진 공업국으로 불리는 체코 공화국은 국토가 남한보다도 작은 나라다. 인구도 약 1,000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를 포함하여 슬라브 여러 나라 중 가장 일찍 슬라브 문자(文字)를 사용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여 9세기 중엽부터 지금까지 유럽 문화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공헌해 왔다. 14세기 체코 왕 카렐(Karel)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카렐 4세)로 선출되면서 체코의 고대 시기인 중세 문화는 융성기를 맞이한다. 카렐 4세는 중부·동부 유럽에서 최초로 1348년에 프라하에 카렐대학교(Charles University)를 세웠다. 그리하여 프라하는 당시 독일과 슬라브권의 학문적 중심지가 된다. 이때부터 프라하에 고딕과 바로크 양식 건축물이 세워졌고 후일 괴테에 의해 ‘황금의 도시’로 칭송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릴케, 카프카와 막스 브로트의 도시이기도 하다.

드보르자크, 스메타나, 야나체크 등의 음악, 알폰스 무하의 아르누보 양식의 그림, 코메니우스의 교육학과 신학, 얀 후스의 종교개혁, T.G.

마사리크의 민주주의 정치사상, 카렐 차페크의 철학 소설 및 공상 과학 희곡, 1980년대 한국 및 세계 문단을 휩쓴 밀란 쿤데라의 실험 소설, 그 외 고도의 기계 산업, 유기화학 공업, 맥주 산업, 인간 기관차라 불린 마라토너 자토펜크, 훌륭한 테니스 선수 나브라틸로바 등 체코인들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 낸 업적은 세계사에서 주목할 만하다.

1989년 말 동유럽 제국(諸國)의 자유화 과정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무너뜨린 ‘벨벳혁명’을 이룩하며 가장 모범을 보인 체코슬로바키아는 1990년 3월 한국과도 국교를 맺고 문화, 경제 등 활발한 교류를 해 우리나라에도 친근한 나라가 되었다.

이제 체코는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로서 금단과 미지의 나라가 아니다. 체코는 우리와 대등한 국제 관계를 맺고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각종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그런 나라이다. 1988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체코어과가 창설되어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체코어가 미국, 유럽 여러 나라와 한국에서도 교습되고 있다는 사실은 체코어가 문명 국가의 언어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체코어는 인도·유럽어의 큰 줄기인 슬라브 언어권에서도 서 슬라브어 중의 하나다. 슬라브어권은 서 슬라브어, 동 슬라브어, 남 슬라브어 등으로 구분된다. 서 슬라브어로는 체코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등이 있고, 동 슬라브어로는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 등이 있고, 남 슬라브어로는 불가리아어와 구유고슬라비아에 속했던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마케도니아어, 슬로베니아어 등이 있다. 인구 면에서 체코어는 체코 내에 1,000만여 명과 유럽 미주 등지의 수백 만 명만이 사용하는 세계 소수 민족어의 하나다. 특히 체코인들은 19~20세기 남북 미주 대륙으로 많이 이민을 갔고, 20세기 1, 2차 세계 대전이나 정치적 변동에 의해 형성된 국외 즉 루마니아, 세르비아, 헝가리와 폴

란드 등의 넓은 지역이나 조그마한 마을에서도 체코어를 구사하는 체코인들이 살고 있다. 특히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으며, 현재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도 상당수의 체코인들이 살고 있다.¹⁾

유럽의 한 중앙에 위치하면서 동서로 길게 뻗은 체코는 서부의 보헤미아, 남부의 모라비아, 북동부의 실레지아로 구성되며, 그들은 모두 약간의 사투리가 있기는 하나 체코어를 사용한다.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1918~1992)은 다민족 국가였으나 이에 비해 1993년 분리 독립한 체코 공화국은 거의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다. 2001년도 인구조사 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체코 공화국 인구 약 1,050만 명 중 오직 9.9%만이 소수 민족으로 등록하였다. 여기에는 모라비아인과 실레지아인 39만 2,524명(전체 인구의 3.8%)이 포함된 숫자다. 여기에는 폴란드어, 독일어, 집시(로마니)어,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아랍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민족들도 있다.

소수 민족의 대표자들은 총조사 준비에 적극 참여하였고, 정기적인 소수 민족어 잡지 출판 상황도 신고하는 등, 총조사를 하는 요원들에게 적극 동참하였다. 하지만 폴란드 소수 민족 대표자들은 정부와 미디어가 간행하는 잡지 《소수민족어》에서 공식적인 정보 부족을 비판하였다.

체코 공화국에서 사실 비체코인들 중 가장 많은 수는 앞서 언급한 모

1) 자세한 것은 J. 네크바필과 J. V. 네우스투프니, “체코 공화국의 언어정책”, 《언어계획의 현재쟁점》, Jiri Nekvapil & J. V. Neustupný, “Language Management in the Czech Republic” in *CURRENT ISSUES IN LANGUAGE PLANNING*, Vol.4, No.3 & 4, 2003, p. 184 참조.

라비아인과 실레지아인이다. 그들은 실제 소수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언어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체코인에 가깝다. 이 모라비아인과 실레지아인의 소수 민족 정체성 문제는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 정권의 변혁기에 이 두 민족의 정치적 지도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²⁾ 그러나 현재는 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1991년 이래 소수 민족의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 민족의 언어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체코 정부도 소수 민족 보호 협정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소수 민족의 문화 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에도 복합 문화 교육의 수단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체코 공화국은 1995년 소수 민족 보호 협정서에 서명하였고 1997년 승인하였다.³⁾

체코 공화국은 2000년도 지방 언어 및 소수 민족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에 서명하여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소수 민족을 위한 언어 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체코 공화국 내에서 소수 언어 정책에 대한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여건들 때문에 확실하게 실행되고 있지는 않다.

2) 자세한 것은 카롤린 츠빌링, 2004, “체코 공화국에서 소수민족보호와 언어정책”, Carolin Zwillig, “Minority Protection and Language Policy in the Czech Republic” in <https://www.idmarch.org/document/%20/xsC> 참조

3) 소수민족 보호 협정서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논문 참조. K. 갈-제미에, “중부, 동부유럽에서 소수민족보호와 그 영향을 위한 구성협약”, K Gál - JEMIE, “The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and Its Impact o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 <http://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jemie2000&div=5&id=&page=>

2. 체코 공화국의 언어 정책

체코어는 19세기 초 민족주의 기운 속에서 부활하기 시작하여 20세기 초 독립하기까지 문어가 발달하여 왔고 체코 지식인들은 언어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체코어는 현재 약 1,000만 명이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언어다. 체코어는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체코 민족이 독립국을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명맥을 유지해 온 문명화한 언어다. 유럽에서 아주 잘 발달된 공업 국가의 언어이다. 이 언어는 노동자부터 지식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사용하고 교육과 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체코어는 이웃 나라 독일의 영향을 받아 왔지만 아주 독립적으로 발달한 언어다. 그렇다고 아주 강한 언어의 순수주의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우크라이나어가 러시아어에 크게 영향받고 있고 서로 달갑지 않은 관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체코어는 그런 면 없이 독립적이다.

체코에서 공식적으로 각 민족이 모국어로 교육받을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소수 민족의 언어로 가르치는 특별 학교가 존재한다. 둘째, 체코어는 필수이고, 소수 민족어는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수 민족어로 가르치는 특별반들이 있다.

체코 인구는 약 1,023만 60명 중 체코어 사용이 약 95~96%이고 나머지는 소수 민족어를 사용한다.⁴⁾ 체코 공화국에서 소수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현황은 다음과 같다.⁵⁾

4) 체코 통계청에 의하면 2001년도 체코 공화국의 인구는 10,230,060명이고 2012년 12월 31일의 통계는 10,516,125명이다.

5) 소수민족보호와 그 영향을 위한 구성협약 제25조 1절에 따라서 체코 공화국이 제출한

[표 1] 2001년도 체코 공화국 인구 통계표

민족	인구수(명)	비율(%)
전체 인구	10,230,060	100.0
체코인	9,249,777	90.4
모라비아인	380,474	3.7
실레지아인	10,878	0.1
슬로바키아인	193,190	1.9
폴란드인	51,968	0.5
독일인	39,106	0.4
집시인(로마니인)	11,746	0.1
헝가리인	14,672	0.1
우크라이나인	22,112	0.2
러시아인	12,369	0.1
루테니아인	1,106	0.0
불가리아인	4,363	0.0
루마니아인	1,238	0.0
그리스인	3,219	0.0
베트남인	17,462	0.2
알바니아인	690	0.0
크로아티아인	1,585	0.0
세르비아인	1,801	0.0
기타	39,477	0.4
불확정인	172,827	1.7

2001년도 인구조사 결과, Results of the 2001 census (situation on 1 March 2001), taken from the Second Report submitted by the Czech Republic pursuant to article 25, paragraph 1 of th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2004), articles 136~141.

[표 2] 모국어 숫자(2001)

모국어	인구수(명)	비율(%)
체코어	9,707,397	94.9
슬로바키아어	208,723	2.0
집시어(로마니아어)	23,211	0.2
폴란드어	50,738	0.5
독일어	41,328	0.4
영어	3,791	0.0
러시아어	18,746	0.2
기타	99,258	1.0
불확실한어	76,868	0.7
합계	10,230,060	100.0

[표 3] 두 개 모국어(2001)

모국어	인구수	퍼센트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	14,109	0.1
체코어와 집시어(로마니아어)	12,970	0.1
체코어와 폴란드어	2,552	0.0
체코어와 독일어	11,061	0.1
체코어와 영어	733	0.0
체코어와 러시아어	670	0.0
체코어와 기타어	4,074	0.0
다른 조합	3,240	0.0
합계	49,409	0.5

체코 공화국의 시민들은 그들이 체코인이건 소수 민족이건 기본권과 자유권의 헌장⁶⁾에 따라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만일 그들이 일상 생활에서 통역이 필요할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의 경우, 통역자를 사용할 권한은 보장하지만 그 비용은 변제되지 않는다.

정부의 선전용 전단이나 다른 출판물은 소비자보호법(Act on Consumer Protection)에 따라 체코어로 출판해야 한다. 체코어에 관한 책임자와 표준어 편찬자는 체코 공화국 과학 아카데미 체코어 연구원이다.

체코 공화국에서 체코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슬로바키아어다.

헌법25조는 소수 민족어의 교육을 제공하고, 소수 민족 법은 중등학교를 통해 보육원 수준의 소수 민족 언어를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교육청소년체육부는 2001년 체코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을 포함하여 폴란드, 독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소수 민족들로 구성된 소수 민족의 업무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자문 그룹을 설립했다.

현재 주 교육 시스템에 의한 소수 민족 언어의 교육은 각 소재지에 일정 수의 사람이 있는 소수 민족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권리는 현재 폴란드의 아동들만이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폴란드 소수 민족은 카르비나(Karvina)와 프리데크-미스테크(Frydek-Mistek) 지역의 폴란드인들에게 폴란드어만을 가르치는 유치원, 초

6) 자세한 것은 다음 글 참조: 아구스틴 호세 메넨데스, “유럽헌장 만들기: 유럽의 기본권헌장의 법정지위와 정책영향”, Agustín José Menéndez, “Chartering Europe: Legal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JCM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ume 40, Issue 3, pages 471~490, September 2002.

등학교, 문법학교와 중등학교를 포함한 학교 네트워크를 배치했다.

반면에 불가리아인, 크로아티아인, 루테니아인, 러시아인, 그리스인, 우크라이나인 소수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소수 민족들의 경우에는 어느 한곳에 집중해서 살고 있지 않고 체코 공화국 여기저기에 분산 거주하고 있어 민족어 학교를 설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폴란드, 독일 그리고 집시 소수 민족들의 교육을 지원하지만 다른 소수 민족들은 사교육 형태의 추가적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로만 교육받을 수 있다. 독일 소수 민족의 대표자들은 독일 학교 설립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인식한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독일 소수 민족 대표자들 중 일부가 독일어의 특수성을 유지하고자 이중 언어 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왔다.

2.1. 소수 민족 집시의 상황과 언어 정책

체코 공화국에서 언어 정책과 소수민족보호법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집시 문제다. 그러므로 체코의 언어 정책을 다룰 때 집시 소수 민족 문제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다. 집시(Gypsy, 집시 말로 로마니(Romani))는 체코 공화국에 사는 소수 민족이다. 그들은 언어, 생김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 경제 및 문화적인 특징에서 그들이 속한 사회의 절대 다수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들은 똑같은 혈통이 아니지만 같은 민족 집단이다.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사투리, 전통적인 직업, 생활 방식이 서로 다르다. 체코 공화국의 집시 인구 삼분의 일 정도는 대다수 국민들과 잘 어울려 살고 있다. 집시의 또 다른 삼분의 일은 주류 사회에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나머지 집시의 삼분의 일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떠돌이 생활을 유지한다. 이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간주되고 높은 범죄율을 가지고 있는 분파로 간주된다.

낮은 사회생활 수준, 낮은 취업률, 높은 범죄율이 집시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차별에 직면하고 스킨헤드 같은 극단적인 집단들의 인종차별주의에 자주 직면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체코 집시들은 유랑하지 않고 오랜 세기 동안 특정한 장소에 정착하여 왔다. 이들은 2차 대전 기간 동안 나치에게 대부분 희생당하였다. 아주 적은 숫자의 체코 집시들과 독일계 집시들(Sinti)이 살아남았다. 전쟁 후와 공산주의 시대에 집시들은 대부분 슬로바키아에서 체코 땅으로 이주했다. 이 새로운 정착 정책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았으나 공산주의 정부는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체코 땅에서 집시에 대한 인종 차별의 역사는 길다. 전쟁 기간에 가장 참혹한 인종 차별을 받았다. 나치 전쟁 동안 독일인들은 이렇게 분류하였다. “다른 하등 인종들은 집시들과 슬라브인들이다. 집시는 검은 모습에 지적으로 제한적이고 도적질과 살인의 경향을 타고 났다. 나치는 슬라브족을 보통 사람(Menschen, 멘셴)보다 덜 발달된 사람들(Untermenschen)이라고 불렀다. 심지어 나치는 집시와 유대인을 살 가치가 없다(lebensunwert)고 불렀다. 2차 대전 중 50만여 명의 집시와 300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희생되었다.”⁷⁾

2.2. 집시 문화의 특징

전통적으로 집시들의 가장 보편적인 예술 형식은 음악, 춤, 수공예품

7) 오우르제드니크, 파트리크, 이십세기 간략사, Ouredník, Patrik, *A Brief History of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Dalkey Archive Press 2006, 103~104.

등 예술 분야이다. 오늘날 도시 아파트에 사는 집시들은 예술적인 생활에 능동적이지 않다. 전통적으로 집시들은 일상생활과 예술적 표현에서 매우 자발적이었다. 이러한 특징이 집시들의 아주 유별난 예술적 성공 이유 중 하나다. 음악, 춤 그리고 노래는 언제나 깊은 내적인 경험에서 유래한다.

집시에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자. 집시를 지칭하는 새로운 명칭인 롬(Rom), 로마(Roma) 또는 집시(Romani, 로마니)는 1960년대에 하나의 소수 민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 이후 1991년에 와서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롬’이란 단어는 체코어로 남성과 집시족, 집시 사람들이고 여성은 롬카(Romka)이다. 유럽에서 원래 ‘롬’이란 명칭은 1990년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4차 국제집시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어원적으로 ‘집시’는 힌두어 ‘돔바(Domba)’ 또는 ‘도마(Doma)’와 관련이 있다. 이는 인도의 카스트에서 가장 낮은 천민 계급인 파리아(Pariah)를 뜻한다.

체코 역사에서 집시에 대해 별시의 의미를 띠고 있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체코어는 ‘치간(Cigán)’ 또는 ‘치칸(Cikán)’ 여성은 치칸카(Cikánka)이며 영어로 ‘집시(Gypsy)’이다. 모든 떠돌이들과 유목민들을 지칭하는 ‘집시’는 오늘날 경멸적이라고 해서 체코나 유럽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영어로 Gypsies(집시), 프랑스어로 Gitanes(지타네) 또는 Tsiganes(치가네), 스페인어로 Gitanos(히타노스), 독일어로 Zigeuner(지고이너), 이탈리아어로 Zingari(징가리), 헝가리어로 Ciganyok(치가노크), 러시아어로 tsiganay(치가나이) 그리고 그리스어로 Gyftoi(지프토이)는 모두 이 전설에서 유래되었다.⁸⁾ 또는 9세기 콘스탄티노폴리스(현재

8) 다비도바, 에바, 세대차이: 20세기 1950~1980년대 전후 이민과 강제적인 병합으로 인한

터키의 이스탄불)로부터 유럽으로 온 떠돌이 음악인들과 예술가들을 ‘아치그나테스(Atsignates)’라고 불렀다. 이는 나중에 위에서 언급한 유럽의 여러 말로 불리게 되었다. 인도에서 유래한 집시는 유럽에서 집시(Romani), 신티(Sinti) 그리고 칼레아(Kalea)로 분류한다.

집시는 누구인가? 그들은 인도-유럽어족이다. 아마도 가장 최근의 인도-유럽어인일 것이다. 유럽에서 그들의 역사는 1,000여 년이다. 그들은 인종학상의 모습과 특별한 행동으로 구별이 된다. 집시의 인종학적 특징은 그들의 같은 혈통, 관례와 전통 제도, 내적인 법률과 기준, 가치 제도와 유목민적인 행동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들의 행동은 역사를 통해 형성되었고, 물질적·정신적 가치가 복합된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음악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주류에 의한 동화(同化) 압력으로 그들의 문화가 바뀌어 왔기 때문이다. 여러 세기에 걸쳐 여러 번 강제적인 문화 동화 시도에 의해 집시 문화가 파괴되어 왔고 나치는 그들을 육체적으로 박멸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의 문화는 오랫동안 독립적인 문화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역사적으로 집시들은 그들이 맞닥뜨리는 문화에 영향을 끼쳤지만 대개 인정받지 못한 채 지나갔고, 오직 그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때만 예외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들은 종종 역사가 없는 사람들로 취급받았다. 그

지난 반세기동안 로마니의 2세대의 상실에 대하여, Davidova, Eva, “MEZIGENERAČNÍ ZMĚNA: KE ZTRÁTĚ DVOU GENERACÍ ROMŮ V UPLYNULÉM PŮLSTOLETÍ (v DŮSLEDKU POVÁLEČNÉ MIGRACE A ASIMILAČNÍCH TLAKŮ V 50.-80. LETECH 20. STOLETÍ)” in Jakoubek, Marek a Budilová Lenka, Cikánskéskupiny a jejich sociálníorganizace, Centrum pro studium demokracie a kultury, 2009, p.240.

러나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들의 문화가 그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⁹⁾

2.3. 집시 교육의 문제점

체코에서 소수 민족 교육 문제 중 집시의 교육 문제 해결은 매우 복잡하다. 집시 교육 문제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조절해 해결할 수 없다. 짧은 기간의 프로그램은 원하는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구어체 언어가 집시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집시들은 집시의 다양한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문화는 그들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

체코 집시들은 주로 4개의 사투리를 사용한다. 집시들 중 75%는 체코어를 사용할 줄 안다. 집시 언어(Romaniny, romšтина)의 표준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대개 집시들은 2~3개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안

9) 물론 집시들의 민속 음악, 전래 이야기와 춤이 러시아, 스코틀랜드, 스페인,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지의 민속 음악, 전래 이야기와 춤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집시들은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심정들을 음악으로 분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순수하게 오락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반드시 그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에 반하여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가조스르(Gadjos: 로마니들이 자기 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시를 부르는 말) 즐겁게 해주고 보수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집시들은 의외로 바이올린, 기타 등의 악기다운 악기를 일체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지금도 농촌에서 방랑하는 집시들 중 일부는 악기 없이, 그러니까 반주도 없이 집시 본래의 언어(로마니)로 단선율의 노래를 부른다. 가사에는 의미 없는 음절이 많이 사용되고 악기 대신에 입, 손, 발을 사용하여 내는 각종 음을 반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도시에 사는 집시는 독자적인 언어를 상실하고 바이올린, 첼발룸, 클라리넷 등의 서양 악기를 쓰며 노래나 기악도 거의 가조스의 기호에 맞추어서 연주한다. 대개는 레스토랑이나 술집에서 악사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다. 헝가리의 집시 연주단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http://www.lightearth.net/228614>(검색일: 2012.6.10.)

다. 고등 교육을 받은 집시나 내적 통합에 도달한 집시들은 체코어를 선호한다. 체코어는 집시 국제 정치 토론, 학술 대회와 미디어에서 사용된다.

체코 집시의 2/3는 집시어를 구사한다. 2001년 통계에서 1만 2,967명이 체코어와 집시어를 모국어라고 선언했다. 이 숫자는 집시 민족이라고 주장한 숫자(1만 1,859명)보다 많다. 물론 이 통계에 응하지 않는 집시도 많다.

대개 사람들이 중부, 동부 유럽에서 집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음악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집시 저술의 수준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다. 집시 문학은 아직 역사가 짧다. 이는 첫 집시 동맹이 결성된 1969~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집시 소수 집단은 체코 공화국의 국가 소수 집단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외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1993년 헌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국가의 소수 집단으로 인정받았다. 비록 집시 민족이 마지막 인구조사에서 1만 1,716명으로 집계되었지만, 이 데이터가 체코 공화국에 사는 집시의 '진짜'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대체로 그들의 인구 숫자는 15만에서 20만 명 사이를 오간다. 그 숫자에서 2만 명은 블락스로마(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루마니아, 알바니아와 헝가리의 집시 방언을 쓰는 사람)인데 이들의 문화와 언어는 다른 체코에 사는 집시와는 상당히 다르다.

체코 집시의 95퍼센트 이상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슬로바키아에서 체코 공화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이민자들의 후손이다. 나치와 파시즘이 득세했던 기간에 집시에 대한 박해와 혐오감을 바탕으로 한 일상 차별의 경험은 집시들에게 영원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집시들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불평등하게 가난, 실업, 인종 간의 폭력, 차별, 문맹과

병마로 고통 받고 있다. 1997년, 집시 사회를 위한 각부 장관들의 위원회 ‘어페이어 29(Affair 29)’가 소수 집시 집단에 닥친 문제들을 다루는 자문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특히 소수 민족을 주류 사회로 통합시켜 그 수를 점차 늘리는 것과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수 집시 집단에 대하여 알리는 것이다.

2000년 6월, 체코 정부는 집시 집단을 위한 정책 “집시 통합을 위한 개념(Concept for Roma Integration)”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국가 예산으로 자금이 마련된 것이었으며, 2002년에 최신 것으로 다시 한 번 개정되었다. 미래를 위한 주요 우선순위는 단지 차별 금지 조치와 집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육, 취업, 사회, 건강 관리와 주택 공급에서도 긍정적인 행동안을 포함했다. 비록 2002년 취업을 위한 국가 계획과 노동 시장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한 다수 집단의 장기 실업에 대한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들이 집시들의 상황을 약간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광범위하게 퍼진 차별은 지속되었다.

집시의 권익을 위한 매스컴의 편성 계획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체코 라디오에서 매주 방송되는 한 시간 가량의 라디오 방송과 문화부에서 자금을 댄 네 개의 집시 대상 정기 간행물들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가장 문제점이 많은 영역은 여전히 교육 제도이다. 집시들의 75%에서 85%는 ‘주류’ 학교 시스템에서 그들의 교육을 완수하지 못했다. 집시 학생들의 대다수는 학교를 중퇴하거나 지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 학교에 보내진다. 이런 학교는 더 낮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학습 진척도는 아주 느리다. 이러한 제도는 특수학교 학생들을 방치하는 절망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체코 정부는 집시 어린이들의 교육을 다루는 일련의 제도들을 승인하였다. 집시 어린이들을 특수학교로 격리시키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

게 여기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체코 정부는 위에 언급된 집시들을 위한 정책들을 승인하였다. 집시들의 낮은 교육 수준과 몇몇 고용자들이 지역 노동 사무실에 공고한 일자리에 집시 지원자들을 받지 말라고 부탁할 정도로 집시를 고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실 등에 기인하여 집시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집시는 주택 공급에서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출입과 같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차별에 직면해 있다. 더 나아가 사회에서 집시에 대한 학대는 지속되고 있고, 관계 당국은 그런 범죄자들을 조사하고도 기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체코 공화국에서 민족 간 불평등을 감시할 특별한 독립적 기구는 없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옴부즈맨 사무실은 민족 간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이다. 몇몇 기구들은 집시와 다른 소수 민족 이슈들에 대해 정부 자문 기능을 이행한다. 몇몇 시민 사회 단체들은 집시의 권리를 대신하여 노력하고 있다.

3. 소수 민족 언어의 교육 상황

3.1. 집시어(로마니어) 교육

체코 공화국에서 집시들의 상황은 매우 체코사회에서 호의적이지 않다. 비록 1998년 이후 제11학년 중학생들에게 집시어를 교습하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집시어를 공식 언어로 가르치는 학교는 없다.

언어 장벽(집시 아이들은 대부분 집시어만을 사용한다)과 다른 사회적 기준 때문에 많은 집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특별 교정 학교에 보낸다. 체코 공화국의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시 어린이를 위해 집시어로 가르치는 특별 학급을 조직한다. 유로모자이

크 보고서에 의하면 체코 공화국은 2000/2001학년도에 110개가 넘는 특별 집시어 교실을 운영하여 1,364명의 집시 아이들을 교육했다. 그리고 2002/2003학년도에는 116개의 교실에서 1,489명의 집시 학생들을 가르쳤다. 비록 집시어가 중·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정해진 곳이 있지만 체코 공화국 전체에서 집시어로만 가르치는 학교는 사실상 없다.

소수 민족 보호 협정서¹⁰⁾에 따른 체코 공화국의 제1차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 집시 아이들의 언어는 집시어다. “그들은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체코식 집시어 사투리를 사용한다.”¹¹⁾

그러나 2004년도 제2차 보고서에 의하면, “집시 어린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 중 하나는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대부분 학교에도 집시 아이들이 출석하는데 그 집시 아이들은 체코어로 가르치는 교사들과 소통의 어려움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체코어로 가르치는 교사들과 소통의 어려움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 학교에서

10)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구성협약(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11) 필자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자유화되고 나서 1990년 첫 여름에 프라하에 가서 거리에서 이상한 민족의 여인 네 명을 만났다. 그들은 나와는 체코어 사투리를 사용하고 자기들 끼리는 라틴어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았다. 나로서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라틴계 말처럼 된소리가 많았다. 그래서 물어보니 롬(Rom)말을 한다고 한다. 내가 로마말 하느냐고 하니,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이탈리아계 떠돌이 민족인 줄 알았다. 그들은 꽤나 친절하였고 길을 물었더니 잘 가르쳐 주었다. 시간이 가면 자기들 거주지에 한번 들려 달라고 했다. 나중에 체코 교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말하는 롬말은 로마-이탈리아어가 아니고 바로 집시어(로마니어)라고 하면서 은근히 관광객을 유혹하는 여인들이라고 한다. 나중에 체코와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루마니아 등지에서 자주 만난 비슷한 민족이 바로 집시족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 중 상당수는 구걸도 하고 유혹도 하지만 아주 부유한 집시들은 자기들을 로마니(집시) 왕족이라 하며 친절하면서도 자랑하고 으스대는 태도를 볼 수 있었다. 관광객들이 집시에게 지갑을 도난당하는 보도가 자주 나서 경계하기는 했지만, 그날 길에서 만난 집시 족에 대한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는 대부분 체코어-슬로바키아어를 사용하는데 집시어는 1학년 수준의 보조 언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속되는 자발적인 문화적·언어적 흡수 동화는 특히 어린 집시 세대들부터 고유한 집시 문화적 전통, 민속과 언어 상실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예컨대 1999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 집시 어린이들은 ‘체코식 집시어’를 말하였는데, 2004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그들이 ‘체코어-슬로바키아어식 집시어’를 말하였다고 한다. 이는 놀라운 현상이며 언어의 흡수·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집시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에서 자주 학업을 멈추어 버리는 집시 어린이들의 현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체코 정부는 소위 ‘말하는 집시 교육 보조교사’들을 집시 지역 사회에 채용한다. 이러한 특수 교사들은 집시 어린이들이 공부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와 집시 학부모들과의 소통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2보고서에 따르면 집시 소수 민족을 위한 개별적인 학교 제도는 필요치 않다고 한다. 그러나 1998년도 라이코주 리박사재단(Doctor Rajko Djuri Foundation)에 의해서 집시 중·고등학교(Romská střední škola sociální)가 콜린(Kolín) 시에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3.2. 독일어 교육

체코 공화국에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는 역사적으로 독일이다. 독일인들은 체코 역사 내내 많은 수가 이민을 왔고 체코 땅에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 왔다. 또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체코는 오랫동안 독일어권인 오스트리아의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 문화적으로, 언어적

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1910년도 체코 영토 내에 독일인 숫자는 349만 2,362명이었다. 이 시대가 체코 역사상 가장 많은 독일어 사용 인구다. 그러나 1991년도에는 4만 8,556명, 2001년도에는 3만 9,106명으로 감소하였다.

현재 체코 공화국에서 소수 민족어로서 독일어 교육의 기회는 많지 않다. 독일인들은 제2차 세계 대전 때만 해도 300만 명 이상이 오늘날 체코 서북부 지방인 수데텐 지역에서 살았으나 패전의 책임으로 체코 슬로바키아 공산 정권에 의해 대부분 추방당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공산 정권은 독일어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켰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러시아어를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1989년 말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¹²⁾

1995년 이후 프라하에서는 체코어-독일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중·고등학교를 장려했다. 프라하와 중부 보헤미아 지방 독일인 협회에 의해서 최초의 토마스만고등학교(První gymnásium Thomase Manna)가 설립되었다. 독일어, 독일 역사, 문학을 이 학교에서 가르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의 일부분이 독일어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 학교는 독일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이 준비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 학교는 1995년도에 114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 대부분의 모국어는 체코어이다. 이 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지만 체코 정부와 독일의 지원을 받는다. 체코는 대부분 고등학교가 공립이라 학비가 없지만 이 학교는 학비를 내야 한다. 그러나 그리 비싼 편은 아니다.

12) J. 네크바필과 J. V. 네우스투프니, “체코 공화국의 언어정책”, 《언어계획의 현재쟁점》, Jiri Nekvapil & J. V. Neustupný, “Language Management in the Czech Republic” in *CURRENT ISSUES IN LANGUAGE PLANNING*, Vol.4, No. 3 & 4, 2003, p. 183 참조

1997년 베르나르드볼자노초등학교(Bernard Bolzano Primary School)가 타보르(Tabor) 시에 설립되었다. 이 학교도 체코어-독일어 학교이다. 또 프라하에는 사립 독일어-체코어 이해를 위한 초등학교(Soukromá ZŠ německo-českého porozumění)가 있다. 이 학교는 프라하와 중부 보헤미아 지방 독일인 협회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독일인, 체코인, 슬로바키아인, 폴란드인, 세르비아인, 중국인, 러시아인, 베트남인, 우크라이나인 등으로 학생들 구성이 다양하다. 독일어는 1학년 과정부터 선택 과목이다. 독일 정부가 재정 지원은 물론이요, 교과서와 교사들을 지원한다. 또한 체코 교육부가 프라하와 리베레츠(Liberec) 시에 체코어-독일어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독일어 교육기관 설립도 한계가 있다. 손자들과 독일어를 말하던 대부분 늙은 세대는 저 세상으로 갔다. 현재는 독일어를 하는 학생들이 체코 전역에 소수로 흩어져 살기 때문에 지역마다 독일어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체코 학교에서 독일어 과목을 선택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프라하 체코 국립 카를대학교를 비롯하여 체코의 여러 대학에서도 독일어를 배울 수 있다.

3.3. 폴란드어 교육

2001년도 폴란드 국경 지방 체코 공화국에서 체코인들과 함께 사는 폴란드인들은 5만 1,968명으로 등록되었다. 체코 공화국에서 폴란드인들의 상황은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좀 나은 편이다. 사실 폴란드 소수 민족은 체코 공화국의 소수 민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소수 민족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체코와 폴란드 국경 지역, 즉 프리데크-미스테크(Frydek-Mistek)와 카르비나(Karvina)에서는 그 지방 인구의 8% 이상이 폴란드 소수 민

족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까지 폴란드어로 가르치는 교육 제도가 있다. 체스키 테신(Český těšín)에 소재한 폴란드 교육 센터는 교과서 출판과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출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 센터는 체코 교육청소년체육부에서 설립하였다.

2004년도 소수 민족 보호 협약에 의하면 4,000여 명의 폴란드어 학생들이 등록하였다. 그중 유치원 700여 명, 초등학생 2,300명, 고등학생이 500여 명이다. 또 체코어-폴란드어 이중 언어를 배우는 고등학생들이 약 340여 명 있다. 이들 중 초등학교는 대부분 폴란드어로 수업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오스트라바대학교에서는 폴란드 소수 민족 교육 제도에 의해 고용된 교수들이 폴란드어를 가르친다. 또한 1990년도에 오스트라바대학교에는 체코 공화국의 폴란드민족연구과가 설립되었다.

3.4. 슬로바키아어 교육

체코 동쪽에는 슬로바키아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두 민족 간의 국경은 자주 변해 왔다. 두 영토는 처음으로 1918년부터 1939년까지 합쳐졌다가 다시 1945년부터 1992년까지 합쳐졌다. 이러한 역사적 국경 문제로 체코 공화국에는 약 19만 3,190여 명의 슬로바키아인들이 살고 있다.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 두 언어는 서슬라브 어족에 속하는 언어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85~90% 정도가 언어적으로 유사하다. 이 두 언어는 지리적, 지정학적으로 분리되고 이웃 나라 언어로부터 받는 영향도 다르지만 체코어는 독일어의 영향을 받았고, 슬로바키아어는 헝가리어의 영향을 받았다. 1918년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들이 한 국가를 형성해 온 이후(1993년까지) 이 두 언어는 대중매체와 인

구 이동 등으로 상호 접촉이 강화되어 왔다. 물론 어휘가 완전히 다른 것도 있지만 대체로 어휘 면에서 유사성이 아주 높고, 이러한 유형의 단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부분 두 언어의 단어에서 음성적, 형태적 차이가 다소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 언어 사이에는 문학 작품을 서로 번역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만큼 문학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슬로바키아는 헝가리의 일부였으므로 공용어는 라틴어와 헝가리어였으나, 프로테스탄트 예배식에서는 크랄리체 성경판 체코어를 계속 사용했다. 안톤 베르놀라크(Anton Bernolák)가 첫 슬로바키아어 법전 편찬을 시도했다. 그는 가톨릭 신부였고 서부 슬로바키아 사투리에 근거한 문법책을 발간했으며 여섯 권으로 된 그의 사전은 사후 출판되었다. 그러나 베르놀라크의 슬로바키아 문학어 사전은 널리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그다음으로 문학어 사전을 시도한 루도비트 쉬투르(L'udovít Štúr)의 중부 지방 슬로바키아어에 기반을 둔 1846년도 판은 즉각적인 호평을 받았다. 그 이후 형태론과 어휘론에 변화가 있었지만 현대 슬로바키아어는 쉬투르의 작품에 의존하고 있다.

쉬투르와 베르놀라크 이전에는 다수의 체코어 혼성어와 다양한 철자법이 관습에 따라 쓰이고 있고 지방 사투리가 슬로바키아어로 쓰였다. 최근에 이 사투리가 섞인 슬로바키아어 표준화 이전의 변형 형태들을 서부, 중부, 동부 슬로바키아 문화권이라 언급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독립적인 문어로서 슬로바키아어 창안과 성립으로 오히려 체코어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고, 공통 체코슬로바키아어를 사용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후자는 제1 공화국(1918~1938)의 언어적 신화로 존재했다.

1993년 독립을 이룩한 신생 유럽의 작은 나라 슬로바키아도 이처럼

민족어를 지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언어만 살아 있으면 우선 그 민족의 장래 희망은 보인다. 민족어의 유지 발전이 19세기 낭만주의 이후 유럽의 한 경향이였다.

체코 공화국 내에서 슬로바키아인들이 가장 많은 소수 민족 그룹을 형성하고 있지만 슬로바키아어를 공식 언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기술직업 전문학교가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1993년 1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가 분리되기 전까지 슬로바키아어는 학교 교과 과정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1993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오직 몇 개의 학교만 슬로바키아어를 계속 가르치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브르노 소재 마사리크대학교와 프라하의 카렐대학교에서만 이 슬로바키아어를 가르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몇 개의 초·중등학교에서 슬로바키아어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자 대부분 그만두었다. 실제로 유로모자이크 리포트¹³⁾에 의하면 대부분 슬로바키아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슬로바키아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통계가 지배적이다. 사실 여러 번 슬로바키아 어린이들을 위해 슬로바키아어 학교를 개설하려고 했지만 슬로바키아인들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많은 수의 슬로바키아인들이 프라하에 살고 있지만 슬로바키아어 학교는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아마 슬로바키아어와 체코어의 상당한 유사성 때문일 것이다. 즉, 슬로바키아어교육

13) 체코 공화국에서 슬로바키아인에 대한 유럽모자이크 리포트, Euromosaic report on Slovak in the Czech Republic에 대한 자세한 것은 [http://europa.eu.int-The Euromosaic study: German in the CzechRepublic\(2005](http://europa.eu.int-The Euromosaic study: German in the CzechRepublic(2005) 참조.

을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슬로바키아 어린이들은 체코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한 모국어인 슬로바키아어를 가정에서 잘 구사하기 때문이다.

3.5. 기타 소수 민족어

체코 공화국에는 알바니아인, 미국인, 아르메니아인, 불가리아인, 중국인, 크로아티아인, 헝가리인, 유대인, 루마니아인, 러시아인, 루테니아인, 우크라이나인, 세르비아인, 베트남인 등이 살고 있다. 물론 다른 극소수 민족 그룹도 존재한다.

다른 소수 민족 언어 학교는 그 수가 아주 적다. 프라하에는 페트르 베론학교(Petr Beron School)라는 불가리아어 학교가 있다. 이곳은 불가리아 대사관과 관련이 있고, 불가리아 교육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에도 다양한 체코어 교과목이 있다. 체코 내 몇몇 대학의 슬라브학과에서 불가리아어를 배울 수도 있다. 크로아티아어도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으나 크로아티아어 학교는 없다.

수많은 그리스인들의 본국 귀환으로 그리스어 학교가 줄어들고 있다. 2000/2001년도를 보면 몇몇 도시의 학교에서 그리스어를 가르쳤다. 당시 학생 수는 190여 명이었다.

1세기 넘는 기간 동안 대학 수준의 교육 기관에서 헝가리어를 가르쳐왔다. 프라하 카렐대학교에서는 헝가리 어문학을 공부할 수 있다.¹⁴⁾ 또한 체코 땅에 사는 헝가리인협회(Svaz Madaru žijících v českých zemích)는 헝가리인 가족의 아이들에게 헝가리어를 가르친다.

14) 필자가 2000~2001년도 카렐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기숙사 옆방에 사는 헝가리어 교수도 카렐대학교에서 헝가리어를 가르쳤다. 이처럼 체코 대학에서 헝가리어를 배울 수 있다.

체코 공화국에는 아직도 1만 8,746명의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다. 그 이유로 여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친다. 1948년부터 1989년까지 체코는 공산주의 체제였던 당시 소련의 위성국이어서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쳤으나, 1989년 체코 자유화 이후에는 러시아어보다 영어를 더 많이 가르치고 러시아어는 선택적으로 가르친다.

체코 공화국에는 루테니아어와 우크라이나어 교육 기관은 없다. 현재 리디나초등학교(Ridna Škola)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우크라이나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¹⁵⁾ 물론 체코 대학에서는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를 배울 수 있다.

4. 결론

체코 공화국 인구 약 일천 오만 명 중에서 오직 9.9%만이 소수 민족으로 등록하였다. 이것은 모라비아인과 실레시아인 39만 2,524명이 포함된 숫자다. 여기에는 소수 민족어로 폴란드어, 독일어, 집시(로마니아어,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아랍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민족들도 있다. 체코 공화국에서 소수 민족 중 집시의 교육 문제가 가장 복잡하다. 집시들은 집시의 다양한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는 그들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 특히 집시 민족들을

15)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체코에 가까워서 체코에는 우크라이나 노동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수 있다.

위한 독립된 교육 제도와 집시어의 통합 교육은 절실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많은 집시 어린이들이 언어 장벽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부분 집시 어린이들이 특수학교에 보내지고 있다. 이는 집시를 위해서는 정상적이고 주류 교육 제도에 편입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적인 문제이다.

체코 공화국에서 폴란드어만이 유일하게 고유한 교육 제도로 가르치고 있는 소수 민족어이다. 그 주된 이유는 폴란드인들이 체코-폴란드 국경 지역에 집단적으로 살고 있고, 다른 민족들은 체코 공화국 전역에 흩어져 살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인은 현재 체코 땅에 4만 1,328명이나 되지만 체코 전역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독일어 학교 설립이 쉽지 않다. 반면에 폴란드인들은 5만 738명 대부분이 몇몇 곳에 집중해 살기 때문에 학교 설립이 용이하다. 다른 소수 민족들도 최소한의 숫자가 집중해 살아야 그 소수 민족어 학교의 설립이 가능하다.

체코에서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슬로바키아인들의 학교가 없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다. 슬로바키아어 학교를 세우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몇 번 시도하였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이는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의 유사성 때문에 슬로바키아 부모들이 특별히 슬로바키아어를 아이들에게 따로 가르칠 필요성을 당장 느끼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국립국어원 소식

1.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다듬은 말 선정

1.1. '셰어 하우스' 대신 '공유 주택'

- '셰어 하우스(share house)'의 다듬은 말: '공유 주택'
- '골든타임(golden time)'의 다듬은 말: '황금 시간'
- '원데이 클래스(one day class)'의 다듬은 말: '일일 강좌'
- '디톡스(detox)'의 다듬은 말: '해독(요법)'

'셰어 하우스'는 '여러 사람이 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고 거실, 화장실, 욕실 등은 함께 사용하는 생활 방식으로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 주택'을 가리키며, '골든타임'은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 처치, 사고 발생 시 구출·구조, 화재 진압 등 사고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초기 시간을 일컫는다. '원데이 클래스'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되 쉽고 간단하게 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루 동안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좌'를 가리키며, '디톡스'는 '인체 내에 축적된 독성 물질의 작용을 없앤다는 개념의 해독 요법'을 말한다.

1.2. '싱크홀' 대신 '함몰구멍, 땅꺼짐'

- '싱크홀(sinkhole)'의 다듬은 말: '함몰구멍, 땅꺼짐'
- '캐노피(canopy)'의 다듬은 말: '덮지붕'
- '크로스핏(cross-fit)'의 다듬은 말: '고강도복합운동'
- '피티(P.T.)/퍼스널 트레이닝(Personal Training)'의 다듬은 말: '일대일맞춤운동'

‘싱크홀’은 ‘멀쩡하던 땅이 움푹 꺼져서 생긴 구멍 또는 그렇게 땅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가리키며, ‘캐노피’는 ‘벽체 없이 천, 섬유,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지붕’을 일컫는다. ‘크로스핏’은 여러 종목을 섞어서 하는 운동의 한 종류로서 ‘크로스 트레이닝’과 ‘피트니스’를 결합한 말이며, ‘피티(P.T.)/퍼스널 트레이닝’은 ‘운동 지도자가 강습생에게 1대 1로 운동 방법을 가르쳐 주고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국립국어원 원내 토론회

2.1. 2014년 제6회 원내 토론회 후기

- 주제: 일본 내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한국어 교육·연구상의 문제
- 발표자: 요시모토 하지메(일본 동해대)
- 일시: 2014년 7월 14일(월) 16:00~17:3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본 동해대 요시모토 하지메 교수가 ‘일본 내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한국어 교육·연구상의 문제’라는 주제로, 일본 관동 지방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한국어 교재, 띄어쓰기, 말뭉치 등 한국어 교육·연구상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우선 동경을 중심으로 한 일본 관동 지방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소개하였다. 동경외국어대학교, 메지로대학교, 간다외국어대학교 등에 한국어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동경대학교, 동해대학교 등에 선택(필수)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대부분 주당 2~3강좌가 진행되며, 수강

생은 20~30명 정도다. 제2외국어 중에서 한국어는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한 수강생 수의 감소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문화 수업과 한국어 입문 수업의 수강생은 많은 데 비하여 다음 단계까지 계속 이수하는 비율이 다른 언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어서 한국어 교육·연구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한국어 교재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수많은 한국어 교재들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 입문 및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중급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려면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를 이용하거나 교사가 스스로 교재를 작성해야 하는 실정이다. 중급 이상 한국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규범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띄어쓰기일 것이다. 여기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국어대사전〉을 가리킨다. 현행 어문 규범에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는 독자들이 읽기 쉽게 하고 오독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그러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말뭉치에 관한 내용이다. 일본어의 동사 ‘流れる’(흐르다)는 물과 같은 액체가 흐르는 사태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이 액체 위에 떠서 이동하는 사태도 나타내는 데 반하여, 대부분의 다른 언어에서 ‘流れる’에 해당하는 동사는 후자의 용법이 없다. 한국어의 경우 대부분의 국어사전에 그러한 의미와 용례가 실려 있으며, 말뭉치를 검색한 결과를 볼 때 적어도 현대 문어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된 표현으로 보인다. 단, 이와 같은 용법이 어색하다고 느끼는 모어 화자들의 직관도 무시할 수 없다.

말뭉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글자나 어형의 깨짐, 오·탈자, 띄어쓰기 오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전체 대비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요시모토 하지메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일본 내 한국어학과 개설 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 한국어 교원 현황, 다른 외국어 교육과의 비교, 한국어 교재의 오류, 띄어쓰기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앞으로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2.2. 2014년 제7회 원내 토론회 후기

- 주제: 디지털 세계에서 만나는 한국 문화
- 발표자: 김현(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일시: 2014년 7월 21일(월) 16:30~17:5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현 교수가 '디지털 세계에서 만나는 한국 문화'라는 주제로, 디지털 인문학의 정의와 과제, 디지털 시대 지식의 의미, 한국 문화 지식망 구축 방안, 디지털 한국학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디지털 인문학이란 정보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 및 교육과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을 말한다. 이는 전통적인 인문학의 주제를 계승하면서 연구 방법 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시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성격의 인문학 연구를 포함한다. 단순히 인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디지털 형태로 간행하는 것보다는 정보 기술의 환경에서 보다 창조적인 인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통함으로써 인문 지식의 재생산을 촉진하는 것이다.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인문 정보 시맨틱 웹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문 정보 시맨틱 웹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어진 인문 지식의 조각들을 그것의 관계성까지 고려한 디지털 텍스트로 전환하여 가상 세계에 옮겨 놓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지식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형태로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시각적 인문학을 추구하는 것이다. 시각적 인문학은 인문 지식을 전달하는 텍스트가 문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각적인 미디어를 통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 시대의 인문 지식 수요를 겨냥한 시각적 인문학은 전통적인 문자 텍스트와 뉴미디어상의 시각적 자료가 적정한 문맥으로 엮여 감성적인 멀티미디어 텍스트로 재탄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시대에서 지식의 의미는 과거와 다르다. 전통 시대의 지식은 독립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저작물이었으나, 디지털 시대의 지식은 다른 지식으로 가는 길을 담고 있는 소통의 교점으로 기능한다. 즉, 시맨틱 웹 시대의 지식망은 지식의 조각들이 다른 지식으로 가는 다양한 연결 고리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어서 한국 문화 지식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디지털 한국학 연구개발(R&D) 수행 기관에서 ‘한국 문화 지식망의 노드’ 역할을 하는 문맥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 편찬자, 고전 연구자, 공공기관 등은 문맥정보 식별자(URI)를 활용하여 역사 문화 지식 연계 데이터를 생산한다. 정보 서비스 포털, 정보 서비스 기술 전문가는 전통문화연구회

와 지식 콘텐츠 전문가들이 생산한 데이터가 실제적인 시맨틱 웹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기술적 환경을 제공한다.

끝으로 디지털 한국학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 문화 지식망을 구축하고, 기존의 한국학의 연구 성과를 사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지식의 부품을 통해 창조적 재생산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계와 문화 산업계가 연계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인문 사회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축적된 지식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디지털화를 통해 인문 사회 분야 학술연구 성과를 교육·문화 산업에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김현 교수의 발표에 이어 지식의 부품화와 창조적 재생산 방안, 디지털 인문학의 의의와 방향성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앞으로 디지털 한국학의 정착과 한국 문화 지식망 구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2.3. 2014년 제9회 원내 토론회 후기

- 주제: 방송인이 보는 방송 언어의 문제점
- 발표자: 박건식(한국피디연합회 수석부회장)
- 일시: 2014년 8월 18일(월) 16:00~17:3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건식 한국피디연합회 수석부회장(현 회장)이 ‘방송인이 보는 방송 언어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방송 언어의 특성, 방송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 방송 언어에 대한 오해, 방송 언어 연구의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방송 언어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방송 매체를 통해 소통되는 언어이다. 방송은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규범도 지켜야 한다. 여기에 방송 언어를 담당하는 방송인들의 고민이 있다. 특히 규범 언어로 등재되지는 못했지만 현실 언어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언어 층이나 단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현실 언어에서는 '생얼'이라는 어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 규범어로 등재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방송인들의 처지에서는 규범을 지켜서 '민낯'으로 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방송은 현실의 반영이라는 생각으로 '생얼'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처럼 방송 언어는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함께 규범성의 준수라는 상반되는 가치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방송 언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사실 '방송 언어'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일반 언어와 방송 언어가 다를 수 없고, 일반 언어와 차이나는 방송 언어의 특질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 언어'라는 말을 '방송에서의 언어 사용'이라는 원래 의미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방송에서의 언어 사용은 공공성과 사적 담화의 특성을 모두 담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송 언어를 바라보는 태도는 공공성, 규범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더불어 방송 언어가 갖는 사적 특성, 사담화 경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또, 방송 언어는 이래야 한다는 선형적 방송 언어 태도에서 '방송 언어 사용'을 좀 더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어서 방송 언어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제시하였다.

첫째, 방송 언어의 규범성 준수에 대한 문제이다. 방송 언어는 규범

성 준수와 현실 반영이라는 상반하는 양면적 가치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현실 반영에만 집착할 경우 청소년 보호라는 공적 가치에 소홀할 수 있고, 반대로 규범성 준수만 고집할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거나 현실 비판 기능이 마비될 위험성이 있다.

둘째, 방송 언어의 영향력에 대한 과도한 평가 문제이다. 방송 언어의 규범성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 때문이다. 2010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생활에서의 욕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욕설 습득 경로는 ‘친구’ 47%, ‘인터넷’ 24%, ‘텔레비전 프로그램’ 4.3%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언어 사용 영향 관계가 과거 텔레비전 중심에서 또래 집단이나 인터넷, 게임 등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방송 언어는 외래어, 외국어가 없어야 한다는 순정론적, 계몽적 시각이다. 이러한 순정론적 시각은 방송 언어를 담화나 문장 중심으로 보지 않고, 어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다. 상당수의 경우 담화나 문장 차원에서 외래어는 그에 상응하는 고유어와는 다른 독자적 의미 영역을 확보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순화만 고집한다면, 우리 방송 언어의 다양성은 대폭 위축될 것이다.

끝으로 방송 언어를 연구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방송 언어에 대한 연구는 규범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방송 언어가 일상어에 끼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방송 언어가 일상어에 파급되어 쓰인다면 그것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상어와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

박건식 수석부회장의 발표에 이어 방송 언어 환경의 변화, 방송 언어가 나아갈 방향, 방송 언어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앞

으로 방송 언어의 발전을 위해 언어 전문가와 방송인들이 자주 교류하고 논의를 거듭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3.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3.1. 2014년 제15차 실무소위원회 심의 확정안(2014. 7. 4.)

[인명]

- 라오니치, 밀로시 Milos Raonic 몬테네그로어 이름: Miloš Raonić 1990~ 캐나다 테니스 선수. 몬테네그로 태생, 3세에 가족이 캐나다에 이주. 2014년 현재 모나코 거주. 2014년 6월 현재 남자프로테니스 협회(ATP) 세계 랭킹 단식 9위.
- 로스کم, 피터 (제임스) Peter (James) Roskam 1961~ 미국 정치가·법조인. 하원 의원(공화·일리노이)(2007. 1. ~). 일리노이 주 의회 상원 의원(2000. 1. ~ 2007. 1.), 하원 의원(1993. 1. ~ 1998. 1.).
- 벤치치, 벨린다 Belinda Bencic 1997~ 슬로바키아·스위스 테니스 선수. 스위스 장크트갈렌(Sankt Gallen) 주에서 슬로바키아 출신 이민자 부모에게서 출생. 2014년 6월 현재 여자테니스협회(WTA) 세계 랭킹 단식 71위. 슬로바키아어 이름은 ‘벨린다 벤치초바(Belinda Bencičová)’.
- 샹파뉴, 제롬 Jérôme Champagne 1958~ 프랑스 외교관, 축구 지도자.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관계국장(2007~2010), 회장 대행(2005~2007), 사무부국장(2002~2005), 회장 국제고문(1999~2002).
- 에스파이야트, 아드리아노 Adriano Espaillat 1954~ 미국 정치가. 도

미니카 공화국 태생. 뉴욕 주 의회 상원 의원(2011~), 하원 의원 (1997~2010). 민주당 소속.

- 위키킨, 아흐메트 Ahm et Üzümcü 1951~ 터키 외교관. 정부 간 국제 기구(IGO)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사무국장(2010. 7. ~).
- 임 차이 리 Yim Chhay Ly 캄보디아어 이름: ឈម ឡែន ?~ 캄보디아 정치가. 부총리(2013. 9. ~).
- 판프라흐, 미카엘 Michael van Praag 1947~ 네덜란드 축구 지도자. 네덜란드 축구협회(KNVB) 회장(2008. 8. ~). 유럽축구연맹(UEFA) 집행위원.
- 플라티니, 미셸 (프랑수아) Michel (François) Platini 1955~ 프랑스 축구 지도자·선수. 쥘프(Jœuf)에서 이탈리아계 부모에게서 출생.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2007. 1. ~). 미드필더 출신. 친조부는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

[지명]

- 니나와 Nīnawā [Ninawa] 아랍어 이름: نینوی ①이라크 북서부의 주. ②니네베(Nineveh)의 아랍어 이름.

3.2. 2014년 제16차 실무소위원회 심의 확정안(2014. 7. 11.)

[인명]

- 마윈 馬雲 Mǎ Yún 1964~ 중국 실업가. 인터넷 기반 전자상거래 기업집단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阿里巴巴集團) 회장. 영어 이름은 ‘잭(Jack)’.
- 머톨라, 토미 Tommy Mottola 본명 토머스 대니얼 머톨라 (2세) Thomas Daniel Mottola, Jr. 1949~ 미국 실업가·연예기획자. 일렉

트로닉댄스 음악(EDM) 음반사 카사블랑카 레코드(Casablanca Records) 공동 소유주(2000~), 음반사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Sony Music Entertainment, Inc.)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1990~2003).

- 바워, 트레버 (앤드루) Trevor (Andrew) Bauer 1991~ 미국 야구 선수. 투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Cleveland Indians) 소속(2012. 12. ~).
- 스투브, (카이예란) 알렉산데르 (Cai-Göran) Alexander Stubb 1968~ 핀란드 정치가· 정치학자· 외교관. 총리(2014. 6. ~). 국민연합당(Kansallinen Kokoomus) 당수(2014. 6. ~). 유럽문제· 대외무역 장관(2011. 6. ~2014. 6.), 외무장관(2008. 4. ~2011. 6.), 국회의원(2011. 4. ~). 유럽의회 의원(2004. 7. ~2008. 4.).
- 이제트베고비치, 바키르 Bakir Izetbegović 1956~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정치가. 보스니아계 대통령(2010. 11. ~). 알리야 이제트베고비치(Alija Izetbegović) 전 대통령의 아들.
- 짜뚜폰 프롬판 Catuphor Phromphan [Jatuporn Prompan] 타이어 이름: จตุพร พรหมพันธุ์ 1965~ 타이 정치가· 정치활동가. 정치 압력단체 반독재민주연합전선(UDD) 회장(2014. 3. ~). 2선 하원 의원(2008. 1. ~2012. 5.). 프아타이당(PTP) 소속(2008~).
- 카우엣, 조너선 Jonathan Caouette 1973~ 미국 영화 감독· 각본가· 배우. 주로 다큐멘터리 영화, 단편 영화 연출.
- 코크린, (윌리엄) 새드 (William) Thad Cochran 1937~ 미국 정치가. 6선 상원 의원(공화· 미시시피)(1978. 12. ~), 하원 의원(공화· 미시시피)(1973. 1. ~1978. 12.).
- 헤레베허, 필리프 Philippe Herreweghe 1947~ 벨기에 지휘자. 겐트 태생. ‘플랑드르 왕립관현악단(deFilharmonie)’ 수석지휘자

(Hoofddirigent: 2002~ , chef-dirigent: 1998~2002). 프랑스 교향악단 ‘상젤리제 관현악단(Orchestre des Champs-Élysées)’(1991~) 공동 설립자, 음악 감독 겸 수석 지휘자. ‘겐트 합창단(Collegium Vocale Gent)’(1970~), 프랑스 바로크 합주단 ‘라샤펠루아얄(La Chapelle Royale)’(1977~), 프랑스 ‘유럽 합창단(Ensemble Vocal Européen)’ 설립자. 바로크 음악 원전 연주의 선구자로 평가됨.

3.3. 2014년 제17차 실무소위원회 심의 확정안(2014. 7. 18.)

[인명]

- 그레니에이, 에이드리언 Adrian Grenier 1976~ 미국 배우·영화인. 대표 출연 작품 텔레비전 연속극 ‘수행원(Entourage)’(2004~2011).
- 그레일링, 크리스 Chris Grayling 본명 크리스토퍼 스티븐 그레일링 Christopher Stephen Grayling 1962~ 영국 정치가. 잉글랜드인. 대법관(Lord Chancellor) 겸 법무장관(2012. 9.~). 노동·연금부(DWP) 고용 차관(2010. 5.~2012. 9.). 하원 의원(2001. 6.~). 보수당 소속.
- 데이터, 짐 Jim Dator 본명 제임스 앨런 데이터 James Allen Dator ? ~ 미국 정치학·미래학자. 마노아 하와이대(UH Mānoa) 정치학과 교수, 하와이 미래학연구소(Hawaii Research Center for Futures Studies)장.
- 사일러, 시드니 Sydney A. Seiler 애칭 시드 Syd ?~ 미국 행정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 겸 국장(2011. 5.~).
- 솔베르그, 에르나 Erna Solberg 1961~ 노르웨이 여성 정치가. 총리(2013. 10.~). 중도우파 보수당(Høyre) 당수(2004. 5.~). 지방자치·지역개발 장관(2001. 10.~2005. 10.).

- 슈타이니츠, 유발 Yuval Steinitz 히브리어 이름: יובל שטייניץ 1958~ 이스라엘 정치가. 기밀 정보·국제 관계·전략 문제 장관(2013~), 재무 장관(2009~2013). 5선 국회의원(1999~).
- 스와라지, 수슈마 Sushma Swaraj 힌디어 이름: सुषमास्वराज 1952~ 인도 여성 정치가. 외무장관(2014. 5.~), 보건·가족 복지 장관(2003. 1.~2004. 5.), 공보·방송 장관(2000. 9.~ 2003. 1., 1998. 3.~1998. 10., 1996. 5.~1996. 6.). 4선 하원 의원(2009~ , 1996~2000), 3선 상원 의원(2000~2009, 1990~1996). 델리(Delhi) 도시권(NCT) 총리(1998. 10.~1998. 12.). 하리아나(Haryana) 주 의회 3선 의원(1987~1990, 1977~1982). 하리아나 주정부 교육 장관(1987~1990), 노동 장관(1977~ 1979).
- 오소티메힌, 바바툰데 Babatunde Osotimehin 1949~ 나이지리아 행정가·의학자.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국장(2011. 1.~). 보건 장관(2008. 12.~2010. 3.).
- 자비드, 사지드 Sajid Javid 1969~ 영국 정치가. 파키스탄계 잉글랜드인. 문화·언론·체육 장관(2014. 4.~). 재무부 재정 차관(2013. 10.~2014. 4.), 경제 차관(2012. 9.~2013. 10.). 하원 의원(2010. 5.~). 보수당 소속.
- 키리오스, 닉 Nick Kyrgios 본명 니컬러스 힐미 키리오스 Nicholas Hilmy Kyrgios 1995~ 오스트레일리아 테니스 선수. 2014년 7월 현재 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 세계 랭킹 단식 66위. 부친은 그리스인, 모친은 말레이시아인.

3.4. 2014년 제18차 실무소위원회 심의 확정안(2014. 7. 25.)

[인명]

- 바르후ם, 파우지 Fawzī Barhūm [Fawzi Barhoum] 아랍어 이름: فوزي برهوم ~ 팔레스타인 정치가. 이슬람 무장 단체 겸 정당 하마스 (Ḥamās حماس) 대변인.
- (브링케트) 벤투, 비토르 (아우구스투) Vítor (Augusto Brinquete) Bento 1954 ~ 포르투갈 경제학자·금융인. 이스피리투 산투 은행 (Banco Espírito Santo) 최고경영자(CEO)(2014. 7. ~).
- 슈크리, 사미흐 Sāmīḥ Shukrī [Sameh Shoukry] 아랍어 이름: سامح شكري 1952 ~ 이집트 외교관. 외무 장관(2014. 6. ~). 미국 주재 대사(2008~2012).
- 엘칸, 존 (필립 자코브) John (Philip Jacob) Elkann 1976 ~ 이탈리아 실업가. 미국 뉴욕시에서 이탈리아인 부모에게서 출생, 영국, 브라질, 프랑스 등지에서 성장, 이탈리아에서 대학 재학. 복합기업 피아트 (Fiat S.p.A.) 회장(2010. 4. ~). 전 명예 회장 조반니 아벨리 (Giovanni Agnelli)의 외손자.
- 자노티, 파비올라 Fabiola Gianotti 1962 ~ 이탈리아 여성 입자물리학자.
- 잔지, 이털로 (안드레이스) Italo (Andres) Zanzi 1974 ~ 미국 경영인·법조인. 이탈리아계. 이탈리아 프로축구 팀 로마(A.S. Roma) 최고경영자(CEO)(2012. 12. ~).
- 콜레이로 프레카, 마리 루이즈 Marie Louise Coleiro Preca 1958 ~ 몰타 여성 정치가. 대통령(2014. 4. ~). 가족·사회연대 장관(2013. 3. ~ 2014. 3.). 노동당 소속.
- 프랑쉬, 장바티스트 (두빌) 드 Jean-Baptiste (Douville) de Franssu 1963 ~ 프랑스 은행가. 로마 교황청 종교사업협회(IOR)(통칭 바티

칸 은행) 총재(2014. 7. ~).

- 피아노, 렌초 Renzo Piano 1937~ 이탈리아 건축가. 프리츠커(Pritzker) 상 수상(1998. 4.).

3.5. 2014년 제19차 실무소위원회 심의 확정안(2014. 8. 1.)

[인명]

- 가시 유우 香椎由宇 본명 오다기리 유코 小田切悠子 구성 가시 香椎 1987~ 일본 여배우. 예명. 가나가와(神奈川)현 태생, 싱가포르에서 성장. 배우 오다기리 조(小田切讓)의 부인. 외조부는 유럽계 미국인.
- 라모타르, 도널드 (라빈드라나우트) Donald (Rabindranauth) Ramotar 1950~ 가이아나 정치가. 대통령(2011. 12. ~).
- 레이카르트, 프랑크 Frank Rijkaard 본명 프랑클린 에드문도 레이카르트 Franklin Edmundo Rijkaard 1962~ 네덜란드 축구 지도자·선수. 암스테르담에서 수리남인 부친과 네덜란드인 모친에게서 출생.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국가 대표 팀 감독(2011. 7. ~2013. 1.).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
- 리아우 티옹 라이 Liow Tiong Lai 1961~ 말레이시아 정치가. 중국계. 교통장관(2014. 6. ~), 보건장관(2008. 3. ~2013. 5.). 보수정당 ‘말레이시아 화인(華人)공회(MCA)(Persatuan Cina Malaysia)’ 당수(2013. 12. ~). 4선 하원 의원(1999~). 중국어명은 ‘랴오중라이(廖中萊 Liào Zhōnglái)’.
- 뷰커스, 제프리 (로런스) Jeffrey (Lawrence) Bewkes 애칭 제프 Jeff 1952~ 미국 경영인·언론인. 네덜란드·독일계. 미국 기반의 다국적 언론 복합기업 ‘타임 워너(Time Warner Inc.)’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2009. 1. ~), 최고경영자(2008. 1. ~2008. 12.).

- 스타이어, 톰 Tom Steyer 본명 토머스 파 스타이어 Thomas Fahr Steyer 1957~ 미국 금융인·실업가·자선가·환경운동가.
- 아다치 료 安達亮 1969~ 일본 축구 지도자·선수. 프로 축구 팀 '비셀 고베(ヴィッセル神戸)(Vissel Kobe)' 감독(2012. 11. ~ , 2012. 5.). 공격수 출신.
- 아오이 유 蒼井優 1985~ 일본 여배우. 대표 출연 영화 '하나와 엘리스(花とアリス)'(2004), '무지개 여신(虹の女神)'(2006), '히니와 클로버(ハチミとクローバー)'(2006), '홀라 걸스(フラガール)'(2006).
- 윈터, 애나 Anna Wintour 1949~ 영국 여성 언론인. 잉글랜드인. 패션 월간지 보그(Vogue) 미국판 편집장(1988. 7. ~).
- 티메르만스, 프란스 Frans Timmermans 본명 프란시스쿠스 코르넬리스 헤라르뒤스 마리아 티메르만스 Franciscus Cornelis Gerardus Maria Timmermans 1961~ 네덜란드 정치가·외교관. 외무 장관(2012. 11. ~), 외무 차관(2007. 2. ~2010. 2.). 2선 하원 의원(2010. 6. ~2012. 11., 1998. 5. ~2007. 2.).
- 판마르베이크, 베르트 Bert van Marwijk 1952~ 네덜란드 축구 지도자·선수. 독일 프로 축구 팀 함부르크 스포츠클럽(Hamburger SV) 남자 축구부 감독(2013. 9. ~2014. 2.). 미드필더 출신.
- 평산산 馮珊珊 Féng Shānshān 1989~ 중국 골프 선수. 2014년 7월 현재 세계 여자 골프랭킹(Rolex Rankings) 8위.

3.6. 2014년 제20차 실무소위원회 심의 확정안(2014. 8. 8.)

[인명]

- 그라시아스, 오즈월드 Oswald Gracias 1944~ 인도 성직자. 로마 가톨릭 교회 추기경(2007. 11. ~). 뭄바이(Mumbai) 대주교(2006. 12.

- ~).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 의장(2011. 10. ~).
- 리우코, 스타니스와프 (마리안) Stanislaw (Marian) Rylko 1945~ 폴란드 성직자. 로마 가톨릭 교회 추기경(2007. 11. ~). 교황청 평신도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pro Laicis) 의장(2003. 10. ~).
 - 미헬손, 레오니트 (빅토로비치) Leonid (Viktorovich) Mikhel'son [Michelson] 러시아어 이름: Леонид Викторович Михельсон 1955~ 러시아 실업가. 천연가스 회사 노바테크(Новатэк)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 아시하라 요시시게 芦原義重 1901~2003 일본 경영인. 간사이전력(關西電力) 회장(1970~1987), 사장(1959~1970).
 - 애버딘, 후마 (마무드) Huma (Mahmood) Abedin 우르두·아랍어 이름: هما محمود عابدين 1976~ 미국 정치가. 미시간(Michigan)주 캘러머주(Kalamazoo)에서 파키스탄인 부모에게서 출생, 2세에 가족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주, 18세 이후 미국에 거주. 국무부 부참모장(Deputy Chief of Staff) 역임. 전 하원 의원 앤서니 위너(Anthony Weiner)의 부인.
 - 파름리드, 미카엘라 Mikaela Parmlid 1980~ 스웨덴 골프 선수. 2014년 8월 현재 세계 여자 골프 랭킹(Rolex Rankings) 241위.
 - 판비르던, 벤 Ben van Beurden 1958~ 네덜란드 경영인. 영국·네덜란드 기반 다국적 석유·천연가스 회사 셸(Shell) 최고경영자(CEO) (2014. 1. ~).
 - 폴로즈, 스티븐 Stephen S. Poloz 1956~ 캐나다 금융인. 우크라이나인 3세.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총재(2013. 6. ~).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DC) 최고경영자(CEO)(2010 ~2013).
 - 필로니, 페르난도 Fernando Filoni 1946~ 이탈리아 성직자. 로마 가

톨릭 교회 추기경(2012. 2. ~). 교황청 인류복음화성(Congregatio pro Gentium Evangelisatione) 장관(2011. 5. ~).

- 헤드발, 카롤린 Caroline Hedwall 1989~ 스웨덴 골프 선수. 2014년 8월 현재 세계 여자 골프 랭킹(Rolex Rankings) 34위.
- 헤이노넨, 올리 Olli Heinonen 1946~ 핀란드 방사화학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안전보장조치 담당)(2005~2010). 핵폐기물 처리 문제 전문가.

[지명]

- 락까 ar Raqqah [Ar-Raqqah] 아랍어 이름: الرقة ①시리아 북부의 주. ②락까 주의 주도.
- 슈자이야 ash Shujā'iyyah [Shuja'iyya] 아랍어 이름: الشجاعة 팔레스타인 가자(Gaza)시의 구역.

3.7. 2014년 제21차 실무소위원회 심의 확정안(2014. 8. 14.)

[인명]

- 가사나, 외젠리샤르 Eugène-Richard Gasana 1962~ 르완다 외교관. 부룬디 태생. 유엔(뉴욕) 주재 대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2014. 7., 2013. 4.). 독일 파견 특명전권대사(독일·오스트리아·불가리아·러시아·헝가리·폴란드·체코·루마니아 관할) 역임.
- 고스키, 알렉스 Alex Gorsky 1960~ 미국 경영인. 다국적 의료 기기·의약품·소비재 제조사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최고경영자(CEO)(2012. 4. ~). 스위스 기반의 다국적 제약 회사 노바티스(Novartis) 최고경영자(CEO)(2005~2008).
- 디핀토, 조지프 Joseph M. DePinto 애칭 조 Joe 1963~ 미국 경영인.

일본 기반의 다국적 편의점 소매 업체 세븐일레븐(7-Eleven, Inc.)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2005. 12. ~).

- 마이숨, (무함마드) 푸아드(, 하우라미) (Muḥammad) Fuʿād Maʿṣūm (Hawrāmī) [(Muhammad) Fuad Masum] 아랍어 이름: معصوم هورامي 쿠르드어 이름: مەوسەمە فەواد مەحمەد فەواد 1938~ 이라크 정치가. 쿠르드인, 대통령(2014. 7. ~). 국회의장 대행(2010. 6. ~2010. 11.). 쿠르드 자치주 초대 총리(1992. 7. ~1993. 4.).
- 아슈타이야, 무함마드 Muḥammad ʿAshtayyah [Mohammad Shtayyeh] 아랍어 이름: محمد أشتية 1958~ 팔레스타인 정치가·경제학자. 자치정부 ‘개발·재건을 위한 팔레스타인 경제협의회(majlis al-iqtisadi al-filastiniyī li-ltannīmī wa-l-iʿmār) (بكدار) PECNDAR’ 수장(장관: 2003 ~ , 사무국장: 1996~2003).
- 야알론, 모셰 Moshe Ya'alon 히브리어 이름: משה יעלון 별칭 보기 Bogie(בוגי), 본성 스몰린스키 Smolinski(סמולינסקי) 1950~ 이스라엘 정치가·군인. 국방장관(2013. 3. ~). 이스라엘 방위군(IDF) (육·해·공군 총괄) 참모총장(2002. 7. ~2005. 6.). 육군 중장 (רב-104)(육군을 포함한 이스라엘 방위군의 최고 계급)으로 퇴역 (2005. 6.).

[지명]

- 자발리아 Jabāliyyā[Jabalia, Jabalya] 아랍어 이름: جباليا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의 도시.

[일반 용어]

- 제너비브 Genevieve 허리케인 이름.

3.8. 2014년 제22차 실무소위원회 심의 확정안(2014. 8. 22.)

[인명]

- 덩션웨이鄧森悅 Dèng Sēnyuè 1992~ 중국 리듬체조 선수.
- 도브시, 잉그리드 Ingrid Daubechies 1954~ 벨기에·미국 여성 물리학자·수학자. 벨기에 림뷔르흐(Limburg)주 태생, 1996년 미국 시민권 취득. 미국 듀크(Duke)대 수학과 석좌교수(2011. 1. ~), 프린스턴(Princeton)대 수학과, 응용·계산수학과 교수(2004~ 2011). 국제수학연맹(IMU) 회장(2011~2014).
- 미르자하니, 마리암 Maryam Mirzakhani 페르시아어 이름: میرزاخانۍ مریم 1977~ 이란 여성 수학자. 미국 스탠퍼드(Stanford)대 수학과 정교수(2008. 9. ~). 필즈상(Fields Medal) 수상(2014. 8.).
- 바르가바, 만줄 Manjul Bhargava 힌디어 이름: मंजुलभार्गव 1974~ 캐나다·미국 수학자. 인도계.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Hamilton) 태생, 미국 뉴욕 주 롱아일랜드 섬(Long Island)에서 성장. 프린스턴(Princeton)대 수학과 석좌교수(2003~). 필즈상(Fields Medal) 수상(2014. 8.).
- 밴빌, (윌리엄) 존 (William) John Banville 기타 필명 벤저민 블랙 Benjamin Black 1945~ 아일랜드 소설가·각본가. ‘바다(The Sea)’(2005)로 맨부커상(Man Booker Prize) 수상(2005. 10.). 카프카 국제문학상(Franz Kafka Prize) 수상(2011. 5.).
- 벤트렐, 패트릭 Patrick H. Ventrell ?~ 미국 행정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2014~). 국무부 부대변인(대행), 공보국장 역임.
- 아빌라 (코르데이루 지멜루), 아르투르 Artur Ávila (Cordeiro de Melo) 1979~ 브라질·프랑스 수학자.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태생.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직위: directeur de recherche) (2008~), 파리 제7대학(Université Paris Diderot Paris 7) 쥐시외 수 학연구소(IMJ-PRG: Institut de mathématiques de Jussieu - Paris Rive Gauche)(2009~) 소속. 필즈상(Fields Medal) 수상(2014. 8.).

- 야아리, 예디디아 Yedidya Ya'ari 히브리어 이름: יְדִידְיָהּ יַעֲרִי 애칭 디디 Didi(דידי) 1947~ 이스라엘 경영인·군인. 군수회사 라파엘 (RAFAEL)(רפאל) 최고경영자(CEO)(2004~). 해군 소장(אלוף)으로 퇴역(2004. 9.).
- 하이러, 마르틴 Martin Hairer 1975~ 오스트리아 수학자. 스위스 제 네바 태생. 영국 잉글랜드 워릭(Warwick)대 수학 석좌교수(2014. 3. ~). 필즈상(Fields Medal) 수상(2014. 8.).
- 해먼, 베키 Becky Hammon 본명 리베카 린 해먼 Rebecca Lynn Hammon 1977~ 미국·러시아 여성 농구 지도자·선수. 사우스다 코타(South Dakota)주 래피드시티(Rapid City) 태생, 2008년 러시아 시민권 취득. 엔비에이(NBA) 샌안토니오 스퍼스(San Antonio Spurs) 코치(2014. 8. ~).

3.9. 2014년 제23차 실무소위원회 심의 확정안(2014. 9. 5.)

[인명]

- 류, 조안 Joanne Liu ?~ 캐나다 여성 의사. 퀘벡(Quebec)에서 중국 출신 이민자 부모에게서 출생. ‘국경 없는 의사회(MSF)’ 회장(2013. 6. ~).
- 매큐언, 이언 (러셀) Ian (Russell) McEwan 1948~ 영국 소설가·각 본가. 잉글랜드인. ‘암스테르담(Amsterdam)’(1998)으로 맨부커상 (Man Booker Prize) 수상(1998. 10.).
- 무알림, 왈리드 (빈 무흐잇딘, 둘라이미) Walīd (bin Muḥyiddīn al)

Muḥallim (ad Dulaymī) [Walid (Mohi Edine al) Muallem] 아랍어 이름: وليد بن محي الدين المعلم الدليمي 1941~ 시리아 외교관· 정치가. 부총리 겸 외무장관(2012. 6. ~), 외무장관(2006. 2. ~2012. 6.). 미국 주재 대사(1990. 1. ~2000. 12.).

- 비실리아, 크리스토프 Christophe Bisciglia 1980~ 미국 실업가. 기업용 컴퓨터 데이터 저장·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클라우데라(Cloudera Inc.) 공동 설립자.
- 실버먼, 벤 Ben Silberman ? 1983~ 미국 실업가. 정보 수집, 시각적 구조화 특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핀터레스트(Pinterest)(2010. 3. ~) 공동 창업자, 최고경영자(CEO).
- 실버먼, 벤 Ben Silverman 본명 벤저민 노아 실버먼 Benjamin Noah Silverman 1970~ 미국 실업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일렉투스(Electus)(2009~) 창업자, 최고경영자(CEO).
- 아흘라이트너, 파울 (미하엘) Paul M(ichael) Achleitner 1956~ 오스트리아 경영인· 금융인· 경영학자. 도이체뱅크(Deutsche Bank) 회장(2012. 5. ~).
- 제르보, 라시나 Lassina Zerbo 1963~ 부르키나파소 지구물리학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2013. 8. ~).
- Zumthor, 페터 Peter Zumthor 1943~ 스위스 건축가. 바젤(Basel) 태생. 프리츠키(Pritzker) 상 수상(2009. 5.).
- 케르버, 안젤리크 Angelique Kerber 1988~ 독일 테니스 선수. 브레멘(Bre-men)에서 독일계 폴란드인 부모에게서 출생. 2014년 9월 현재 여자테니스협회(WTA) 세계 랭킹 단식 7위.
- 핀토 (아파나도르), 호르헤 루이스 Jorge Luis Pinto (Afanador) 1952~ 콜롬비아 축구 지도자. 코스타리카 국가 대표팀 감독(2011~2014,

2004~2005). 콜롬비아 국가 대표팀 감독(2007~2008).

[일반 용어]

- 마이어 엘피지에이 클래식 대회 Meijer LPGA Classic 2014년 신설된, 엘피지에이 투어(LPGA Tour) 대회.

3.9. 2014년 제23차 실무소위원회 심의 확정안(2014. 9. 19.)

[인명]

- 뉴청쩌 鈕承澤 Niǔ Chéngzé 1966~ 대만 영화 감독·제작자·각본가·배우. 대표 연출 영화 ‘맹갑(艋舺)(Monga)’(2010). 영어 이름은 ‘도즈(Doze)’.
- 닐센, 소피 카르스텐 Sofie Carsten Nielsen 1975~ 덴마크 여성 정치가. 연구·혁신·고등교육 장관(2014. 2. ~).
- 두앙아농 아룬께손 Duanganong Arunkesor[Aroonkesorn] 타이 어명: ดวงอนงค์ อรุณเกษร 1984~ 타이 여성 배드민턴 선수.
- 라그바, 토고치 Togooch Lkhagvaa 몽골 어명: Тогооч Лхагваа ?~ 몽골 법학자. 헌법재판소 위원.
- 레홍아인 Lê Hồng Anh 1949~ 베트남 정치가·군인 대장(2005. 1. ~). 공산당 중앙서기국 상임서기(2011. 8. ~). 공안장관(2002. 1. ~2011. 8.). 공산당 중앙정치국(Politburo)원 겸 중앙서기국원(2011. 1. ~), 중앙서기국원(2001. 4. ~2006. 4.).
- 마크롱, 에마누엘 Emmanuel Macron 1977~ 프랑스 정치가·행정가. 경제·산업·디지털 장관(2014. 8. ~).
- 모게리니, 페데리카 Federica Mogherini 1973~ 이탈리아 여성 정치가. 외무장관(2014. 2. ~). 유럽연합(EU) 외교문제·안보정책 고위

- 대표(HR)(구칭: 외무장관 겸 집행위원회 제1부위원장(2014. 11. ~) .
- 바야르후, 도르지 Dorj Bayarkhuu 몽골 어명: Дорж Баярхүү ?~ 몽골 외교관. 미국(샌프란시스코) 주재 총영사 대행.
 - 예센, 모겐스 Mogens Jensen 1963~ 덴마크 정치가. 대외무역·개발협력 장관(2014. 2. ~) .
 - 콕폭셴 Kwok Fook Seng ?~ 싱가포르 외교관. 세계무역기구(제네바) 주재 대사 (2011. 2. ~) .
 - 폰팁 부라나쁘라삿숙 Phorthiph Buranaprasroethsukh [Porntip Buranaprasertsuk] 타이 어명: พรทิพย์ บุรนประเสริฐสุข 1991~ 타이 여성 배드민턴 선수.
 - 핑커스, 마크 (조너선) Mark (Jonathan) Pincus 1966~ 미국 실업가. 시카고(Chicago)의 유대인 집안에서 출생.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게임 개발·공급 업체 징가(Zynga)(2007. 7. ~) 공동설립자.
 - 훈데르트바서, 프리덴스라이히 (레겐타크 둥켈분트) Friedensreich (Regentag Dunkelbunt) Hundertwasser 1928~2000 오스트리아·뉴질랜드 미술가·건축가·환경운동가. 빈(Wien)에서 가톨릭 교인 부친과 유대인 모친에게서 출생. 만년에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 유럽 연합 반대자로 활동, 오스트리아의 입헌군주제로의 회귀 옹호. 출생 시 이름은 ‘프리드리히 슈토바서(Friedrich Stowasser)’.

4. 2014년 하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 계획

4.1. 2014년 하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가. 교육 개요

- 내용: 어문 규범, 공문서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국어 관련 과목 20강좌 35시간
- 장소: 국립국어원
- 기간: 5일간(월~금), 비합숙

나. 교육 일정(2014년 하반기)

- 9월 1기: 2014. 9. 15.(월)~ 9. 19.(금)
- 9월 2기: 2014. 9. 22.(월)~ 9. 26.(금)
- 10월 1기: 2014. 10. 13.(월)~ 10. 17.(금)
- 10월 2기: 2014. 10. 20.(월)~ 10. 24.(금)
- 11월 1기: 2014. 11. 10.(월)~ 11. 14.(금)
- 11월 2기: 2014. 11. 17.(월)~ 11. 21.(금)

다. 수료생에게는 교육 훈련 점수(선택 전문 교육 훈련 과정, 35시간) 부여

라. 교육비: 120,000원(수강료 · 교재비: 100,000원, 점심 값(5일): 20,000원)

마. 연락처: 02-2669-9662, 9729, 9752 (전송: 02-2669-9787)

4.2.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주요 강좌 내용

가. 국어 어문 규범 분야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의 원칙과 실례 익히기
- 일상생활에서 틀리기 쉬운 말과 구별해야 할 말 익히기

나. 글을 바르게 쓰기

- 공문서 바로 쓰기: 공문서에서 흔히 잘못 쓰는 유형별로 그 사례 찾아보고 바르게 고치기. 고쳐 쓰면 좋을 단어와 문장 표현 제시
- 글쓰기 지도: 수강생이 직접 쓴 글을 첨삭하여 지도
- 우리말 다듬기: 일본어식 한자어, 어려운 한자어, 서구 외래어·외국어, 비속어 등 국어 순화의 대상과 결과, 바른말과 쉬운 말 제시

다. 말을 바르게 하기

- 표준 발음: 틀리기 쉬운 발음을 중심으로 표준 발음법 소개, 실례 익히기
- 협력적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효과적 방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듣고 말하기 등의 훈련

라. 국어와 문화 관련 특강

- 바람직한 언어 환경(일상 언어, 방송 언어, 길거리 간판, 안내문, 공공언어 바르고 쉽게 쓰기 등), 우리말에 나타난 한국인의 문화, 언어와 심리, 말과 정신의 관계, 새로운 세기의 문화와 산업 등
- * 특강 주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 국립국어원, 2014년 강원 언어문화 행사 개최

5.1. 2014년 강원 언어문화 행사,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개최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은 2014년 강원 언어문화 행사,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을 효석문화제가 열리는 강원도 평창군 효석문화마을에서 개최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 개최하는 지역 언어문화 행사는 사투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축제에 접목함으로써 사투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향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올해는 강원 민속 문화의 해를 맞아 (사)이효석문화선양회에서 주최하는 '제16회 평창 효석문화제'와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 행사명: 2014 평창 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 일시: 2014년 9월 13일(토) 오전 11시~오후 5시
- 장소: 평창 효석문화제 특설무대(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소재)
- 주요 행사

	시간	행사 내용
식전공연	11:00~11:15	평창 둔전평 농악
개막식	11:15~11:40	개막 선언, 제막식, 귀빈 소개, 축사
1부	11:40~12:40	정선 아리랑 공연
	12:40~13:50	'알코 드래요'(사투리 만담 공연)
2부	13:50~15:00	사투리 골든벨
	15:00~16:00	어린이 뮤지컬 '머느리 방귀에 메밀꽃 피었네'
폐막식	16:00~16:30	시상식 및 폐막 선언

[그림 1] 2014 강원 언어문화 행사 홍보지

마카 오서요

사투리한마당

국립국어원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카로세로 마음 읽기

- 1차: 2014. 9월 13일(토) 14:00~15:00 (사전예약 필수)
- 2차: 2014. 9월 13일(토) 15:30~16:30
- 3차: 2014. 9월 13일(토) 17:00~18:00

• 1차: 2014. 9월 13일(토) 14:00~15:00 (사전예약 필수)

• 2차: 2014. 9월 13일(토) 15:30~16:30

• 3차: 2014. 9월 13일(토) 17:00~18:00

한민족의 노래, 아리랑

정신아리랑

생생하게 전해오는 아리랑의 숨겨진 이야기, 그 숨겨진 이야기의 정수를 담았다. 그리고 아리랑의 그늘에 보듬어주기를 제언한다.

아리랑을 아리랑의 정수를 담았다. 그리고 아리랑의 그늘에 보듬어주기를 제언한다.

아리랑은 갈수록 아리랑이다. 아리랑의 정수를 담았다. 그리고 아리랑의 그늘에 보듬어주기를 제언한다.

태극아리랑이

아리랑이 오를 때는 백두대간을 넘어간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정수를 담았다. 그리고 아리랑의 그늘에 보듬어주기를 제언한다.

아리랑은 갈수록 아리랑이다. 아리랑의 정수를 담았다. 그리고 아리랑의 그늘에 보듬어주기를 제언한다.

추억이 살아 숨 쉬는 강원도

물 길머이와 추억 / 김성호

물 길머이와 추억은 강원도의 숨겨진 이야기, 그 숨겨진 이야기의 정수를 담았다. 그리고 아리랑의 그늘에 보듬어주기를 제언한다.

아리랑은 갈수록 아리랑이다. 아리랑의 정수를 담았다. 그리고 아리랑의 그늘에 보듬어주기를 제언한다.

이효실의 문학이 꽃피는 곳

책담 풀 무릎 춤추기

이효실의 문학이 꽃피는 곳, 그 숨겨진 이야기, 그 숨겨진 이야기의 정수를 담았다. 그리고 아리랑의 그늘에 보듬어주기를 제언한다.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2014년 9월 13일(토) 오전 11시~오후 5시

시간	행사내용
11:00~11:40	식전 공연 - 평창문화농악 개막 인사, 축하, 내빈 소개
11:40~12:40	축하공연 '정신 아리랑 공연' 사투리한마당
12:45~13:45	'우리 동네 알코 드레오' 사투리한마당
13:50~15:00	사투리 공연
15:25~16:30	'머느리 발귀에 메일꽃 피었네' 어린이 전의등용 유치급
16:30~17:00	시상식 및 폐막식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알코 드레오

- 장갑과 구수한 강원 사투리 민담
- 달은 듯, 영동·영서의 강원 사투리로 돌아보는 우리네 이야기

정신 아리랑 공연

- 기쁨, 슬픔, 사랑, 이별, 아리랑과 함께해 온 노래 '아리랑'
- 워너비 인포메이션을 통해 아리랑 정신 아리랑을 알리고 아리랑을 강원도 민요의 특색인 메느리에 맞춰 새롭게 만든 공연

사투리 공연

- 사투리를 찾아라! 출근길을 알려라!
- 사투리 가는 방향을 학생들에게 알려 알리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 유산을 알려라!
- 학생들을 불러는 최후의 인은 누가 될 것인가?

'머느리 발귀에 메일꽃 피었네'

어린이 전의등용 유치급

- 강원 사투리를 사용하여 들려주는 흥겨운 시골 이야기, 머느리 발귀 시기에 흥겨운 강원도 민요 소리로 집에서 못가게 되는데.....
- 부채춤, 국악기시춤, 상도놀이 등 전통 무용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참여형 유치급

전시회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둘러보기

- 전국 사투리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과 아이디어 작품을 한 곳에!
- 국립국어원의 전국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

예술 작품 속 강원도 사투리 전시

- 강원 일찍이 사투리 기행
- 문헌을 재해석하는 이효실 문학의 강원, 영동, 정동 등 강원도 곳곳에 살아 숨 쉬는 예술 작품 속 사투리 전시

강원도 사투리 어휘 비교 지도

‘마카 오세요, 사투리 한마당’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되었다. 식전 행사인 ‘평창 둔전평 농악’ 길놀이를 시작으로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단의 ‘정선 아리랑 공연’ 등 강원 주요 무형문화재 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강원 사투리 만담 공연 ‘알코 드래요(알려 드려요)’에서는 살아 있는 사투리의 해학을 엿볼 수 있었으며, 최고의 사투리 유망주를 뽑기 위해 강원 도내 고등학생들과 함께한 ‘사투리 골든벨’은 사투리가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대회를 통해 북평여자고등학교 1학년 최아현 학생이 대상,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최은도 학생과 주문진고등학교 박지민 학생이 각각 금상을 수상하였다. 어린이 뮤지컬 ‘며느리 방귀에 메밀꽃 피었네’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강원의 언어문화와 전통 예술을 함께 체험하는 마당이 되었다.

5.2.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에서 펼쳐진 사투리 전시회

또한 이번 효석문화제 기간(9월 5일~9월 14일) 동안 ‘강원 사투리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된 봉평에서 치러지는 전시인 만큼 강원 지역의 감성과 정서가 반영된 다양한 전시작들로 구성되었다.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표하는 예술 작품 속 강원 사투리, 각 지역의 사투리를 비교할 수 있는 강원 사투리 지도,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개최한 ‘전국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한 곳에 전시되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 행사명: 2014 평창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마카 오세요, 사투리 전시회’
- 전시 일정: 2014년 9월 5일(금)~9월 14일(일)

- 장소: 평창 효석문화제 전시 부스(강원 평창군 봉평면 소재)
- 주요 전시
 -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국립국어원 공모전 수상작)
 - 예술 작품 속 강원도 사투리 전시
 - 강원도 사투리 어휘 비교 지도

[그림 2] 2014 강원 언어문화 행사 개최 포스터

주최: 국립국어원, 강원대학교 한국어학회, 강원일보, 강원대언어문화연구원
후원: 사이어스문화산업학회, 국립국어연구원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2014년 강원 문화의 해

2014
09.05.(금) ~ 09.14.(일)

전시 프로그램

- ▶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전시 (국립국어원 공모전 수상작)
- ▶ 예술 작품 속 강원도 사투리 전시 (아리랑, 소설, 시 등)
- ▶ 강원 사투리(영동/영동/영서) 어휘 비교 지도

2014년 9월 13일(토) 11시~17시

효석문화제 행사 무대

사투리 한마당 프로그램

11:00 - 11:30	개막식	[개막 선언, 내빈 소개, 축사, 축하공연 등]
11:30 - 13:00	오락	[유희 프로그램/사투리 연극, 민담등]
13:00 - 14:00	예술	[정선 아리랑 공연]
14:00 - 15:00	교습	[사투리 말뉠법]
15:00 - 16:00	연극	[어린이 유치원 '마느리 방귀에 배짱을 피곤네']
16:30 - 17:00	폐막식	[시상식 및 배막 선언]

이효석 문학의 정취와 강원 사투리가 어우러진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은 사라져 가는 지역어에 녹아 있는 지역민의 삶과 정서의 가치를 다시 새기게 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언어 문화유산으로서 지역어를 보존하고 지역의 언어문화를 활성화하여 모든 세대를 아울러 지역어가 자연스럽게 향유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